



6

198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1. 6호

(루게 404)



◆◆◆◆◆◆◆◆◆◆ 차 례 ◆◆◆◆◆◆◆◆◆◆

인민의 한마음	4
우리 당	5
산중의 초소에	7
그날의 흰눈을 어깨우에 얹으시고	8
밀림속의 길 (외 1 편)	8
내 그 어딜 가도	9
전선천리길을 넘어	10
영원히 타오르는 불멸의 화불	11
은혜로운 분수가에서	14
반제혁명문학예술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전투적기치	15
무지개비낀 숲	21
자랑하노라 (외 1 편)	29
고향역에 내려서	30
탄부의 성미 (외 2 편)	31
조국땅 깊은곳에서	32
말하려마, 손풍금아	32
소조원, 그대의 웃음에	33
물줄기는 제곶으로	34
나의 기관단총	44
꽃은 해빛을 받아 핀다	46
시적형상이 높은 가사	48
언제나 해만 보는 꽃에 대한 노래	50
아버지의 선물	52
혈맥은 이어져야 한다	61
전쟁과 조국애	63

조국통일호 객차에 올라	65
나의 삶을 두고	66
군민의 자랑이 꽃피는 땅	67
새로 나온 책소개	71
긴등벌의 해질녘	73
베짜는 너인의 탄식	74
농사군에게 맑은 술과 이밥 먹기를 금지했던 말을 듣고	74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주제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75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문학이 걸어온 빛나는 길	78
당에 대한 뜨거운 충성의 노래로 일관된 우수한 작품들	79

인민의 한마음

김 철

잠들 때 하던 생각
겉 때에도 그냥 남아
내 알고싶어라
수령님 간밤에도
먼 현지도의 길을
새도록 이어가시지나 않으셨는지

깊이 든 잠 깨지들 말라고
차를 동구밖에 세워두신채
집집의 트랙을
조용히 살펴보시고 가시지나 않으셨는지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입는 은혜 더 많은 나날이여
오늘은 또 어디선가 우리 수령님
내 알지 못하는
아름찬 행복을 마련하고계시리

한평생 이날이때까지도
쌍이고쌍인 로고 푸실 사이 없으신
아 우리 수령님

뵈고싶어라
그 모습 가까이 뵈고싶어라
먼길 가신 아버지 어서 돌아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철부지의 그 마음
손꼽아 기다리다기다리다 끝내는
소리쳐부르며 마중가고싶어지는 이런 때에는
네가 너무 넓구나 조국의 대지여

아 이 땅을 더웁혀오신
위대한 수령님 열화같은 체온은

5천년 덧쌓였던 장설을 다 녹이시고
온갖 꽃망을 터치는 봄을 키우셨는데...

오늘도 수령님
가물타는 밭고랑의 흙을 쥐신채
10리... 20리... 샘물줄기 찾으시며
힘한 길 가지지 않으시는지

차중에서 드시려던
수저마저 놓으시면서
못다주신 사랑이 아직도 있으신듯
지나오신 길들을 다시 돌아보시는
우리 수령님

아 언제면 우리
만시름 다 놓으신 수령님을 뵈오며
언제면 그 언제면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인민으로
한분 어버이를 편히 모시라

잠들 때 하던 생각
그 생각은 이 하나
잠깁 때의 첫생각
그 생각도 이 하나

하여... 이 봄날 아침에
우리 다지는 맹세
맹세도 다만 하나-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모시리라!

우리 더 일찌기 잠을 깨리라
수령님 날마다 새벽길을 먼저 헤치시기에

우리 더 일하고 일하리라
 하여... 수령님 여실 그 창문가에
 아름다운 노을을 펼쳐드리리

우리 어디서 수령님을 뵈워도
 부끄럼 없는 인사를 올리려니
 수령님 이르시는곳마다
 풍년나락 춤추고 철의 수풀 설레일 때
 만대에 길이 전할 주체의 대기념비들이
 세기의 창공을 떠이고 일어설 때
 우리 수령님 더없이 기쁘시고 만족하시어
 환하게 환하게 미소지으시리라

아 화창한 봄

꽃향기 진동하는 이 땅
 가슴가득히 밀물처럼 차오르는
 아름찬 기쁨 아름찬 행복에 함뻑 취하여
 그꽃 그 향기 그 봄바람 되어
 나도 그 품을 향해 달려가노니
 나의 삶 나의 운명이시며
 나의 세계 나의 온 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그 품에 안기여
 세월의 한끝까지 따르리
 수령님
 아 우리 수령님

우리 당

김상오

그대 들려준 붓끝을 교루며
 모든 말을 찾았노라
 지나온 세월의 갈피를 더듬으며
 밤도 지새웠노라

허나 당이여
 내 무슨 말로
 그대를 노래하랴
 그대의 고마움
 그대의 위대함을

그대 해발에 안긴
 풍요한 대지의 설레임을 듣노라
 휘날리는 그대의 기치처럼
 붉게 붉게 물드는
 우리 수도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노라

아, 가없이 높고푸른 우리의 하늘
 삶이 만발하는 우리의 강토

한줄기 기적소리에서도
 아이들의 노래소리에서도
 온 나라가 그대에게로 향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읽나니

내 무슨 말을 보태랴
 세기로만 헤아릴
 거대한 발자욱들로
 그대가 이 땅에 아로새긴
 그 숭엄한 대서사시

바로 그것으로 그대가 우리 조국을
 세기의 령마루에 떠밀어올린
 그 영광찬란한 년대기우에
 주체의 탑은 창공에 솟아
 찬연한 빛발을 뿌리고있거니

로정은 아득했어라
 길은 험난했어라
 허나 우리는

그대만을 따라 걸었노라
원쑤를 치며
밀림의 천만리를 걸었고
적구천리를 뚫고
어머니품 그대를 향해 걸었노라
재가루 흩날리는 황량한 폐허우에
그대가 그리는 화려한 오늘을 떠이고
그대와 함께 일어섰노라

우리는 알았노니
오직 그대 품속에
우리의 운명이 있고
우리의 조국이 있다는것을
오직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자유와
무궁한 행복이 있다는것을

그대는 그 모든것을
한몸에 안은 크나큰 품
그 모든것을 사랑으로 키우는
뜨거운 심장이거니

우리자신보다 더
우리는 그대를 믿노라, 당이여!
그대가 우리를
우리보다 더 믿고 사랑했기에

우리자신보다 더
우리는 그대를 아끼노라, 당이여!
우리의 숨결이 그대 숨결에 닿아있고
우리의 혈액이
그대의 심장으로 뛰고있기에

다른 그 무엇도 원치 않노라
세계를 준다 해도
마다하리라, 당이여, 그대 없이는!
그대로 하여
내 이미 세계를 가졌나니

그렇다, 그대는 우리의 세계이며 우주
우리의 자유로운 삶의 영원한 품
주체의 위대한 해발을 따라
새세계를 가는 우리의 찬란한 미래

바치리라, 나의 모든것
피도 살도
목숨까지도
허나 그 누구에게도 결코
그대의 조그마한 존엄도 내어주지 않으리

우리에겐 위대한것이 있나니
오, 주체!
이 신성하고 뜨거운 이름으로
백만의 심장이 하나로 뛰고
천만의 충성이 하나로 받드는
그대 불패의 조선로동당

오직 룡성하는 조국과
인민의 행복만을 위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혁명의 기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이여!

우리는 그대를 믿노라
우리는 그대를 아끼노라
우리자신보다 더
하기에 우리는 그대를
우리 당이라 부르리

우리 수령님이라 부르듯
우리 어머니라 부르듯
우리 집, 우리 조국이라 부르듯, 그렇게
당이여, 그대를 부르리

그렇게 부르리라, 영원히!
그리고 오직 그대를 위해
살며 일하며 싸우리라
그대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당이여, 우리 당이여!

산중의 초소에

김봉운

푸른 숲 설레이는 산기슭
호함진 군마들은 움직일줄 모르고
금시 메아리치던 환호성도 멎어
산중초소의 엄숙한 병영
어버이수령님 천천히 대렬앞을 거니신다

먼곳의 자식들을 찾아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사랑의 손길로
하나하나 병사들의 손을 잡아주시는데
나어린 한 전사
우리러 한결을 힘있게 내디디며
자기의 이름만을 보고드릴뿐

나란히 늘어선 기마병들도
구분대의 지휘관들도 어쩔바를 모른다
어인일인가
이날을 그려 잠못이루던 꼬마병사
어찌하여 말고삐만 틀어쥐고 서있는가

흐르는 긴장속에
나어린 그 전사
두손으로 말고삐 더 힘있게 잡으며
수령님 우리러 경건히 말씀올린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저의 말이 사납습니다

순간, 그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이 사나와서
고삐를 놓으면 위험하단말이지?

수령님께서 사랑에 넘치시여
전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기특하다, 병사여
누구도 그 심정을 알수 없었구나
지휘관들도 수원들도
나어린 그의 가슴에
그토록 웅심깊은것을 품고있었음을

푸른 숲 끝까지 저너머
백두의 산발이 비껴오는가
사령부의 안전을 지키며
마지막 심장의 나팔소리 울리던
나어린 유격대원의 그 모습이
전사들의 가슴에 안겨오고

기특한 그 병사를
자애의 안광으로 바라보시던 수령님
-전사동무

동무가 길들인 말인데 일없소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뜨겁게 뜨겁게 손을 잡아주시니

-수령님! ...

목메여 목이 메여
꼬마병사는 걱정을 삼키고
아 감격에 넘친 그의 목소리는
산중초소 모든 전사들 가슴에서 울리는
하나같은 목소리로 하늘가에 메아리쳐라

그날의 흰눈을 어깨우에 얹으시고

-삼지연 대기념비앞에서-

전계승

언제나 잊지 못할
그날의 그 산발이기에
백두산이 한눈에 안겨오는
삼지연못가에 서계시는것인가

그립던 조국강산을 바라보시며
군복자락 날리시는
불멸의 영상
눈보라 헤쳐오신 그 어깨너머
간고한 그날의 이야기 전하는듯
백두의 산발에 흰눈이 쌓였구나

조국을 안으시고 기나긴 나날
원췌를 무찔러 수천수만리
밀림이 우거진 철령을 넘으시며
조국진군의 혈로를 헤치시던
그 길에서 옷자락의 흰눈 녹을새 있었던가

흐르던 별무리도 천막가에 내려앉건만
등잔불 불빛아래
조국의 지도-
설레이는 산줄기와 강줄기 너머
그으신 그 진군길우에
거연히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진달래도 반겨맞던 5 호물동가
나어린 나팔수를 건네워주시던
그날의 물결소리 감회깊게 들으시는가
안개 자욱한 베개봉기슭
타오르는 우등불 그리도 정다웁던
숙영의 그 밤을 그려보시는가

일행천리행군의 피곤도 푸실새없이
별목공들의 가슴마다 희망을 안겨주시던
신사동의 귀틀집을 생각하시고
멸적의 신호총소리 울리실 때
진달래도 붉게 타던
대홍단의 둔덕에도 서보시는듯

그날에 안고 오신 해방의 봄이
오늘은 아름다운 조국땅
여기 삼지연 호수가에
인민의 락원, 준비한 거리로 펼쳤건만

백두산에서 싸우시던 군복 벗지 않으시고
끝없는 혁명의 대오를 불러
끝나지 않은 행군길 다그치시며
쌍안경 높이 드신 숭엄한 영상이여

영원히 흰눈 녹지 않는 산
혁명의 성산 백두의 련봉도
그이의 어깨너머 백포자락인양 창공에 나래
펼치고
천리에 잇닿은 밀림의 바다도
끝없이 끝없이 따라서는가

오늘도 혁명의 진두에 높이 서시여
눈덮인 백두산에 첫자국 찍으신
그날의 진군길을 이어가시는 수령님
아, 백두의 흰눈을 오늘도 맞으시며
조국의 영원한 봄을 펼쳐가시여라

밀림속의 길 외 1편

김희조

이깎나무 분비나무 사이로 뻗은 길
나는 걷는다
빛 없는 이 땅에 봄빛을 뿌려주며
장군님따라 투사들이 걷던 길

멈춰서는곳마다 사무치는 생각
발걸음 선뜻 뻗수 없어라

저기 한밤을 타던 우등불자리
진한 송진내속에 툭툭

불길은 오늘도 타오르며 이야기하는듯

행복한 이야기로 잠들줄 모르는
불밝은 밤들이 어떻게 왔는지

쿵쿵 도끼소리도 들릴듯
투사들이 세우고 간 저 귀틀집
세월의 이끼오른 귀틀목도 이야기하는듯
이 땅의 흥성이는 거리, 웅장한 집들이
처음 어떻게 일어섰는지

밀림에 흐르는 바람아
장군님 옷깃을 흔들던 네 소리
우리 부르는 그 모든 즐거운 노래의
시작이 아니더냐
장군님 안고가시던 밀림의 저 해발은

우리 행복한 이 땅에
나서 처음 바라본 그 빛이 아니더냐...

아, 내 이 길을 걸으며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걸은
그 모든 행복의 길을 다 걷는듯
길이어, 멸적의 후더운 숨결을 안고
장군님 따라 투사들이 걸던 길이어

내 조국땅 그 어디
황홀하고 눈부신 거리를 거닐어도
언제나 그 언제나 네가 생각나리라
이깎나무 분비나무 사이로 뻗은 길
이 땅의 휘황한 오늘과
래일에 잇닿은 밀림의 길이 !

내 그 어딜 가도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난다
먼 산간의 마지막 역
삼지연 못가역을

사방 다시금 둘러보니
항일의 군복입으신 수령님 동상
높이 모신곳에서 해빛은 비쳐오고
이끼 없힌 바위 하나
말없는 나무들도
그날의 그 뜻이 어려 숨엄한 여기

불멸할 력사의 고장이여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오고 떠나가더냐

조국이 그리워
서둘러 진군길 달려온 투사들
땀배인 얼굴이 비긴 삼지연 맑은 물에
뜨거워진 마음을 안고

저 오랜 봇나무
질은 그늘아래 단가슴 식히며
깃뻗힌 겨레를 못잊어
총을 틀어쥐던 투사들 모습을 안고

밀림을 흔들고 가는 바람소리에서도
지친 몸 쉬일새없어
또다시 진군길 다그치던 투사들

그 발걸음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못가에서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와진 마음으로 떠나가더냐

나도 이제 너를 떠나련다
불타는 마음을 안고
어릴 가도 너의 맑은 물이
이 마음 비쳐주리라
투사들처럼 조국 위해
아낌없는 땀 흘리도록

어딜 가도 밀림에 흐르는
너의 바람소리
나의 발걸음 재촉해주리라
조국을 위해 지칠줄 모르는 열정에 살도록...

아, 네 어이 산간의 마지막 역이라
불타는 나의 생각 실은, 마음 실은
렬차는 이제 여기서 떠나고
나의 길은 여기서 시작되는듯

빛나는 전적지의 역이어
너는 참된 삶의 길의 출발역으로
언제나 힘찬 기적소리
나에게 울려주리라
어머니조국을 위한 위훈으로 바래여주며

전선천리길을 넘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정 렬

행군의 밤에도
도하장의 새벽에도
문득 만나뵈옵던
수령님 타신 승용차

흐르는 전조등 불빛을 따라서며
이슬젖어 바래드리던
전선길 차단초소에 다시 선듯
내 그날의 승용차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엄혹한 시련을 헤쳐오신
싸움의 길 더듬노라

낮에는 포연에 싸여
밤에는 달빛에 싸여
전선천리
수령님 가시는 그 길로
쉽없이 달리고 달리던 승용차

대오의 진두에 서시여
헤쳐오신 전화의 날 포연이
풍 썩은 차우에 다 얹혀져있고
차체엔 그날의 흙이
그대로 묻어있는듯
울렁이는 가슴으로 안아보는 마음이어

차창가엔 젖어있는가
최고사령관의 위치는
전선에 있어야 한다고
막아서는 전사들을 타이르시며
한몸으로 불구름을 헤쳐가시던
수령님의 그 음성이

포성이 울부짖는 대공진지
참모부가 가고
병사들이 가는 전선길
엄혹한 시련도 고난도 함께 나누시며
쉽없이 옮기신 야전지휘소

총탄이 비발치는 산언덕에서
몸소 기관총을 잡으셨던
준엄한 항일전의 그날부터
우리 수령님의 위치는
언제나 대오의 진두
가렬한 싸움의 전투장

승용차도 갈수 없는 상상봉
수안보의 전호가에
불타는 1211 고지우에
거연히 서계시던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
그날처럼 목메이는 옛병사의 마음이어
울렁이는 가슴이어

작전도를 펼치셨던 그 손으로
전사들의 위장물도 꽃아주시고
전호가의 탄피를 밟으시며
적구의 정찰병들도 기다려주실 때
우리 얼마나 감격에 겨워 흐느꼈던가

예지로운 해안으로
원썩들을 발밑에 내려다보시며
수령님 한손 드실 때
철의 군단들 산악같이 일떠섰고
미제의 《불퇴》의 방어선은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졌거니

전쟁의 3년세월
수령님께서 몸소 전선길을 걸으시며
언제나 진두에서 이끌어주셨기에
이 땅의 이름없는 봉우리도
세계가 다 아는
영웅의 고지로 솟지 않았던가

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수령님 헤치신 수천수만리
험난한 그 길우에 새겨진
그 사랑의 자욱을 따라
승리한 인민의 력사가 흘러왔거니

수령님 모시고
철의 불소나기속을 넘어온 승용차
차창가에 비끼었던 시련의 해들이
어떻게 전승의 년대기로 수놓아졌는가를
만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오늘도 달리고있어라

차단초소를 지나던 그 새벽처럼
포연속으로 멀어져가던 그 밤처럼

영원히 라오르는 불멸의 해불

김원복

6월!

6월은 신록이 한껏 짙어가는 여름철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북부 고산지대에서의 6월 초순은 여름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계절이다.

깎아지른 산벼랑이며 이끼푸른 바위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만발하였다. 떨기진 진달래는 굽이굽이 흐르는 압록강 푸른 물결위의 때목에도 아름답게 꽃혀있다.

2천리 압록강을 흘러내리는 때목에는 때목이군의 구성진 노래가 들리는듯하다.

봄빛이 화창한 북변의 이 계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보천보전투 전적지를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마냥 흥분속에 있었다.

보천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된 력사의 땅 보천보.

압록강을 따라 최북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차안의 손님들도 흥분되었던지 진정할줄을 몰랐다.

《보천보가 멀지 않았습다. 이 차를 타고 그냥 가면 삼지연못가에 이르지요. 보천보는 다음역이 우다.》

너무도 조급해하는 우리를 안심시키려는듯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랑 섞인 목소리로 하는 말이었다.

우리가 보천역에 내린 때는 한낮이 거의 가까울 무렵이었다.

유정한 산림, 즐기차게 흐르는 가림천, 청아한 산새들의 지저귓소리...

가림천기슭의 황철나무도 우리를 반기듯 손바닥 같은 잎을 활짝 펴고 한껏 설레었다. 햇숨같은 흰구름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푸른 하늘을 수놓았다.

신록이 한껏 짙은 높낮은 산밭들에 수를 놓은듯 울긋불긋 피어난 진달래며 기암절벽, 울울창창한 곤장덕의 수림과 그 기슭을 두드리며 흐르는 가림천, 부드러운 한줄의 흙, 하나의 조약돌에서조차 력사의 사적을 말해주는듯 무심히 보고 스칠수 없는 땅이었다.

1930년대 중엽, 그날의 조선은 슬픔만이 하늘 땅에 차고넘쳤다. 조국을 빼앗기고 구슬피 울며 이 땅을 스쳐가던 우리 민족의 수난을 말하는 중

견자 인듯 압록강은 소리치며 흘러가고있었다.

그날에는 저기 거목의 황철나무도 몸부림쳤으리라.

조선아! 너는 어디 있느냐? 민족아! 너는 이 밤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류량의 길을 떠나고 새로운 류량민이 이쪽으로 밀려들며 자기의 운명을 통탄하였었다.

그러나 압록강의 푸른 물결은 속삭였다. 조선인민은 결코 죽지 않았으며 외롭지도 않으며 해방의 그날은 오리라고...

그리하여 당시 이곳 인민들속에서는 이런 노래가 불리워졌다.

악귀같은 왜놈의 꾀임수에 타향을 떠나온
이 내 몸의 신세도 고역살이 몇해에
짜여진 바가지 신세로다
아 한탄스럽구나 원망스럽구나
이 세상아!

하늘이 무너져도
숫아날 구멍이 있다 하거늘
이 몸이 숫구칠 날
파연 그 언제일가

북쪽하늘엔
장수별 혜성이 솟았으니
왜놈이 망할 징조인가...
이 나라 백성을 다스리자 함이 아닌가!

아 그립도다 장군별
아 반갑도다 장수별
이 땅에 빛을 내리시라
이 땅을 환히 다스리시라

우리 인민의 숙원을 풀어주시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으로 향하시였다. 열네살때 만경대 초가집의 사립문을 나서시며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으리라라는 비장한 결심을 압록강가에 남기신 때로부터 열두해가 지난 1937년 6월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위풍당당히 조국땅으로 행군하시였다...

우리는 먼저 보천 시내 가림천가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섰다.

시대와 혁명 앞에 높이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

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라는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들은 력사의 땅 보천보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였다.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바다처럼 설레이는 인민들앞에 높이 서시여 조국의 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모습, 항일혁명전쟁의 불비속을 헤치시고 조국에 나오시여 승리의 화불을 지펴올리신 수령님의 안광에는 조선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조선의 기상을 떨치신 청년장군의 빛나는 예지가 넘쳐나고있었다.

멸적의 기상이 나래치는 힘있는 손길로 군모를 틀어잡으시고 인민들을 항일전에 부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고있다.

억센 날개와도 같이 열백번 포연속에 그슬리고 천만번 불비에 씻기여 다듬어진 저 옷자락에는 혈전만리 가시덤불길우에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랑찬 위훈의 력사가 스며있다.

단정한 군복차림에 싸창을 힘있게 차신 모습, 지금도 행진을 든든히 죄여매시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우리는 경건히 인사를 올리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을 떠나 수령님께서 때목으로 다리를 놓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여 조국땅에 첫걸음을 찍으셨던 구시물동을 찾았다.

구시물동!

장백땅에서 흘러나오는 구시강과 압록강이 합치는 이곳에 물동이 있다고 하여 그 이름 구시물동!

물동합수목에는 압록강 맑은 물이 사품치며 흘러들고있었다. 여기저기 진달래꽃떨기들이 반기고 수려한 산밭에서 불어내리는 서늘로운 바람이 옷깃을 날린다. 나무 하나, 풀 한포기, 작은 조약돌 하나하나에도 불멸의 이야기 스며있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구시물동기슭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압록강을 건느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그 모습을 형상한 한쪽의 그림판이 있었다. 우리는 그 그림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1937년 3월 29일, 력사적인 서강회의에서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방침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실현을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넓은 지역으로 먼저 진출시키신 다음 4월초순부터 주력부대의 국내 진출준비를 위한 집중적인 군정훈련을 동강밀영에서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을 책임진 공산주의자들로서 암운속에서 신음하는 부모형제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대로써 국내에 진출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 주어야 하겠습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격서습의 령활한 작전으로 일제의 국경경비진에 혼란을 조성하고 보천보로 진군하시였다.

1937년 6월 3일 이른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산천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구시등판에 오르시였다.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그림턴 우리 조국, 꿈결에도 잊은적 없이 부르면 더더욱 달려가고싶던 그리운 조국땅이 정녕 눈앞에 아득히 펼쳐진것이다.

대원들은 짓밟힌 조국을 안아올릴 결심을 다지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류벌경험이 있는 대원들을 선발하시여 물동에 걸려있는 폐로 다리를 놓게 하신 다음 하루해가 기울자 구시등판을 내리시여 감쪽같이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그리고 거기에 경계보초를 세우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을 건느시며 배치하시였던 경계보초자리와 부대의 철수를 위해 소부대를 남겨놓았던 자리를 돌아보고 곤장덕으로 향하였다. 걸음걸음 옮기는 우리의 마음도 그날의 조선인민혁명군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땅으로 가는것만 같아 가슴이 울렁거렸다.

곤장덕은 압록강과 가림천 사이에 북동에서 서남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높은 산등마루이다.

곤장덕은 이팝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들이 빼곡하여 울창하였다. 다문다문 공지들이 나지기도 하였는데 거기에는 붉게 핀 진달래가 우리의 앞길에 꽃주단을 펼쳐놓으려는듯했다.

어데선가 산새들의 지저귐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설레게 하였다. 우리는 지휘관들에게 전투명령을 내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을 형상한 대형그림판이 정중히 세워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부대는 여기서 휴식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날에 쓰셨던 사적물이 이쪽 유리보존함에 보관되어있었다. 여기에는 또한 헌시비와 각 구분대의 휴식장소를 보여주는 표식주들이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곤장덕에 이르시자 잠복초를 배치하신 다음 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6월 4일 아침!

조국의 품에서 첫아침을 맞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너무나 감격하여 풀밭에서 서로들 일싸 안고 막 덩굴었다. 어떤 동무들은 조국의 흙을 움켜쥐고 구수한 냄새를 맡기도 했고 자기의 볼에 마구 비벼대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부대는 여기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왔던것으로 아침식사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정에 다른 변동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마동희, 김학실동지들을 거리에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망원경으로 보천 시내를 손금보듯 꿰뚫어보신 다음 거리에 파견했던 동지들의 정찰자료를 확인하시고 지휘관들의 간부회의를 여시고 각 구분대에 전투명령을 내리시였다.

먼산에 아직 해가 기울기전이였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척후대를 앞세우고 곤장덕을 내리시였다. 부대는 가림천을 건너 무산쪽으로 통하는 큰길을 따라 보천 시내로 곧추 들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경찰관주재소가 있는데서 멀지 않은 가림천기슭의 한그루의 황철나무가 서있는곳에 지휘터를 잡으시였다.

이곳 지휘터에는 보천보전투를 알리는 신호총을 울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대형 그림판이 세워져있다. 그리고 그옆에는 당시 황철나무와 사령부를 호위하던 기관총이 그날의 그 자리에 보존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호총을 울리시는 대형 그림판에는 나팔수와 경위대원들이 방금 벌어진 전투를 기다려 보천 시내를 응시하고있었다.

력사적인 6월 4일 밤 10시!

드디어 보천보전투를 알리는 신호총소리가 울렸다. 산도, 강도, 잠속에 들려던 시내의 집집의 창문들도 우루루 몸부림치며 태동하였다.

가림천가의 황철나무아래서 울린 한방의 신호총소리, 그것은 암흑속에 헤매던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희망을 안겨주는 위대한 선언이였으며 조국해방의 서광을 알리는 우리 인민의 웨침이였다. 전투를 알리는 한방의 신호총성! 그 소리에 이어 자지러진 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졌다. 보천보는 발각 뒤집혔다. 삼시에 경찰관주재소, 소방회관, 면사무소, 우편소, 농사시험장 등 일제의 《관공서》들에서는 삼단같은 불기둥이 하늘에 치솟았다. 경찰관주재소로 우리 인민의 원한의 복수탄이 들썩워졌다. 원수놈들은 전멸하였다. 가장 포악하고 잔악한 원수놈들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전투는 승리적으로 끝났다.

보천 시내 사람들이 문을 차고나와 만세를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뜨겁게 답례하시고 일제침략자들을 단죄하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분! 저 불길을 보십시오. 거세차게 라번지는 저 불길은 **놈들의 최후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저 불길은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남강도 일제놈들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있습니다.**》

만세, 만세소리는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보천보사람들은 감격에 목메여 울고 또 울었다.

오랜 세월 일제놈들에게 억눌리워 가슴속에 쌓이고 서린 원한을 후련히 풀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

그처럼 애타게 기다리고 바라던 재생의 열망을 뜨겁게 안겨주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장군님!

우리 민족의 구성이시며 밝은 래일을 열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모신 끝없는 행복과 기쁨, 다함없는 긍지로 하여 목이 터지도록 만세를 불렀다. 언제 한번 큰소리로 하고싶고 부르고싶던 말과 만세의 환호를 울려보았던가...

그날의 그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안겨와 심장의 높은 박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우리는 보천보전투에서 녹아난 일제놈들의 패망상을 보천 시내를 돌아보면서 더욱 똑똑히 알수 있었다.

벌등지처럼 수백개의 총알자리가 승승한 경찰관주재소, 소방회관, 면사무소, 농사시험장, 일본놈상점... 농사시험장과 우편국은 다 타버리고 지금은 그 자리만이 남아있었다. 농사시험장앞마당에 세멘콩크리트로 만든 포대, 보천보전투가 있은후 겁을 먹은놈들이 경찰관주재소 지하도를 통해 갈수 있게 새로 토목포대를 설치한 그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있었다. 놈들이 불랐던 자리에 소방회관,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일본놈상점을 그대로 원상복구해놓은것이 오늘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천보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마치시고 귀로에 오르시였다.

대원들은 조국을 떠나기 아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조국땅의 한줌의 흙을 정히 싸서 배낭속에 간직하고 떠났다. 그들은 환송하는 인민들에게 《잘 있으라 조국여! 잘 싸우라 인민들이여!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손을 높이 들어 뜨겁게 저으며 가림천을 다시 건너 곤장덕으로 올랐다.

곤장덕에는 처음 와서 휴식하던곳에서 얼마쯤 떨어진 수림속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철수하여 돌아가던 도중 잠시 휴식하였던 장소가 있다. 부대는 휴식을 끝마치고 압록강을 건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놈들이 뒤통수를 미리 예견하시고 압록강의 폐목의 한끝을 끊어버리도록 하시였다.

우리는 보천보전투 승리에 대한 자료들과 사적 물이 전시되어있는 보천보혁명박물관을 참관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군술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느끼게 되였다. 그때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보천보에 대한 첫 보고를 받고 나선놈들은 오가와경찰대였습니다. 오가와놈의 경찰대는 조선 인민혁명군을 따라 압록강에 이르렀습니다. 압록강은 그 무슨 일이 있었거나싶게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흘렀는데 강을 건널만한 떼다리도 없었습니다.

오가와는 위대한 수령님의 기묘한 전술에 기가 꺾이여 <하늘로 올랐나 땅으로 잤나>하고 아우성쳤습니다.

이때부터 인민들속에서는 새로운 전설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종이 한 장으로 압록강을 건느시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랑에 대하여 말해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그토록 조국을 그리며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에 다시 만나자던 가슴뜨거운 약속이 이 땅우에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여러차례 보천보를 찾아주시였고 지어 보천보전투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현지교시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력사의 땅 보천군은 천지개벽이 되였다.

오면 떠나고싶지 않고 떠나면 다시 오고싶은 보천마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날에 지퍼주신 영원히 타오르는 불멸의 혁명의 횃불을 심장에 안고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퍼주신 불멸의 횃불을 높이 들고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가리라고...

은혜로운 분수가에서

리재남

하늘의 선녀들 여기 내려와
이 강산이 좋아서 춤을 추는가
바라보니 황홀한 저 무지개
선녀들 옷깃에 휘감고 내린듯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옮겨다놓은듯
구룡연폭포도 여기 옮겨다놓은듯
그래서 강원도 금강산에 내리려던
저 하늘의 선녀들 길을 바꾸어
우리네 분수가에 사뿐 내려
예가 좋아 아예 떠날줄 모르는가

이 땅에 사는 긍지 되새기게 하며
천리마새건설로 꽃피는 여기
은혜로운 사랑의 분수가에서
사람들 감사의 정 간직하여라

내 아침에 이 길을 걸으면
온몸에 새힘 넘치고
하루일 마치고 이 길 걸을 때면
로동의 보람, 생의 희열 더욱 커지거니

아 내 사랑 수도의 거리에
숫구치는 열정의 꽃분수
한밤에도 행복의 축포이런듯
꽃보라, 꽃무지개 거둘줄 몰라라

불수록 기쁨이 넘쳐나는곳
우리도 저 선녀같은 무용수 되어
선채로 굳어져 조각이 되고싶은
아 사람의 분수가 분수가

우리네 기쁨이 넘치여 숫아
은금의 구슬 되어 뿌려지는가
구슬마다 우리 수도 비껴담고서
당의 은덕 온 세상에 높이 전하려
더더욱 세차게 숫구치는 분수

이런 때면 넘치는 물방울 물방울
내 눈가에도 고요히 맺혀라
아마도 내 이 심장에서도
감사의 분수가 숫구쳐 오르는가...

반제혁명문학예술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전투적기치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화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표 30돐에 즈음하여-

오승련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그 영광의 나날에 작가, 예술가들과 하신 담화 **《우리 문화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서른해가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화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전쟁시기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선 임무와 사명을 심오하게 밝히시고 그것을 사상예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문학예술은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장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으며 반제혁명문학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제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화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반제혁명사상을 전쟁현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창조에 빛나게 구현한 위대한 주체적문학예술의 강령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화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심장에 뜨겁게 받아안고 멸적의 기세드높이 혁명의 필봉을 높이 추켜들던 그 잊을수 없는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예술의 계급적날을 더욱 날카롭게 버리어나갈 확고한 신심과 투지에 가득차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화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가지는 역사적의의는 무엇보다도 로작이 혁명전쟁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의 사명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밝힌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가들은 인간정신의 기사로서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뚜렷이 표현하여야 하며 자기들의 작품이 싸우는 우리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며 그들을 최후의 승리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3 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이 싸우는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며 그들을 최후승리에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명과 임무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해명한 독창적인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전쟁주체문학예술창조에서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혁명적인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무원칙한 평화주의를 고취하며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온갖 기회주의적문제조류에 결정적타격을 주시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싸우는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그들을 최후승리에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조국해방전쟁의 정의적성격과 그 승리의 력사적필연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조국해방전쟁은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지키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쓸어눕히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었으며 그 승리가 확고하게 담보된 전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이 싸우는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며 그들을 최후승리에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을 전쟁에 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과 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줄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준 위대한 사상이다.

혁명전쟁주체의 문학예술이 싸우는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고 그들을 최후승리에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한다는것은 이 문학예술에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인민대중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고 그들을 민족과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고수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에게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안겨주

고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으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은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것은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이라는 혁명적인생관을 안겨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게 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문화예술이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며 여기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화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영생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가장 주되는 근거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문화예술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그 혁명적기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숭고한 애국심과 영웅성, 완강성을 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사회주의문학예술론》, 54 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묘사하여야 하겠습니까.》(《사회주의문학예술론》, 55 페이지)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전쟁시기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영웅적인 위훈과 애국적헌신성, 무비의 용감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애국심과 완강성, 용감성은 무엇보다도 조국을 되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시였으며 자기들을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 떳떳이 내세워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의 발현이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

국의 자유와 독립이 있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다는것을 심장에 깊이 새기고 미체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쓸어놓히는 판가리싸움에 한사람같이 일떠섰으며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가슴에 안고 결전의 길에서 용맹과 슬기를 떨치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들이 발휘한 숭고한 애국심과 무비의 용감성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새로운 사회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의 반영이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사회제도야말로 가장 선진적이고 우월한 사회제도라는것을 깊이 깨닫고있었으며 그러기에 이 제도를 침해하려는 계급적원썹들을 반대하여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투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인민군용사들의 용감성, 완강성을 보여줄데 대한 사상은 참으로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을 충성의 문학예술로, 새로운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격조높이 노래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로 되게 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 위대하고 독창적인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확고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그 전투적위력을 강화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특히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의 본질을 밝히심으로써 영웅형상에서 견지하여야 할 미학적원칙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영웅성은 몇몇 병사들의 영웅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대중적영웅주의에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6 페이지)

영웅성의 본질을 밝히는것은 영웅형상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영웅성이 본질을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서 정당하게 밝힘으로써만 영웅들의 성격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릴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영웅성은 그의 대중적영웅주의에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영웅을 신비화하고 소부르쵸아적인 개인영웅주의를 고취하던 온갖 그릇된 편향에 결정적타격을 주시고 영웅형상창조에 관한 혁명적문제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영웅성이 대중적영웅주의에 있다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 하나의 신념과 지향에 기초하고있는 영웅성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인민군대의 영웅성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려는 그 하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낳은 영웅성이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가리키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는 숭고한 혁명정신과 불같은 지향이 낳은 영웅성이었다.

인민군대의 영웅성이 대중적영웅주의에 있다는 것은 또한 그것이 몇몇 병사들의 영웅성이 아니라 전체 집단의 헌신성과 희생성이며 그들의 애국주의정신의 발현으로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과 집단주의정신에 기초하고있는 영웅성이라는데 있다.

인민군대의 영웅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영웅성이었으며 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굳게 단합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사상감정의 발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영웅성의 본질에 대한 사상은 실로 인민군대의 영웅성의 사회계급적 본질을 깊이있게 밝힐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며 영웅형상창조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화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가지는 불멸의 의의는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문학예술에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여 계급투쟁의 무기, 반제반미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의 죄악을 전세계 인민들앞에 철저히 폭로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우리 인민을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중요한 특징은 그의 투철한 로동계급성에 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철저히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리해관계와 지향을 철저히 구현하는 그 투철한 계급성으로 하여 계급투쟁의 가장 예리한 사상적무기의 하나로 된다.

미제침략자들의 죄악과 만행을 폭로단죄하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이 투철한 계급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계급적원쑤들을 견결히 반대하는 투쟁정신과 반제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전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미제침략자들의 죄악과 만행을 폭로단죄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야수적만행을 감행한 그 엄연한 역사적사실로 하여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이며 가장 교활하고 포악한 현대의 야만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

한 침략적야망을 품어왔으며 조선에서 침략자, 략탈자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지난날 선교사의 탈을 쓰고 조선에 기여들었던 미제승냥이들은 전쟁시기 우리의 도시와 농촌, 학교와 병원을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무참히 학살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저지른 이 최악의 역사를 만천하에 고발함으로써 미제승냥이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우리 인민을 교양하여야 하며 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힘있게 복무하여야 한다.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폭로하는것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야 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로 하여 또한 특별히 중요하게 나선다.

우리 혁명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력사적인 당 제 6 차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책임무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일으키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반제자주위업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새로운 혁명로선과 투쟁강령을 내놓았다.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제국주의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견결한 반제혁명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인민들의 전진운동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간섭과 전복,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침략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감행하면서 우리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로작에서 밝히신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폭로단죄할데 대한 사상은 혁명발전의 이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문학예술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만행과 피로 얼룩진 최악의 역사를 만천하에 고발한뿐아니라 조성된 안락의 정세에 맞게 반제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더욱 훌륭히

통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저지른 죄악과 만행을 폭로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전형화의 원칙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원수들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사실주의적예술이 되는것은 이니며 그러한 작품이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을 복돋아주는것도 아니라고 가르치시였다.

사실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라렬하는것은 현상의 본질을 반영하는 사실주의적전형화원칙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원수들의 만행을 그린다고 하여 놈들이 감행한 귀족같은 죄행을 현상적으로 그대로 보여준다면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의 본질을 밝히지 못할뿐아니라 인민들에게 적개심과 중요심보다도 공포심을 줄수 있다.

생활에서 현상적이고 우연적인것을 제거하고 본질적이고 필연적이고 합법칙적인것을 드러내는것은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원칙을 고수함에 있어서 근본조건으로 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저지른 죄행과 만행을 정당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인민들에 대한 반제반미교양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원수들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여 그것이 사실주의예술이 되는것이 아니라는 사상은 실로 원수들을 보여줌에 있어서 자연주의적수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제국주의침략자들의 계급적본질을 드러내는 사실주의적 전형화의 원칙을 심오하게 해명한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민족적 및 계급적 원수들의 형상창조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미제침략자들의 민행을 보여주는데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반동성을 철저히 폭로하는것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본질은 예리하게 해부하고 폭로단죄함으로써 놈들이 저지른 만행의 계급적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밝힐수 있으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수 있도록 철저히 교양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가지는 불멸의 의의는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일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었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에서 추상성은 죽음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56 페이지)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의 결합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중요한 특징이며 그 전투적위력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심오하고 풍부한 정치사상적내용과 함께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사상미학적영향을 주며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된다.

문학예술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옹은 결합을 실현하지 못할 때 예술을 생경한 개념과 추상적인 구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되게 하거나 반대로 《예술을 위한 예술》로 전락시킬수 있다.

문학예술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하는 문제는 문학예술의 사회적기능이 강화되고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나신다.

문학예술의 사상적내용과 함께 예술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지 않고서는 문학예술이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예술에서 추상성은 죽음이라는 사상은 실로 예술을 참다운 예술로 되게 하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상미학적기능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예술에서 추상성은 죽음으로 된다.

추상성이 예술에서 죽음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예술의 본성인 형상성과 랑립할수 없기때문이다. 예술이 예술로 되는것은 그것이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기때문이다.

추상성은 예술에 고유한 이 형상성을 제시함으로써 생경한 논리와 일반적인 개념을 여기에 대치시킨다.

생경한 논리와 추상화된 개념은 예술의 형상성과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예술을 죽음으로 이끄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추상성은 또한 문학예술에서 개성화를 저해하고 인간성격과 생활을 류형적이며 도식적인 틀에 맞추어 넣음으로써 예술성을 저하시킨다.

생활을 추상적으로 그릴 때 성격의 개성화를 기대할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묘사가 주어질수 없으며 생활이 안겨주는 그 모든 독특한 정서적 색깔과 향기를 전달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에서 추상성을 극복하고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작품에 무미건조한 구호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그들의 생활을 현실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그리는것은 문학예술의 예술성을 담보하는 가장 풍요한

방도로 된다.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을 그리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

문학예술은 산 사람들의 생동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만 사람들에게 사상미학적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의 애국심만을 보더라도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것이 아니며 산 인간들의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현실에 있는 산 인간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할데 대한 사상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특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애국심을 비롯한 인간의 사상정신생활을 생활그대로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가지고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릴수 있는 위력한 미학적방도가 새롭게 해명되었으며 혁명적 문학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할수 있는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에서 추상성을 철저히 극복하고 그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또한 진기한 사실, 전설적인 비범한 인간을 찾으려고 애쓰는 창작경향을 철저히 극복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웅의 형상을 그린다고 해서 진기한 사실, 전설적인 비범한 인간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작태도으로써는 우리의 영웅들을 옳게 묘사할수 없습니다.》(《사회주의문학 예술론》, 56 페이지)

사실주의예술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하는 예술이다.

진기하고 비범한것, 특이하고 이채로운것만을 추구하는것은 사실주의적창작태도가 아니며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을 저애하는 유해로운 현상이다.

진기하고 비범한것만을 추구할 때 인간성격과 생활을 미화분식하고 과장하게 되며 성격의 생동성과 진실성을 약화시킨다.

진기하고 특이한것의 추구는 또한 성격과 생활의 객관적론리를 무시하고 창작가의 주관을 강요하게 되며 형상에서 도식과 류형을 초래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의 영웅들만을 보더라도 그들은 어제날의 노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그들의 자제들이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가지고있는 고상한 사상과 신념, 그들의 꾸밈없는 소박한 행동 그대로를 묘사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영웅들의 산 형상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영웅형상에서 진기한 사실과 전설적인 비범한 인간을 찾으려고 애쓰는 경향을 극복할데 대한 사상은 생활을 인위적으로 꾸미고 과장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형상의 생동성, 진실성을 담보하게 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이밖에도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적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평론사업을 개선강화하고 동지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작가, 예술인대렬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히신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은 오늘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에 빛나게 구현되어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더 힘있게 나타내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문학예술을 공산주의 인간학으로 되게 함으로써 그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 할수 있는 추렷한 길을 열어주었으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체가 확고히 서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철저히 구현된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을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수행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있게 반영한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 충성의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은 혁명의 교살자이며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유린자인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썬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당중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의 이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줌으로써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문학예술이 조

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여 문학작품에 정중히 모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반제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눕히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우리 인민을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의 길로 이끄심으로써 압박받던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독립과 자주, 평등을 위하여 용감히 떨쳐나서게 하시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승리로 이끌어주고계신다.

단편소설 《맑은 아침》, 시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따라》, 가사 《**김일성** 원수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을 비롯하여 유화 《진격의 길에서》,

조선화 《재진격하는 군인들을 고무하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 등 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격조 높히 노래한 작품들이다.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성을 화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심으로써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쓸어눕힌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어 이룩될수 있었다는 위대한 진리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당의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인민군용사들과 후방인민들의 영웅적인 성격을 창조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비롯하여 장편소설들인 《시대의 탄생》(제 1 부), 《돌과구》, 중편소설들인 《싸우는 마을사람들》, 《전사들》, 《포성》, 《락동강》, 단편소설 《불타는 섬》, 예술영화들인 《이름없는 영웅들》(1-20 부), 가극 《남강마을 녀성들》 등은 그 실례의 일부이다.

이 작품들에는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의 부르심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오직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

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군용사들과 애국적후방인민들의 숭고한 투쟁모습이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려져있다.

특히 우리 당은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20 부)의 창조과정 전반에 걸쳐 종자로부터 하나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줌으로써 조국해방전쟁주제 작품 창작에서 훌륭한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당중앙은 또한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높이고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당중앙은 도식과 류형은 예술에서 죽음이라는 사상을 밝히고 그 어떤 정치적인것과 거창한 사회력사적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라렬하는 현상을 극복하며 사상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형상을 통하여 보여줄데 대하여 가르치였다.

당에서는 또한 소설문학에서 세부묘사를 잘하며 뒤대사가 느껴지도록 생활을 그리는 문제, 시문학에서 시의 생명인 시정성을 높이고 산문화를 극복하는 문제, 아동문학에서 아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과 동심을 살리는 문제 등에 전면적인 대답을 줌으로써 우리 혁명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높일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현명한 창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기량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빙침은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고 그 전투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중앙이 밝힌 이 혁명적인 방침은 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창작의 직접적담당자인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적립장과 관점, 그 역할에 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적식견과 창작예술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여기에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고 그 전투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창작적기량문제를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인민대중에게는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원수들에게는 공포와 죽음을 안겨주는 참으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 고상한 사상성과 함께 높은 예술성으로 뛰어난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무지개비긴 숲

리의남

상쾌한 저녁이다.
아늑한 골짜기에 안개가 흐른다. 검푸른 숲에도 주절거리는 개울에도 안개가 감돌았다.
강인실은 안개속에 묻힌 숲속길을 걷고있었다. 그는 오늘일을 끝내고 마을로 돌아오는길이다. 일터에서부터 마을까지는 한키로미터밖에 안되지만 그는 이 지름길로 다닌다. 싱그러운 풀향기를 마음껏 들이키며 회초리로 후려놓은듯한 오솔길을 걷는것이 그에게는 즐거웠다.
처녀는 온 림산사업소가 다 아는 기증기운전공이다. 그가 기증기운전공이 된지는 3 년밖에 안되지만 사업소신문에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작업소 게시판에는 그를 소개한 속보가 자주 나붙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어쩌서 그런지 예술단이 오거나 제대군인들이 오면 꽃다발을 안겨주는데 늘 뽕히군한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참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인실이가 늘 입속으로 외우곤하는 말이다.
인실은 자기 일에 대한 높은 긍지와 크나큰 포부를 안고 하루하루를 보람찬 로동이 가져다주는 기쁨속에 살고있다.
어느덧 우중충한 수림이 뚝 끊어지고 오붓한 림산마을이 한눈에 안겨왔다.
숲에서 풍기는 향기롭고 달콤한 공기는 통나무로 다듬어지은 집들이 촘촘히 들어앉은 마을을 어루만지듯 감싸안았다.
개울기슭에 덩실하게 솟아있는 선전실에서는 오늘 경쟁총화가 있을것이다.
1 작업반이 1 등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자 인실의 가슴은 새로운 흥분에 젖어들었다.
가볍게 흔들거리는 나무다리를 건너 인실은 침착해지려고 애쓰면서 선전실로 다북다북 걸어갔다.
인실이가 방에 들어서자 모임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얼굴이 빨강게 상기된 인실은 조용히 빈의자에 앉았다.
작업소장이 두주먹으로 투박한 연락을 꼭 누르고 서서 이야기하고있었다.
소장은 작업반별 생산실적을 수자별로 려거하고 나서 이렇게 툭 찍어 말했다.
《...이와 같이 월생산실적은 제 1 작업반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순회우승기는 1 작업반이 받게 됐습니다. 의견이 있는 동무들은 말해주시오.》
통나무를 두드리는듯한 소장의 목소리는 방안을 울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해서야 《좋수다! 무슨 의견이 있겠소.》하는 소리가 앞좌석에서 울렸다.
여기저기서 찬동한다는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인실의 가슴에는 기쁨이 설레었다.
자기가 속한 작업반이 벌써 세번째나 우승기를 가지게 된다.
더구나 인실은 작업반에서 찍어낸 통나무를 몽땅 혼자서 실어내는 기증기운전공이다. 그러므로 반원들은 인실을 귀해하며 작업반성과의 그 많은 몫을 인실에게 돌리고있다.
잠시후 방안이 조용해지자 소장의 탁한 음성이 다시 울렸다.
《1 작업반원들은 일을 잘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일등이요.》
이때 별안간 제대군인들이 앉은 뒤좌석에서 의자가 삐걱거렸다.
《한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거친듯한 목소리가 울렸다.
방안의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짹 쏠렸다. 인실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피곳 돌렸다.
천정을 찌를듯이 키가 크고 얼굴이 검소한 청년이 두손으로 앞사람의 의자등받이를 잡고 엉거주춤 일어섰다.
뜻밖에도 그는 1 작업반에서 벌목견습을 하고있는 제대군인 차경식이였다.
《무슨 의견이요?》
소장이 어쭙게 서서 주뚱거리고있는 경식에게 물었다.
《제가 오늘 범골에 가봤는데...》
경식은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며 굵실굵실한 머리칼을 쓸어들렸다.
《범골에 식수한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며 웅성거렸다.
소장이 나무등결같은 손으로 연락을 탁탁 두드려서야 방안은 잠잠해졌다.
《그래서, 나무가 죽었는데?》
소장이 짙막한 어조로 독촉했다.
《죽은 나무는 1 작업반이 심은거랍니다. 경쟁총화에서는 나무심기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은 잘했어도 나무를 잘못심은 1 반은 일등자격이 없습니다.》
경식의 말에 방안은 벌집을 쑤셔놓은듯 술렁거렸다.
뒤이어 몇사람이 일어서더니 경식의 의견을 지지했다.

방안은 더욱 술렁거렸다.

작업소 소장은 딱하다는듯 입을 꾹꾹 다시기만 하였다.

인차 끝날줄 알았던 경쟁총화는 경식의 뜻밖의 제기로 하여 오랜 론쟁끝에 결국 3 작업반에 우승기를 주기로락착되었다.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갔으나 인실은 한동안 오도카니 앉아서 움직이지 못했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었다.

어질어보이기만 하던 경식의 입에서 그런 데 통스러운 소리가 나오리라곤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인실이가 선전실밖으로 나오는데 경식이가 소장과 함께 사무실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경식동무, 좀 생각해봤소?...》

소장은 경식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고있다.

(무슨 일때문일가?)

그런데 어쩐지 경식은 소장의 얼굴을 힐끔 바라볼뿐 대꾸가 없었다.

소장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경식은 사람들과는 외파로 떨어져서 시적시적 걷고있었다.

인실이가 일부러 발자국소리를 높여 인기척을 내자 경식은 편뜻 고개를 돌렸다. 순간 둘의 눈길이 허공에서 맞부딪쳤다. 인실은 긴 속눈썹을 지켜올리고 마주 지켜보았다. 보매 경식의 검스레한 얼굴에는 체면쩍어하는 기색이 어려있었다.

인실이가 쌀쌀하게 마주보자 그는 인차 송진가마가 있는쪽으로 술렁술렁 걸어갔다.

인실은 억울하고 분하기만 했다.

경식이라는 사람이 자질구레한것에 신경을 쓰는 시시한 인간이었던말인가.

체통이 큰 사람이...

인실에게는 새로 배치되어온 제대군인들을 데리고 현장을 견학시키던 때의 일이 생각키웠다.

...그날은 휴식일이였다. 뜻밖에 인실이를 사무실로 불러낸 소장은 제대군인들의 《강사》노릇을 하라고 했다.

《...인실동무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소. 동무야 숲을 잘 알겠지, 또 모범운전공이겠지, 제대군인들을 꼭 삶아놓소.》

이러루한 일을 자주 말아서 하군하는 인실은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새로 온 다섯명의 제대군인들을 데리고 현장에 올라간 그는 작업소의 일반적형편부터 이야기했다.

《우리 작업소는 산림면적을 많이 가지고있는 사업소적으로 가장 큰 작업소입니다. 17 년동안 어김없이 계획과제를 넘쳐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업소에서는 2 명의 노력영웅과 4 명의 공훈별목공이 배출되었습니다.》

인실의 또렷한 발음과 설득력있는 설명은 매력 이 있었다.

모두가 귀가 솔깃해서 들었으며 《아, 대단한

데!》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경식이라고 불리우는 키가 쫘족하고 눈도 크고 손까지도 큼직큼직한 청년만이 입은 꼭 다물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인실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 이름이 뭐요?》 하고 전혀 똥판지같은 질문을 던지는것이였다.

인실은 부지중 놀란 눈길로 정식의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경식은 허리를 굽히고 마치 어린 아이가 요술쟁이의 지팡이 들여다보듯 어린 나무 두그루를 칸칸스레 들여다보고있었다.

인실은 자기 설명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데만 정신을 팔고있는 경식을 볼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인실은 친절하게 웃음까지 덧붙여서 나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이것은 분비이고 저것은 가문비인데 얼핏 봐서는 두 나무가 같아보이지요.》

인실은 랑손으로 두그루의 나무잎사귀를 만지며 말을 이었다.

《만져 봐야만 구별할수 있어요. 가문비는 째깍하고 꼭꼭 찌르지만 분비는 느긋느긋해요. 그리고 이 분비는 나무가 무르지만 가문비는 굳어요. 그래서 벌목을 할 때 분비는 톱이 잘 들어가지만 가문비는 잘 안들어가요.》

인실의 목소리는 자신있게 울렸다.

《그래요? 그런데 난 같은 나무인줄 알았구만.》

무심중에 경식의 입에서는 감탄조가 튀어나왔다.

그러는 그가 무척 친절해보이기까지 했다. 인실은 더욱 자신있는 태도로 제대군인들에게 나무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했다.

인실의 긴 설명이 끝나자 경식은

《동무는 몇살인데 그리 많이 아요?》 하고 물었다.

웃음통이 터졌다.

인실이도 함께 따라 웃으며 경식의 얼굴을 눈여겨보았다.

경식의 얼굴에는 등떠보려는 기미는 꼬물만큼도 없어보였다.

그래서 인실은 《내 나이는 이 나무하고 같아요.》 하고 대답하고는 톱으로 베넌진 잣나무밑등을 가리켰다.

제대군인들은 떠들썩거리며 잣나무의 년륜을 세기 시작했다.

《스물다섯살이구만.》

키작은 청년이 먼저 년륜을 세고나서 소리쳤다.

이때 경식이가 불쑥 끼어들었다.

《스물여섯이네... 돌아난후 일년은 더 계산해넣어야 하거던.》

한마디 툭 던지는 경식의 말에 인실은 눈이 동

그랬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수룩해보이지만 속에 엉클한것까지 있었다.

견학이 있는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인실이가 퇴근차비를 서두르는데 경식이가 벌목견습을 하다가 내려오는길에 기증기앞에 머물러섰다.

그는 인실이에게 눈인사를 하고는 기증기를 칸칸스레 훑어보며 물었다.

《이걸 대체 누가 운전하오?》

인실은 새물새물 웃으며 잠자코 있다가 《내 기증기야요.》 하고 대꾸했다.

《아니, 그럼 그 유명한 기증기운전공이 동무였구만, 난 동무가 협조나 하는줄 알았지.》

경식은 사람을 미처 몰라보았다는듯이 뒤더수기를 긁었다.

그때부터 인실은 벌목장에서 견습을 하고있는 경식이가 기술습득에서 앞장서나가고있다는 소식이 날아올 때마다 은근히 기뻐지기까지 했다.

그가 앞으로 큰일을 맡아가지고 보란듯이 해낼것이라고 믿고싶었다...

그런 경식이가 작업반이 차지했던 일등의 영예를 대번에 뒤집어놓을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인실은 그 어떤 믿음이 한지에 배반당한듯싶어 가슴이 아파났다.

× ×

중토장에는 령차집이나 신문매대처럼 생긴 이동학습실이 있었다. 이것을 《꼬마휴게실》이라고도 부르는데 발구우에 놓여있는 이 작은 집은 프락포르가 꿈무늬에 달고 이 벌목장 저 벌목장으로 옮겨가군한다.

어느날, 점심시간, 인실은 2 호지 벌목장으로 이동해가는 《꼬마휴게실》에 훌쩍 올라탔다.

진이 흐르는 생나무벽에서 내뿜는 진한 송진내와, 벽에 매달린 횡경나무꽃병에 꽂힌 산나리와 진주꽃의 그윽한 향기가 어울려 신비스러운 향취가 풍긴다.

이윽고 프락포르의 평음이 울리더니 《꼬마휴게실》은 끼우뚱거리며 산기슭을 달리고있었다.

가벼운 동요에 몸은 말갛게 보동보동한 손을 무릎우에 놓고 앉아있는 인실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고요히 피어났다.

엿그제 있는 불쾌한 일들이 대번에 지워지면서 가슴속에는 즐거움으로 가득찼다. 산속에서 산다는건 얼마나 낭만적인가.

하루일을 마친 인실은 지금 아지따기공들을 도와주려고 떠난것이다.

이때 별안간 출입문이 발칵 열리더니 검척공 영애가 냉큼 뛰어올랐다.

《기막힌 소식이 있어요.》

영애는 생기있는 두눈에 징난기 어린 미소를 띠었다.

인실은 영애의 팔소매를 잡아끌어 의자에 앉혔

다.

《이 소식통아! 어서 말해.》

《경식동무에 대한 소식이야요.》

영애는 인실의 귀에 손오가리를 해대고 무슨 긴한 이야기라도 하듯 속삭였다.

《경식동무가 산림보호원이 됐다니요.》

《무슨 왕청같은 소리 하니?》

인실은 흠칫 놀랐다.

《정확한 소식이야요. 안하겠다구 버티다가 항복 하구말았대요.》

인실은 일순 믿어지지 않아서 멍해 앉아있었다.

《오늘아침 마을앞에 있는 숲에다가 <보호림>이라는 <보초병>을 세우는걸 내가 봤는데요 뭐.》

인실은 경식이가 좀처럼 리해되지 않았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보통 늙은이들에게나 차례지는 산림보호원이 되리리코야 생각이나 했으랴! 역대우같은 경식이가 《편안한 직업》을 택하다니 ...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인실에게는 죽은 나무 몇대를 가지고 시비하던 경식이가 생각키우자 저도모르게 야릇한 미소가 입가에 피어났다.

(산림보호원을 하면 편안은 할거야.)

인실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흥심없이 유리창문밖을 내다보았다.

이때 영애는 인실의 거동을 살피며

《또 한가지 멋있는 소식이 있어요.》 하고 말을 건넸다.

《산림보호원 이야기라면 듣기 싫어!》

인실은 짐짓 성난척했다.

그러나 영애는 자기 기분에 떠서 상긋 웃으며 다음말을 또 퍼놓았다.

《경식동무와 채옥언니가 기미가 달라요.》

인실은 놀라움에 찬 눈길을 들었다.

채옥이란 용모가 통통하고 기특하게 생긴 림도공이다.

《출근두 같이하구 퇴근두 같이하구... 그바람에 채옥언니의 출근시간이 한시간이나 빨라졌다구 소문이 자자해요.》

영애는 무엇이 유쾌한지 방싯 웃는다. .

인실은 묵묵히 앉아서 채옥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인실의 동창생인 채옥이는 공부도 잘했고 눈썹미가 있으며 종달새처럼 노래 잘 불러 총각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 애가 불품이 없고 남자답지 못하게 아늑한 일터로 찾아드는 경식이와 한짝이 되어 다닌다니 정말 사람일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때 프락포르가 덜컥 밋고 《꼬마휴게실》이 휘딱 뒤집힐듯 흔들리는통에 인실은 정신이 편뜻 들었다.

영애가 먼저 문밖으로 튕겨져나갔다.

인실은 프락포르가 《이동휴게실》을 떼놓고 멀

리 사라진후에야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인실이가 기계톱소리 울리는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뜻밖에도 《산림애호》라는 완장을 팔에 두른 경식이가 마주왔다.

인실은 못박힌듯 그자리에 굳어졌다.

경식의 모자채양은 귀옆으로 돌아가고 굽실굽실 한 머리카락이 이마에 송라처럼 드리워져있었다.

경식의 검은 눈은 인실의 속마음을 더듬는듯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있다.

순간 인실의 눈앞에는 경쟁총화모임 때의 경식이 모습이 떠올라서 금시 불쾌해졌다.

그는 마주다가오는 경식을 못본척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다.

《가만, 인실동무!》

경식은 인실을 불러세웠다.

《날 불렀어요?》

인실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시답지않게 대답했다.

경식은 말없이 수건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일순 땀땀히 서있었다.

《내 동무한테 한가지 할 얘기가 있소.》

경식은 말쑥지를 떼놓고는 다음말을 잊지 못했다.

《무슨 얘기에요?》

인실은 너그러운 표정으로 경식이를 넘겨다보았다.

경식은 무엇을 주저하는듯 주뭉거리더니 입새로 흘러나오는 작은 음성으로 말을 건넸다.

《범골에 식수한 나무는 동무네 작업반처녀들이 심었더군.》

《그래서요?》

인실의 눈길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동무가 책임지고 했다면서? ...》

인실은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기를 가까스로 누르며 대답할 말을 더듬었다.

그런데 경식이가 찔찔매게 할 신통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생각나는대로 내뱉듯이 말했다.

《원래 산판사람은 나무 몇그루 죽은걸 가지고 쪼쪼하게 놀지 않아요.》

갑자기 경식의 검은 눈썹이 푸들푸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소? 미안하오. 난 몰랐소.》

경식은 그만하면 할말은 다했다는듯이 천천히 돌아서더니 잡관목 우거진 숲속으로 시적시적 걸어갔다.

인실은 이윽토록 서서 경식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속에는 그 어떤 반발심과 함께 패배감이 마음을 사정없이 찔렀다.

어느때부터인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떼를 지어 흘러가고 쉼없는 바람이 우수수 우수수 나무가지를 흔들었다.

이따금 썩-하는 아츠러운 소리가 비명처럼 귀전을 쳤다.

인실은 온몸이 매시시해오고 머리가 어지러워움을 느꼈다.

어찌하여 순조롭고 활기찬 생활에 이런 흐리터분한것이 끼여들었는가. 그 무엇이 맑고 깨끗하고 유쾌한 마음을 대구 흔들어놓았는가.

머리위에 드리운 마가목나무가지에서 쇠박새가 동그란 눈알을 뱅글뱅글 돌리며 꼬리를 호들갑스럽게 초췌거렸다.

...얼마후에야 인실은 껍질이 벗겨진 강대가 덩굴고 프락프락가 파헤친 땅에 나무가지가 어수선히게 널려져있는 벌목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참동안 걸던 그는 오리나무숲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무춤 섰다.

가만히 수군거리는데 말뜻은 알수 없으나 음성이 또렷한것은 채옥의 음성이었다고 약간 석심한것은 경식의 음성이었다. 다정하게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인실이가 오미자덤불옆으로 몸을 피하는데 어지간히 높아진 경식의 목소리가 귀전을 쳤다.

《나무 흔한 고장에 살고있으니까 나무를 아낄 줄 모르거던.》

인실은 뜨거운 물이라도 뒤집어쓴듯 온몸이 화끈 달아오르고 디디고 선 땅이 푹 꺼져내리는것 같았다.

그는 부랴부랴 아지따기공들이 일하고있는 벌목장으로 걸음을 다우쳤다.

그는 인차 나무아지를 따고있는 처녀들속에 휩쓸렸다.

벌목장은 들끓었다. 이달에는 순희우승기를 도로 찾자고 림도공, 검척공 할것없이 아지따기에 달라붙었다.

벌목공들은 기세를 부쩍 올렸다.

흡사 기관총사격을 하듯이 새된 기계톱소리가 려방으로 귀청을 울리는데 아릅드리 이깔나무는 밑둥이에 번쩍거리는 기계톱날을 물고 시누런 톱밥을 분수처럼 내뿜고있다. 그러나 이깔나무는 부질없는 일을 그만두라는듯 껍떡하지 않고 태연스레 서있었다. 앙칼진 기계톱소리가 푹 멎으며 《나무여! -》 《나무여! -》 하는 벌목공의 웨침소리와 함께 떡 뻗치고 서있던 이깔나무가 한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진다... 하늘이 핑그르르 도는듯 나무우듬지가 반원을 그리며 기울어지는데 썩! -대기를 찢는 소리에 뒤이어 우직큰 탕! 하는 소리가 온 산판을 뒤흔들었다.

《야! 이게 사나이들 일이야.》

오십대의 벌목공이 새삼스럽게 하는 말이다. 인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값죽은 일터를 찾아 간 경식이를 생각했다.

(정말 그 동무는 몸값을 하거던.)

어느새 아지따기공들이 나무에 달라붙어 거품내기로 도끼질을 한다.

아지를 채 따기도전에 프락포르가 통탕거리며 올라와 길찬 통나무를 채가지고 내려간다. 어느덧 인실이라도 성수가 나서 도끼를 휘둘렀다.

해질무렵 뜻밖에도 경식이가 나타났다.

《야! <산림보호원>이 나타났다구나.》

영애가 짹짹한 목소리로 웨쳤다.

인실은 부지중 경식을 한번 피끗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도끼질을 해냈다.

경식은 영애옆으로 슬렁슬렁 다가오더니 돌쫓같이 큰 손을 내밀었다.

《도끼를 좀 주오.》

《싫어요. 난 놀구요.》

영애는 도끼를 등뒤로 가져갔다.

경식은 허리에 찌든 조막도끼를 영애에게 주고 빼앗듯이 영애의 도끼를 잡아쥐었다. 그리고는 아지를 채 따지 않은 나무에 달라붙어 세팔개 도끼질을 해냈다. 번쩍이는 도끼날이 하늘에 오르내리고 손바닥같은 도끼밥이 튀어올랐다.

그는 마치 인실이가 보란듯이 똑심을 쓰는것 같았다.

(산림보호원 완장을 두르고 다니기가 먼구스려웠던 모양이지!)

인실은 경식을 못본척하며 부지런히 도끼질만 했다.

한시간이나 걸려 나무 한대를 전보대처럼 미끈하게 다듬어놓은 경식은 영애에게 도끼를 쏙 내밀며 통명스럽게 입을 열었다.

《모두 이렇게 따야겠소.》

모두 의아쩍은 시선을 경식에게 던졌다.

《보호원이 소장질까지 하는가.》

누군가 우스개소리를 하며 빈정거렸다.

《그렇게 따지면 계획은 언제 하구요?》

영애가 한마디 툭 쏘았다.

《아지를 잘 따지 않기때문에 프락포르가 끌어갈 때 길옆에 있는 어린 나무를 못쓰게 만드오.》

경식은 아지따기공들을 휘둘러보며 위엄있게 말했다.

《그래도 그럴겐 못마요.》

영애가 한결을 나서며 항변조로 내뱉었다.

그러나 경식은 그 말은 들은척도 안했다.

《아지를 잘 안따고는 못견딜게요.》

경식은 단호하게 말하고 산등성으로 슬금슬금 걸어갔다.

《산림보호원이 되더니 한자리 판것 같다야.》

그러자 처녀들은 어제저녁에 경식이가 꺾어진 어린 잣나무를 작업소장앞에 내놓고 아지를 잘 따지 않아 프락포르에 끌려오는 나무의 아지를 걸려 어린 나무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아지를 잘 따야겠다고 들이대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소장은 어째선지 낯을 쩡그리고있더라는 것이었다...

멀리 사라져가는 경식이의 잔등을 바라보는 인

실의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다.

× ×

인실이가 운전하는 10 톤급기중기는 산중턱에 있다. 높고 가파로운 산중턱에 있는 기중기팔은 산꼭대기에서는 손으로 만질듯싶지만 산밑에서는 아득히 올려다보인다. 인실은 기중기팔꼭대기에 올라가는것을 무척 즐겨했다. 그가 기중기팔 꼭대기에 올라서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중천에서 기발처럼 나뭇기는 빨간 머리수건을 경탄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오늘도 인실이는 잠시간을 타서 기름통을 들고 기중기팔에 올라서서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통나무차를 끌고 산골짜기를 누비며 달리는 림철기관차가 가둑누에처럼 구불거리고 숲속으로 뛰여다니는 사향노루가 마치 대굴대굴 굴러가는 듯싶다.

면발치에서 경식이가 무슨 묘목묶음을 메고 숲속으로 숨박꼭질하듯 사라지는것도 보였다.

이때 아래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인실언-니-이.》

영애가 입에 손나팔을 해대고 웨쳐대고있었다.

《소장동-지-가- 내 려오-래-요-》

《알았-다-》

인실은 활차에 기름을 주고나서 발디디개를 타고 내려왔다. 휴게실에 들어서니 소장은 통나무를 푹푹 잘라서 만든 목침같은 의자에 앉아서 인실을 기다리고있었다.

《인실동무! 거기 좀 앉소.》

어째선지 소장의 얼굴에 그늘이 짙게 어려있었다.

인실은 그 어떤 불안을 예감하며 소장의 흐려있는 얼굴을 넋지시 바라보았다.

소장은 담배를 꺼내서 장알이 진 손바닥에 그루를 푹푹 박더니 인차 입을 열었다.

《일이 하나 생겼소.》

소장은 담배를 한모금 빨더니 굴뚝같은 연기를 후-하고 내뿜었다.

《어린 나무가 거의 다 죽었다는게 사실이요?》

《.....》

인실은 잠자코 작업복단추만 만지작거리며 서있었다. 인실이는 범골에 나무를 심은 다음엔 가보지 못했던것이다.

소장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공업림경영소에서 나무 심은걸 보러 온다오.》

인실은 가슴이 철렁했다. 온몸의 힘이 쏙 빠져나가는것 같았다.

정말 나무가 많이 죽었다면?...

불현듯 인실의 눈앞에는 경식의 모습이 떠올랐다.

전번날 벌목장에서 《아지를 잘 안따고는 못견딜게요.》 하던 경식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듯했

다.

(그러니 경영소에 나무 죽은걸 제거하는것으로 <보복>을 하는게로구나.)

《제가 가보겠어요.》

인실은 옷대무시를 바로잡으며 서둘렀다

《가만, 인차 날이 어둡겠는데 내가 가겠소.》

소장은 벌떡 일어나서 바람처럼 사라졌다.

마을에 내려와서도 인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소사무실에서 소장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소장은 밤이 깊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인실이는 안절부절 못했다. 텅빈 방안에는 귀뚜라미소리만이 구슬프게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출입문이 열리더니 소장이 들어섰다.

소장은 인실이를 피곳 보더니 외면하고 모자를 벗어서 옷걸개에 걸고는 말없이 제자리에 가앉는다.

인실이는 옥죄어드는 가슴을 안고 소장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작업소가 낮을 못들게 됐소.》

소장의 김빠진 목소리였다. 인실은 가슴이 섬찟했다.

《살아남은 나무가 절반도 안되오.》

인실은 폭삭 주저앉을듯 맥이 탁 풀렸다. 공업림경영소에서는 생산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하긴 조직사업을 잘못된 내게 결함이 있소.》

인실에게는 소장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뚫어오르는 수치감으로 몸을 가늘게 떨었다. 한동안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들바들 떨던 인실은 책상모서리에 허리를 탁 기댔다.

그바람에 책상이 후두두 떨었다. 그는 근육에 힘을 모아 몸을 바로세웠다.

언제나 떠받들리워 살던 인실이다. 그런데 인제는 《비난》앞에 서야 할 인실이다. 그의 긴 눈썹은 바람에 흔들리는 깃털처럼 바르르 떨렸다. 인실은 더는 그 자리에 서있을수가 없어서 문밖으로 뛰어나왔다.

고산지대의 번덕스러운 날씨는 먹장구름을 몰아왔다. 울씨년스러운 바람이 불 때마다 비방울이 후둑후둑 나무가지를 후려갈겼다. 발이 어디 놓이는지 몰랐다. 공원이었다. 그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음울하고 번거로운 상념이 끝없이 갈마들어 옷자락이 화락 젖는것도 몰랐다.

그는 앞에서 인기척이 나는바람에 고개를 들었다.

겸식이가 비닐통구리에 쓴 묘목을 지고 지나가고있었다

인실은 그를 피해 쫓기듯 집으로 들어왔다. 이 날밤, 인실은 밤새껏 궁식거리며 잠을 못 잤다.

휴식일이였다.

인실은 울적한 기분으로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아침일찍 범골을 향해 종종걸음을 쳤다.

봄철나무심기를 할 때 이틀동안에 심을 나무를 하루에 다 심어치웠으니 설치기는 했지만 절반 이상 죽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더우기 그것이 그렇게도 엄중한 사변으로 번져갈줄은 생각도 못했던 인실이다. 인제는 나무심기철이 지났으니 보식은 할수 없지만 어쨌든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아야 마음이 안정될것 같았다.

인실이가 범골이 먼발치 보이는 더기에 올라섰을 때는 아침노을빛을 받은 산발이 황금빛으로 빛나고있었다.

멀리의 이깔숲은 금시에 온통 보석이라도 돼버린듯 찬란한 빛을 뿌리고 종비숲은 마치 수많은 금빛바늘을 세워놓기도 하고 눕혀놓기도 한듯 눈부시게 빛났다. 숲변두리에 화초숲은 노을진 구름이 그대로 내려앉은듯 신비스러운 자태를 한껏 자랑하고있다. 하지만 인실에게는 이 모든것이 신비스럽게도 아름답게도 보이지 않았다.

풍성하지 못하고 여윈 숲은 인실의 기분을 더더욱 흐리터분하게 해주는것 같았다.

인실은 구름나무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언뜻거리는바람에 와들 놀랐다.

그는 놀란 눈길로 그림자를 살피보았다.

뜻밖에도 겸식이가 옷옷을 벗어제끼고 땅을 파고있었다. 보매 나무모발을 만들고있는 모양이였다.

색 날은 제대복에는 송진이 게발러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쳤다.

그러나 그는 허리를 구불뻑거리며 세판게 팍지질을 해대고있었다. 팍지날이 땅에 박힐 때마다 흙덩이가 튀어오르고 풀뿌리 끊어지는 소리가 와드득거렸다.

벌써 어느새 떠다심었는지 애어린 잣나무들이 아침해빛을 받으며 바늘끝 같은 잎사귀들을 한들거리며 춤을 춘다.

이윽도록 겸식의 작업모습을 지켜보던 인실은 피하듯 잠관목숲을 뚫고들어갔다.

고개를 수긋하고 걷던 그는 누군가 앞을 가로막는바람에 꺾아세운듯 오뚝 섰다.

이마가 흘렁 벗어진 공업림경영소장이였다.

인실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엉겁결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오! 유명한 기증기운전공이구만, 어델 가는 길이요?》

경영소장은 환한 웃음발을 지으며 다가섰다.

《.....》

인실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긴장하여 서있었다.

《어델 가셨됐습니까?》

인실은 겨우 인사말처럼 했을뿐이였다.

《식수림지를 돌아봤소.》

경영소장은 수건으로 벗어진 이마를 문질렀다.
인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갑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며 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을 지경이었다.

《동무넌 나무를 아주 잘 심었소.》

인실은 멍히 상대방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종잡을수 없었다..

《여긴 심은 나무가 100% 살았다기에 오지 않으려 했는데 다른 작업소를 보구 오는길에 우연히 들렸소. 그런데 제일이요.》

인실은 안도의 숨이 후우 나갔다.

(그렇됐구나! 그러면 그렇겠지.)

그러나 다음순간 인실은 죽은 나무가 많았던 식수림지인데 제일일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지나치게 많이 죽지 않았으니 경영소장이 인실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그럴수록 인실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무를 더 잘 심지 못한 자책이 영겨들었다.

그러나 어쨌든 무겁던 마음은 금시 홀가분해지고 가슴에는 무언가모르게 따뜻한것이 차올랐다.

그런걸 가지고 며칠동안 마음고생을 한걸 생각하면 어이가 없었다.

인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경영소장과 함께 되돌아섰다. 경영소장이 갈림길에서 갈라져 내려가자 인실은 혼자서 정적이 깃든 수림속을 걸었다.

바람 한점 없는 사위는 풀잎사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어느때 심었는지 허리를 치게 자란 종비숲에는 죽어버린 포기들에 가시돋친 잡관목들이 뒤엉켜 어수선했다.

인실이가 새초만이 꼭 깔린 초원으로 나서자 숲 종다리가 푸른 하늘에 나래를 펴고 신이 나서 고즈넉하던 정적을 깨뜨린다.

인실은 생열기와 매젓나무들이 뒤엉킨 가시덤불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가까이에서 숲과 긴한 이야기를 속삭이듯 수월수월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이윽고 자작나무앞에서 젖줄기처럼 솟구치는 청신하고 정갈한 샘물이 눈에 띄웠다.

샘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이끼들은 바위아래에는 큰 버치에 담아놓은듯이 잔잔한 물이 피었는데 어찌나 맑고 깨끗한지 금시 마음까지도 맑아지는듯싶었다.

샘물에 손을 잠근 인실은 온몸이 짜릿해오는것을 느끼며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이때 인기척이 나는바람에 인실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영애가 갑자기 나타났던것이다.

《언닌 노는날 어델 돌아다녀요?》

《아이 깜짝이야!》

인실은 산나물바구니를 옆에 낀 영애의 귀를 잡아당겼다.

《아이구 아파... 내 새소식 알려줄게 이걸 봐요.》

영애는 바스려지는 시늉을 한다.

《또 기분 나쁜 소식이었지?》

인실은 영애의 귀를 놓았다.

《언니가 깜짝 놀랄 소식이에요.》

영애는 귀를 비비며 방긋 웃었다.

《채옥언니가 약혼했대요.》

인실은 어리둥절했다. 경식이와 채옥이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게 뭐 깜짝 놀랄 소식이야?》

《채옥언니의 애인이 청진에 온돌수리공이래요.》

《뭐라구?》

인실은 놀람에 찬 눈길로 영애를 바라보았다. 믿어지지 않았다.

《사실이에요. 내가 직접 봤는데요 뭐.》

인실은 어정쩡해졌다.

(그러니까 경식이와 좋아한다는건 뜬소문이엿구나!)

《그리구 이번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

인실은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쩐지 경식의 검소한 얼굴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느닷없이 인실의 가슴속에는 동정 비슷한것이 솟아올랐다.

《범골에 식수를 잘했다고 평가가 좋대요.》

《건 나무 알아.》

인실은 얼굴에 기쁨어린 미소를 지으며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초원을 보았다.

《언니가 알긴 뭘 알아요?》

영애는 나물바구니를 땅에 내려놓으며 별로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너보다 먼저 안다.》

《그게 우리 작업반이 잘 심어서 살아난줄 알아요?》

《그럼?》

인실은 의혹이 어린 눈길로 영애를 지켜보았다.

《경식동무가 일주일동안이나 밤새워 보식했대요.》

《뭐?》

인실은 소스라쳐놀랐다.

그의 눈앞에는 저녁마다 나무모를 지고다니던 경식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것두 백리나 되는 리평나무모밭에 가서 사철 심을수 있게 키운 비닐통구리식 나무모를 얻어다 심었대요.》

(그렇됐구나!)

불시에 가슴에 뜨거운것이 차올랐다. ,

심장이 박동하는것을 느꼈다.

지금 인실의 심정은 무어라 형언키 어려웠다. 갑자기 눈앞이 뽕얇게 흐려왔다. 무엇때문인지 마음이 괴로와지는것이였다.

× ×

창문을 두들겨대는 비방울소리에 놀라 깨어난 인실은 눈을 비비고 창박을 내다보았다. 어느때부터 내리기 시작했는지 흰히 밝아오는 창밖에서는 굽어진 비줄기가 쭈룩쭈룩 소리를 지르고 쉼-바람이 불 때마다 황철나무가 몸부림치고 비방울이 투닥거린다.

인실에게는 오늘 어둑새벽에 나간 경식이 아직 합숙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근심이 불현듯 생겨났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인실에게는 경식의 장대한 몸집과 검소한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까닭모르게 가슴이 아팠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도토리알같은 비방울이 나무지붕을 요란스럽게 두드리고 도랑물소리가 팔팔 거린다.

인실은 창문을 비스듬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노동자합숙앞에서 서성거리던 어머니가 다급히 집으로 다가오고있다.

인실은 널대문안으로 들어서는 어머니에게 의문 어린 시선을 던졌다.

《그 사람이 아직 안들어왔구나. 너 혹시 어제 그 사람을 본 일이 없니?》

《그 사람이라니요?》

인실은 짐짓 모르는척했다.

《경식이말이다. 사람두 그렇게 극성스러운 사람은 난생처음 본다. 이 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어머니는 혀를 차며 부엌으로 사라졌다.

인실의 눈앞에는 며칠전에 나무모발을 만들고있던 경식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어떤 불안이 뇌리를 치는 순간 그는 부랴부랴 비옷을 찾아 집어들었다.

시퍼런 번개가 번쩍 하더니 이어 파르릉 우뢰가 메부리를 빠갠듯이 울린다.

인실은 비옷을 뒤집어쓰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구름이 팍 내려덮여 사위를 분간할수 없었으나 어리짐작으로 나무모발방향으로 걸음을 다우쳤다. 휘천거리는 나무다리를 건너자 이빨나무와 봇나무들이 한데 뒤섞인 혼성림이 나졌다.

하늘에는 번개불이 구름을 찢고 천둥소리가 파르랑 거렸다. 비방울이 나무잎사귀를 후려친다.

그는 헤엄치듯 두팔로 나무가지를 헤집으며 떨기나무속을 헤쳐나갔다.

어느덧 숲이 툭 끊어지고 나무 한대 없이 민스름한 등성이 나타났다.

그는 나무모발이라고 짐작되는 우묵한곳으로 내려서서 걸으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별안간 절벽 같은것이 딱 막아서자 눈앞이 아찔했다. 눈을

동그리고 살펴보니 그리 높지 않은 제방쪽이었다...

어느덧 번덕 많은 여름의 구름떼가 숲언저리로 몰려가고 비가 뜰해졌다.

방금까지 일한 흔적인듯 제방쪽에는 검은 흙이 제발려있었고 범람하는 골계수가 독에 부딪쳐가는 흰갈기를 일으키며 골짜기로 몰려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야 인기척도 없고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 안했다.

얼굴에 흘러내린 비물을 문지르며 제방주위를 살살이 훑어나가던 인실은 말뚝처럼 서버렸다.

제방밑에 삽자루가 덩굴고있을뿐이었다.

가슴이 찌늘해지는것을 느끼며 사방을 살피던 인실의 눈길은 우산처럼 가지를 넓게 뻗치고 선 잣나무밑에 딱 멎었다. 경식이 잣나무에 등을 대고 엎비스듬히 누워 정신없이 자고있었다.

숲속이 지기의 따뜻한 집이기라도 한것처럼...

이 순간 경식은 얼마나 크고 웅장해 보이는가.

(숲을 사랑하는 사람...)

저런 사람을 인실은 늙은이들에게나 적당한, 편안한 일터를 스스로 택했다고 미덥지 않게 생각했던것이 아닌가.

경식은 편안한곳을 찾아간것이 아니라 숲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택한것이 다.

참으로 자각된 인간, 그런 인간에게는 그것이 산림보호원이건 온돌수리공이건 경비원이건 한가하고 편안한 일터란 없는것이 아닌가.

경식의 수세미처럼 흩어진 머리칼이며 흙이 제발린 이마를 정신없이 바라보는 인실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이 부끄러워진듯 인실은 다급히 삽을 잡고서는 제방쪽에 흙을 떠올렸다.

《인실동무 아니요?》

어느새 깨어났는지 경식이 스적스적 다가오며 기쁨에 넘친 어조로 말을 건넸다.

인실은 물기어린 눈매로 경식의 거뭇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시에 인실의 목구멍에 뜨거운것이 차올랐다.

《고맙소!》

인실은 그냥 삽질만 했다.

《좀 쉬오-》

경식은 인실이의 삽을 빼앗아들었다.

구름이 몰려간 남쪽하늘에는 칠색무지개가 령통하게 어리여있었다.

《인실동무! ...》

경식은 말을 떼놓고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인실이의 귀뿌리도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하늘가로 시선을 던졌다.

《아이! 저 무지개!》

인실이의 입술에는 미소가 조용히 피어났다.

자랑하노라 외 1편

럼우봉

자랑하노라
웃음소리 노래소리 가득찬
우리의 하늘과 땅
그 모든것을 나는 자랑하노라

말소리 하나 없는
우리의 공간도 자랑하노라
말로도 못다 아뢰어
마음속 진정이 터질듯한
그 공간을 나는 더 자랑하노라

해빛이 축복의 부채살 드리운
성대한 공장조업식장에서
아버이수령님
건설자들의 험해진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다
눈으로 가져가셨던 손수건을 오래도록 못떼실 때

《수령님! …》
저희들 손이 무엇이기에
이 기쁘신 날 그렇게도 가슴아파하시는가…
아버이 그 사랑에 목이 메어
건설자들이 더는 잊지 못한 말도
그 공간으로-

거밋거밋 땅거미 내리는 동구길에서
아버이수령님
떠나가시던 승용차를 다시 돌리시어
소조원처녀에게
어디서 자며 생활하는가고 물어주실 때

《수령님! …》
저의 잠자리가 무엇이기에
반나절이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도
되돌아오시어 또 심려해주시는가고…
다심하신 그 사랑에 목이 메어
소조원이 못다 아뢴 감사의 말도
그 공간으로-

백두산정의 사적지에서
아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은
처녀강사의 가슴에서도
폭음이 앞에서 들려오는 전선길에서
수령님 가시는 길 종시 막아드리지 못한
신호수처녀의 가슴에서도
못다 아뢴 그 진정이 맴돌다가

공간으로- 그 공간으로-

거기엔 있노라
진화의 날 아버지수령님 되찾아주신
그 땅의 한줌 흙속에 담아보낸
남녘 농부의 불붙는 소원도
자기의 길지 않은 한생이 끝나는 순간
북녘하늘 우리러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빌고 빈
지하혁명가의 간절한 축원도

거기선 들려오노라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버이수령님의 영상앞에서
혹은 영상을 그려보면서
수없이 아뢰고 아뢴
가슴속 충성의 말과 말들이…

아 우리의 그 공간엔
감사와 축원과
환희와 기쁨과
열망과 맹세의
가슴속 가장 뜨거운 말들이
차고 넘쳐 차고 넘쳐
저 하늘엔 별무리로 뿌려지는가!

정녕 무심히는 올려다볼수 없는
그 공간에 머리를 들고
숨쉬며 걸어가며 일하는 이 행복
내 진정도 아뢰어 보태는 이 영광
어찌 자랑하여 끝이 있으랴

세계는 부러워하더라
조선의 맑은 공기를
하나 그 공기도
천겹 만겹 파도를 일으키며
그 공간을 나르는 말과 말들에
씻기고 또 닦이여
더 맑아진것을

자랑하노라
나무 한그루도 풀 한포기도
자랑치 않을것 하나 없는 조선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공간을
공간없는 조선을
나는 세계에 높이 자랑하노라

고향역에 내려서

차창너머 멀리서도 우렛이 안겨들던
잡판목숨속의 황철나무처럼
고향아 보고싶던 네 모습은
차칸에 오면서도 뚜렛이 떠오르더니
정작 고향역에 내려서자
안개속처럼 뿌옇게만 보이는구나

드러내다오 고향아 정다운 네 모습을
삽살개 꼬리치며 따라나서던
동구밖의 즐거운 내림받이
후룩 후룩 동네새들 노상 청해오고
어릴적 내 연꼬리도 자주 감아쥐던
마당귀의 퍼져오른 향오동나무...

어째선지 어째선지
어른이 되어서 그려보아도
아이적 그 모습으로 마주오는
살뜰하고 소중한 그 모든것들을,

역두에 가득 차는 고향사투리
나를 마중나온 네 부름소리나
베개머리에 살췌이 웅송그리고
밤새워 속삭여주던 류별난 그 목소리

고향아 너는 정녕
귀밀에 흰서리 내려서도
철부지 아이로 안기끓은
내 어머니 젖품이구나

떠나갔더란다 그 나이에
가난이 그속에 울보채던 피나리보짐
다쫓고 다쫓던 내 동동걸음을
너는 종시 되돌려세워주지 못했더라
그날은 너도 안겨살 어머니조국을 못가진탓에

떠나갔었다 꽃나이 한창때
산모퉁이 분여지 긴 밧고랑우에
손때묻은 호미자루 얹어놓은채
키보다 더 큰 보총을 끌며 내 떠날 때
너는 오히려 그 걸음 재촉했었다
그날은 너를 안아준 그 조국이 위험에 처한탓에

하지만 혼장 메달 번쩍이는 내 가슴을
니에게 먼저 보여주지 못했다
조국의 큰집을 떠받들던 철골들이
전화에 엇가락처럼 녹아 비탈려
네게로 돌아오던 내 걸음 멈춰서야 한타에

고향아 내 너의 품을 떠나
전선길을 걸으며 구내길을 걸으며
그때에야 비로소 깨달았구나
너는 내 가슴속에 청춘의 꿈보다도
더 먼저 움터난 첫사랑이었음을
대장부 내 힘을 깡그리 거기에 쏟은
술한 기둥들과 언제들은
네게 두고온 정붙인 일감들이었음을

너를 떠나던 내 발자욱 찍히고 찍힌
이 고향 역두에서
고향아 너는
너를 떠나서도 너를 가꾸어온 그 표창으로
너무도 달라진 네 모습 한눈에 드러내는구나

조국의 발부리에 휘감겨가는
너의 금빛 옷자락이여
네 쌓아올린 다락밭들이
조국의 더기에도 총계총계 들려가는
행복의 등고선들이여
우리 만들고 만든 농기계들이
너의 지평선으로 가로세로 그려가는
새시대의 자오선들이여

이제는 내 가슴속에서도
새모습으로 자리바꿈한 고향이기에
고향에 안겨 느끼는 조국은
이리도 이리도 우람한것을
조국에 안겨 바라보는 고향은
이리도 이리도 빛나오르는것을

아 정녕 그러기에
위대한 수령님 존함을 높이 오신
조국속에 내 조국속에

평범한 나도 자란 고향이 있고
은혜로운 사랑이 햇빛처럼 내리는
고향속에 내 고향속에
어머니조국도 있어라!

내 그 언제나 그 어디서나

하나의 고향을 안았던 이 가슴에
수없는 고향들의 어머니 내 조국을 안고
오늘도 래일도 살아가리라
고향의 장한 아들로
조국의 참된 아들로

탄부의 성미 외 2 편

백의선

누구나 쉬이는 알수 없으리
한생의 인연을
지하천척 석탄과 맺고 사는
우리네 탄부의 성미를

다 알고 말했던가
나를 키우던 어머니도
때없이 정을 담아 희망을 담아
나를 보고 탄부성미를 닮았노라고...

탄고장에 태를 묻고
탄을 밟고 자라서
내 오늘 탄케는 탄부되었어도
내 아직 다는 몰라라
탄부의 성미란 그 의미

그 누가 말했던가
수리개는 이 땅을 굽어보며
하늘끝에 나는 새요
탄부는 이 땅 이 하늘을 떠받들고
지심끝에 사는 수리개라고

땅우에선 푸근한 여름비를 피해가도
땅속에선 얼음같은 석수도
봄소나기처럼 웃으며 맞는 그 성미
땅우엔 햇빛 풍성하고 길이 넓어도
간데라 켜들고 어깨를 낮추며 걷는 막장길
하루도 걷지 않고 못배기는 그 성미

그것만도 아니여라
땅밑에선 천근만근 조국땅을 떠받들고

아빠트층계를 딛고 오를 때엔
두어깨에 실리는 행복이 무거워
뜨거워진 눈굽을 축축이 적시는...

무엇에 비겨 말하라
탄벽을 산같이 허물어내기보다
안겨주는 꽃다발을 더 무거워하고
일할 땀 묵묵히 말이 적어도
탄무늬 반짝이는 탄벽앞에선
스스로 노래를 못이기는 그 성미

아, 탄부의 성미란 어떤것인가
온갖 아름다움 다 지니고서도
수수한 석탄처럼
자랑은 가슴깊이 묻어두는 그 미더움!
애써 저를 드러내지 않는 뜨거운 그 진정!

표정없이 성실한것인가
암반처럼 억센것인가
봄눈처럼 유순한것인가
깊고 다감하고 풍부한 아름다움이 깃든
우리 시대 탄부의 성미
내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그러나 이것만은 이야기할수 있어라
조국의 은혜 한없이 높고 높아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천길만길 땅속까지 낮추는 그 성미
천길만길 땅속이라도
그곳이 혁명이 불러준 초소이길래
만리창공처럼 나래펴는 그 성미...

조국땅 깊은곳에서

탄아, 조국땅우로 네 가거들랑
이야기는 말아다오
불길로 뿔어다오
탄부인 내 사랑을

탄아, 내 마음아

밝고 부드러운 빛이 되어
요람속 애기의 미소우에 흐르거든
고요히 웃지만 말아다오
자장가로 흘러다오

탄아, 내 노래야

눈덮인 백두고원
농학자의 온실에 열이 되어 흐르거든
식지를 말아다오 무르익은 열매속에
영원한 향기로 풍겨다오

탄아, 내 숨결아

희망 안고 가다오 꿈을 안고 가다오
나서자란 정든 땅 멀리 저 멀리
내 깊은 가슴속에 샘솟는 진정
내 심장 그대로 안고 가다오

탄아, 조국에 바친 내 사랑아

말하려마, 손풍금아

하늘에는 다정한 별들이 총총
내리는 달빛은 은실인가 금실인가
손풍금소리도 정다워

무슨 말 가슴속에 남겨두었느냐
시원한 합숙 로대에 앉아
손풍금울리는 젊은 탄부여

한해 계획 곱으로 넘쳐한 이 저녁
왜 그리 짧았던가, 가까웠던가
처녀와 단 둘이 돌아오던 퇴근길

-탄만 많이 캐세요
바람은 넘려 말고...-
그윽한 정 넘치는 처녀의 말

탄만 많이 캐내란다
탄만 많이 캐내란다

너 아느냐, 손풍금아 처녀의 그 말을

탄부는 이 밤에야 알았더란다
처녀가 보내주던 압축기의 바람이
왜 그리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던지

네가 이야기하려마 손풍금아
별과 달이 고운줄 그 누가 모르랴만
어찌 말로야 다 할수 있었으랴

수천척 땅속을 헤치고 헤쳐
탄부가 안아올린 그 석탄이
조국에 더없이 귀중한것처럼

별빛도 달빛도 못내리는 그 깊은 땅속에서
별보다 달보다 더 아름답게 켜 탄부의 사랑
노래로는 다 말할가, 손풍금아

소조원, 그대의 웃음에

한기운

오던날 그 아침부터
모루앞에 설 때는
여기서 잃어지는것 너무도 많아
단조장에 꽃피울 새날을 그려보며
그리도 고심하던 우리 소조원

형단조 첫시험 끝난 이 아침
흥겹게 찍어내는 기계소재
갖가지 문양고운 꽃무늬 같아
땀겨진 얼굴마다
피어나는 웃음이 그리도 좋아선가

그렇다 다듬은듯 찍어낸
저 형소재만이라면
얼굴가득 가열로의 불빛어린
소조원 그대의 미소
그리도 아름다우라

아, 와서 첫인사 나눌 때
땀을 많이 흘려야 단조공이라던
그 말도 웃음으로 지워버리며
저 직장장의 얼굴에 어리는 기쁨은
그대 마음 비긴 창조의 희열 아닌가

와서 함께 일손 잡아볼 때
함마의 잦은가락에 춤추듯
온몸 들쭉이는 멋이 일맛이라던
그 일모습 영원히 지워버리며
저 구리빛 얼굴들에 짓는 웃음도
그대 마음 비긴 창조의 날을 아닌가

뜨겁다 3대혁명전위-
그대의 기쁨
그대의 행복은
달라지는 사람들의 새 모습에 있어

변모되는 일터의 새 모습에 있어

함께 산 나날에
땀흐르는 이마를 맞대이고
운전대도 잡아보고
쇠붙집게도 잡아보며
도와주고 또 배우며 일한 보람
가슴뿌듯이 다시 안아보는것이냐

아침이슬을 보아도
저녁이슬을 보아도
단조공들 얼굴에 흐르는 땀만 같아
함숙 책상우의 도면앞에서
그 몇번 실험의 단조장에서
지새운 낮과 밤 얼마였던가

새 지구설계를 완성한 새벽
가열로의 불빛어린 그대의 창가에서
눈굽에 맺히던 기쁨의 이슬로
단조공들의 마지막 땀이 씻겨진듯
소조원의 가슴은 설레였더라

아 오던날 그 아침
모루앞에 설 때는
단조장의 힘든 일에 덧없이 잃어지던
그 모든것을 나라의 재부로 마련할
그 생각 가슴깊이 젖어들어
그리도 고심깊던 그대 얼굴빛

아름다워라, 이 아침엔
기술혁명-현대화의 나날을 꽃피우는
그대의 맑고 뜨거운 그 미소에
온 단조장이 환히 마주 웃는구나
아, 장마비 뚝은 해빛속에
깨끗이 웃는 꽃밭처럼!

물줄기는 제곱으로

백은팔

1

조병조는 자그마한 산간역에서 내렸다.
 흙을 천천히 빠져나온 그는 탄광으로 들어간
 입입선을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

환한 달빛이 고즈넉한 정적속에 잠긴 산촌의
 초여름밤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두팔을 내젓는 그의 걸음은 가벼웠다.

새 임무를 받으면 누구나 다 느끼게 되는 그런
 류다른 감정과 흥분이 지금 달빛속을 걸어가는
 조병조의 가슴속에 뿌듯이 차올랐다.

이제는 지구석탄관리국이 아니라 나라의 큰 석
 탄생산지지의 하나를 맡았다는 자각이 조병조로
 하여금 로반우에 깔린 침묵 하나 레루 한장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히 직책상 변동에서 오는 일
 무적인 중량감때문만이 아니라 민창식과 같이
 다시 일하게 되었다는 기쁨이 그를 더욱 흥분속
 에 걸게 했는지도 모른다.

구룡탄광 기사장 민창식은 조병조가 지금껏 성
 실하게 이끌어준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민창식은 조병조가 어룡탄광에서 경장을 할 때
 제대군인탄부로 배치되어왔었다.

일욕심 많고 탐구심이 강한 민창식은 병조의
 마음을 대번에 사로잡았다. 조병조는 무슨 일에서
 나 근면하고 진지한 민창식을 자기처럼 믿었다.
 민창식은 일하기 시작한지 1년도 못되어 석탄선
 별기를 창안했고 광차전복기를 개조하였다.

어떤 일을 해도 몸을 푹 잠그고 헌신하는 민창
 식은 믿음직한 탄부였다.

조병조는 그를 대학통신생으로 공부하도록 적
 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조병조가 탄광기사장으로 되던 그해에 민창식
 은 벌써 당당한 기사가 되었다.

그후 병조가 지구석탄관리국 부국장으로 소환
 되던 해에 민창식이 역시 구룡탄광 책임기사로
 소환되어갔다.

얼마 안되어 민창식은 재능있는 기사장으로 온
 관리국에 이름이 짜하게 퍼졌다.

조병조는 사람을 잘못보지 않았으며 자기의 수
 고가 헛되지 않았다는것을 늘 긍지를 가지고 생
 각하였다.

그러한 민창식과 다시 일하게 되었다고 생각
 하니 현장에서 몇년 떨어져있던 조병조로서는 마
 음이 여간만 든든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민창식이가 아직 가정을 못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제 가면 그것부터 해결해

줘야 할 것이다.

수연이라는 탐측기사와 오래전부터 말이 있다
 니 그것도 별반 힘들것 같지는 않다.

탄광이 가까와올수록 고집이 세여 좀처럼 제주
 장을 굽힐줄 모르는 민창식의 그 특징적인 반고
 수가 자꾸만 눈앞에 떠오른다.

살맹이나무들이 성글게 서있는 야산모퉁이를
 돌아서니 우련한 산밭을 끼고 둘러앉은 불빛 환
 한 탄광마을이 인차 나타났다.

병조는 탄광사무실로 곧장 걸음을 옮겼다.

밤이 깊은 때여서 사무실은 모두 전등이 꺼지
 고 오직 한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층으로 올라간 그는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방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아니면 조을고있는지
 지령전화기들이 주련이 놓여있는 책상에 팔굽을
 고이고 머리카락을 움켜쥔채 앉아있는 그 사람은
 인기척을 전혀 못느끼고있었다.

조병조는 좀처럼 움직일줄 모르고 그린듯이 앉
 아있는 민창식의 넓은 잔등을 미더운 눈길로 내
 려다보았다.

(역시 일군이야, 일에만 골몰했군.)

따르릉! 전화종이 고요를 깨뜨린다.

민창식은 다급히 송수화기를 집어들고 귀에 가
 저다댄다.

짧은 질문과 대답을 서너번 반복한 그의 얼굴
 에 만족한 미소가 빙그레 그려진다.

《래달부터 탄을 켈수 있다? 좋소. 그러면 25 중
 단에서 잃은 탄을 봉창할수 있단말이지? 우리가
 국가에서 받은 생산계획도 못하고야 무슨 탄부자
 격을 운운하겠소. 됐소. 이제는 한시름 놓고 발편
 잠을 잘수 있소.》

민창식의 얼굴엔 내내 웃음발이 떠날줄 모른
 다.

민창식이 전화를 끝내고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조병조는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민창식은 이쪽으로 피곳 고개를 돌렸다. 그는
 뜻밖에 나타난 낯선 손님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듯 잠시 멍하니 서서 상대를 뜯어보았다.

《나요.》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민창식은 의자를 밀어제끼며 앞으로 막 달려나
 와 병조의 손을 덥석 감아쥐고 마구 흔들었다.

《부국장동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젠 부국장이 아니지, 허허.》

조병조의 너부죽한 얼굴에 능청스러운 미소가

그러진다.

《예?》

《여기서 아예 살려고 내려왔소.》

《아, 기다렸습니다. 새 지배인이 온다더니 부국장동지가 오실줄은...》

《그러니 더욱 좋지 않소. 난 동무와 함께 일하게 된것이 참으로 기쁘오. 그래 일은 잘되오? 몸이 좀 축간것 같소.》

《뭐 그렇기야...》

둘은 여전히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찬찬히 건너다보았다.

충명한 눈, 민첩한 몸동작, 청년탄부로서의 민창식은 몇년사이에 벌써 틀져보이고 말하는 품이 틀이 꼭 잡히었다.

조병조는 의자를 끌어다놓고 먼저 앉으며 창식의 어깨를 눌러앉히었다.

《힘들지?》

《술직한 말루 좀 힘듭니다.》

《왜 안그렇겠소. 탄광 하나를 말는다는게 어디 험한 일이요.》

조병조는 그동안 지배인이 없는 상태에서 탄광의 전반사업을 맡아본 민창식의 수고가 헤아려져 이렇게 말하였다.

《수연이라고 했던가? 그 동무도 잘있겠지?》

《여전합니다.》

《으흠... 그런데 왜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소?》

《천천히 하지요.》

《천천히라니, 자네 나이가 몇인데? 기사장의 체면도 생각해야지.》

조병조의 부드러운 목소리엔 은정이 스며있었다.

《뭐 가정을 안꾸린다고 체면이 꺾이우겠습니까.》

민창식은 탄전을 피웠다.

《그야 물론 그렇지. 하지만 난 창식동무의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

《허허, 별말씀을 다...》

창식은 그 이야기를 피했다. 그리하여 화제는 탄광에 대한것으로 바뀌어졌다.

밤가는줄도 모르고 지나간 회포를 나누기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새벽이 거의 가까와울무렵에야 방안의 불을 켰다.

2

민창식은 역시 조병조의 믿음대로 일하고있었다.

지배인이 없는 사이 탄광전반사업을 틀어쥐고 일처리해온걸 보면 젊은 나이에 언제 벌써 그렇게 일하는 미련을 터득했는가고 조병조로서도 놀라울 지경이었다.

어느 갱을 들어가봐도 생산설비며 작업조건에

서 빈구석을 찾을래야 찾아볼수가 없었다.

탄광을 꾸려놓고 생산을 다그쳐대는 그 한가지만 봐도 여간내기가 아니었다.

로동자들의 평판도 좋았다. 기사장의 말이라면 누구나 허술히 대하는 사람이 없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조병조는 오늘에 와서도 민창식에게서 별로 부족점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조병조는 오늘도 그런 거뽀한 마음으로 민창식과 함께 갱들을 돌아보았고 로동자들과 같이 탄을 캐며 이것저것 실례를 료해하기도 하였다.

해질무렵, 민창식과 헤어진 조병조는 사무실로 가려다 말고 25 중단구역 기본굴진갱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갱입구에 이른 그는 《위험! 들어가지 말것》이라고 쓴 패말을 마주하고 우두커니 서있었다.

아까 민창식이한테서 갱을 폐갱한 원인을 들어서 대체로 알고있지만 정작 그앞에 다시 와 서고 보니 마음이 이상해지는것이였다.

(이걸 버리다니.)

민창식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원래 25 중단구역은 몇해동안 품을 들여 기본굴진까지 다 해놓은 갱이였다.

그런데 정작 탄발을 만들려고 준비굴진을 해나가는 파정에 큰 물줄기가 땅속으로 흐른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지질탐사나 기본굴진을 할 때까지도 아무런 징조도 없던곳에 어디서 생긴 물줄기인가고 론의가 분분했다. 린점탐사대에 의뢰하여 전기탐사도 해보고 흠뻑으로 습새여올라오는 물의 성분도 분석해보았다.

결과 땅속의 물은 피어있는 지하수가 아니라 하나의 강줄기나 다름없는 큰 물줄기라는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기사장 민창식은 단호한 결심을 내렸다.

《위험하오. 더 뚫고들여가지 마시오.》

그러곤 위험패말까지 써다 갱입구에 세우고 가시철망을 늘어놓았다.

민창식이 들려주던 말을 다시 상기해보는 병조와 넓은 미간에 굵은 주름이 잡혔다. 바로 이때 탄발조성때문에 굴진갱에 올라가있던 김수연이 여기에 나타났다.

《지배인동지시군요》

녀자의 상냥한 목소리에 조병조는 머리를 옆으로 돌리였다.

《수연동무구만, 왜 함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리로 오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갱을 폐갱한후엔 왜 그런지 자꾸 발길이 이쪽으로 돌려지군해요.》

수연은 이마에 차분히 내리드러운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올리며 한숨을 호-내쉬었다.

조병조는 그러한 수연이가 어째선지 측은하게 여겨져 말없이 찬찬히 내려다보았다.

닭알형인 수연의 가름한 얼굴은 유별나게 긴 속눈썹 밑에 반나마 감춰진 크지 않은 눈때문에 더욱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나이찬 처녀들에게서 가끔 볼수 있는 그 무슨 시름같은것이 그의 얼굴에 비쳤는데 그 늙어린 두눈은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호소하는것 같기도 했다.

(일이 몹시 고된 모양이군!)

조병조는 준비굴진세부탐사를 수연이가 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거야 좋은 일이지. 땀이 스민 일터가 아니요.》

그 말에 수연은 호-하고 한숨을 내긋는다.

조병조는 머리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는 수연을 이윽히 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수연동무, 여기 세부탐사를 동무가 했는지?》

《그래요.》

《그럼 잘 알겠구만. 이 위험태말을 없앨순 없소.》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자책어린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쩌겠어요. 물이 흐른다니까... 제가 탐사를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물은게 아니요.》

조병조는 자기 물음을 다르게 받아들인 수연의 피로움에 찬 대답에 저으기 당황했다.

그러면서도 이 순간 처녀에게 값싼 위안으로 루루이 변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 갯문제는 전적으로 동무에게 책임이 있단말인가?》

《전 정말 굴을 뚫느라고 수고한 굴진공동무들을 생각하면 죄를 진것만 같아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어요.》

조병조는 생각이 깊어졌다.

수연이가 이렇게 느끼는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는 굴을 폐경한걸 생각하면 밥맛이 다 없어진다고 하면서 구봉산하리를 몽청 잘라버리고라도 탄발을 살려내자고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겠다는 한 굴진공아바이에 대한 이야기를 며칠전에도 들었다.

탄부들은 25 중단구역에서 밀진 탄을 봉창하겠다고 교대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자리뜰념을 얹고 일손을 계속 잡고있었다.

《이제라도 물줄기를 돌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수연은 말끝을 채 마무리지 못하고 아래입술을 꼭 깨물었다.

《너무 마음쓰지 말라구.》

조병조는 공연한 말을 꺼냈다가 그의 아픈 마음만 헤쳐놓은것 같아 속이 알찌근하였다.

《그리고 몸을 돌보면서 일하라구.》

《예.》

수연은 잦아드는 소리로 대답하고 돌아섰다.

산기슭을 따라 힘없이 걸어내려가는 수연의 뒤모습을 지켜보는 조병조의 눈길에도 그늘이 졌다.

(무슨 곡절이 있는게 분명하군.)

조병조가 사무실에 내려왔을 때 민창식이가 수첩을 들고 들어왔다.

《지배인동지, 조금전에 관리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합니까?》

그는 일단 사업에 들어가면 민창식에게도 레외를 지켜 경어를 썼다

《2.4 분기 석탄생산을 다그쳐야겠다고 독촉이 불갑습니다.》

《그래 뭐라고 대답했소?》

조병조는 담배그루를 박으며 넌지시 물었다.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 않고야 체면이 섭니까.》

《체면소리는 하지 마시오.》

조병조는 지질도가 걸려있는 벽쪽으로 걸어갔다.

《이 탄발은 살려낼 가망이 없을가?》

조병조는 붉은 줄을 그어놓은 25 중단구역을 연필머리로 또닥또닥 두드리며 민창식을 돌아보았다.

《갱이야 관리국의 기술감정까지 받은것이 아닙니까.》

《그건 나도 아오.》

그러나 민창식의 주장은 강경했다. 그는 갱을 폐경한데 대하여 지금에 와서 누구도 책임을 물을사람도 없거니와 또 탄발을 살리자면 물줄기를 돌리던가 해야 할텐데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조병조가 그의 말허리를 잘랐다.

《기사장동무는 이 물줄기때문에 안타까와하는 사람이 있다는건 알고있소?》

누구를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 민창식이 모르지 않았다.

며칠전에 있는 생산협의회때도 수연이가 25 중단구역에 세부탐사를 다시 하고 준비굴진을 한번 더 해보든가 아니면 물줄기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든가 무슨 대책을 세우자고 제기했던것이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저의 립장만 딱하게 만듭니다.》

민창식은 피로운듯 모두었던 숨을 툴아올리며 자세를 바로세웠다.

조병조는 방안을 뚜걱뚜걱 거닐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난 물줄기때문에 안타까와하는 수연동무에게 동정이 가거던.》

《그거야 무엇이냐 다 좋게만 보려는 지배인동

무의 너그러운 마음때문이겠지요.》

민창식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수연이편에만 서려는 지배인의 견해가 섭섭하기도 했다.

승산이 있는 둔제라면 자기가 왜 여직껏 그냥 미루어왔겠는가?

민창식의 말에 조병조의 미간에 주름이 생겼다.

민창식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유감스러움을 느낀것이다.

만약 그가 노동자들의 땀들린 수고와 그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물줄기는 어쩔수 없다손치더라도 그것때문에 안타까와하는 수연이의 마음에야 지지와 동정을 가지고 대해줄수 있지 않는가. 이사람의 마음에 때이르게 좀이 핀것이나 아닌가.

민창식의 잔등을 떠밀어 합숙으로 들여보낸후에도 조병조는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다시 하나하나 되새겨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갱을 폐갱해버린데 대한 민창식의 관조적인 태도, 김수연의 안타까운 모대김, 탄부들의 절절한 호소, 이 보이지 않는 물줄기를 둘러싸고 각이하게 흐르고있는 마음의 줄기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것일까?)

병조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물줄기처럼 종잡을 수 없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다.

갑자기 할일이 많아진것 같았다.

조병조는 어깨를 누르는 짐의 무게를 다시금 절박하게 느끼었다.

3

어튠날 조병조는 간데라불을 켜들고 25 중단구역 기본굴전갱안으로 들어갔다.

《꽝 푸르르 쭉쭉!》

물둥이를 두드리는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습하고 뽕뽕한 굴안을 장단맞게 울린다.

천정에서는 석수가 끊임없이 떨어졌다.

일매지게 들어세운 동발목에서는 아직도 생생한 송진내가 진하게 풍기였다.

갑자기 찬공기가 온몸에 스며든다.

굴이 깊어진것이다.

조병조는 질척거리는 갱바닥을 조심스럽게 골라짚으며 막장안으로 바짝 들어갔다.

옷은 벌써 화락하니 젖어버렸다.

그는 간데라불을 높이 들고 막장안 여기저기를 살피었다.

검은 탄발이 불빛을 받아 번쩍거린다.

병조에게 그것이 한갓 탄덩이로만 보이지 않았다. 탄부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보석처럼 빛을 뿌리는것 같다.

그는 무릎을 꿇고앉아 한쪽 귀를 땅바닥에 바투 갖다대었다. 그리고는 환자의 맥박을 가늠하는 의사마냥 온 신경을 물소리에 집중시켰다.

웅글고 소란한 물소리는 마치 부정맥이 뛰는것처럼 고막을 툭툭 울리었다.

(도대체 어느쪽에서 흘러오는 물줄기인가?)

각이한 음향을 싣고 부단히 귀전에 메아리쳐오는 물소리를 듣고는 그 방향을 도저히 알수가 없었다.

마음이 허전했다.

조병조는 힘겹게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그는 울퉁불퉁한 갱바닥을 맥없이 더듬으며 파아란 하늘이 돈있만하게 내다보이는 갱입구를 목표를 하고 터벅터벅 걸었다.

갑자기 갱입구가 떡 막히고 굴안은 칙흑같은 어둠속에 잠긴다.

밖에서 불어들어오는 찬바람에 불마저 꺼졌다. 병조는 눈을 비비고 손더듬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캄캄하게 막혔던 갱입구가 차츰 열리면서 어둠던 공간이 희미하게 살아난다.

갱안으로 웬 사람이 들어오고있었다.

《누구요?》

천정을 찌르릉 울리는 병조의 웅글은 목소리에 여무지게 울리는 목소리가 화답했다.

《접니다. 수연입니다.》

《무슨 일이요?》

《아이, 지배인동지군요.》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소리를 다시 들어보려고 들어오던 수연은 뜻밖에 지배인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동문 여기로 왜 들어오오. 들어오지 말고 나가오.》

《지배인동지는요?》

《나도 나가겠소.》

조금후에 그들은 굴밖에 나와있었다.

해질녘이어서 바깥날씨는 제법 쌀쌀하였다.

담배 한대를 불어문 조병조는 측량기를 멘채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배기에 나선 수연을 넋지시 살폈다.

요즈음 수연이에겐 무슨 일이 있는것 같았다.

피곤 실린 눈으로 갱구를 보는 수연의 모습은 본래의 그 단정하고 정갈하던 모습이 아니고 어딘가 구김살있는 판너자인듯했다.

확실히 그는 물줄기 하나때문에만 고민하는것이 아닌것 같다.

조병조는 수연이결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어디 말해보라구.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긴게 아니요.》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수연은 빨랑빨랑 상기된 얼굴을 싸쥐고 언덕밑으로 잉그르르 달려내려가더니 느티나무가 서있는 천연바위돌우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래 기사장이 뭐라고 하던가?》

수연은 지배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울리자 무뎠던 아버지에게 그간에 쌓였던 피로움을 설분하는 어린 소녀처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숨겨오던 민창식이와의 관계를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였다.

2년전, 그러니까 민창식이 기사장으로 되던 그해 가을이었다.

민창식과 김수연은 일하면서 리해가 두터워져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자기들의 관계를 것처럼 멀어지게 할줄은 수연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어느날 김수연은 구봉갱 3마구리에 갔다가 아직 더 캐먹을수 있는 옅은총탄맥을 발견하였다.

수연은 중대장들과 소대장들에게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먼 후날까지도 영영 땅속에 묻힌채로 남아있게 되지 않는가 안타까이 말하였다.

중대장들과 소대장들은 수연이의 그 질책앞에서 시뻘해있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것인지 전연 모르고있는 수연은 중대장들이나 소대장들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피하는것을 별로 이상스레 보지 않았다.

이날 민창식이가 매우 언짢은 기분으로 수연을 찾아가 만났다.

《동문 그래 짬버력이 섞인걸 눈으로 못봤소?》

구봉갱 책임기사로 있을 때 이미 눈감고 넘어온 그 옅은총탄맥은 벌써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 밖에 있는지 오래다. 그런데 다름아닌 바로 수연이가 그것을 새삼스레 들춰내는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오늘 다시 확인해보았는데 짬버력은 실지 얼마 안돼요.》

《어쨌든 옅은총탄은 규정된 한도만큼 내놓은거요》

《그렇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탄층은 더 두터워졌어요. 눈에 잘 띄우지 않아 그렇지...》

《동무는 사람들앞에서 이 민창식을 깨깨 망신시키지 못해 무뎠히 안달아하는군.》

울컥해진 민창식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망탕 내쏘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오. 그 탄을 남긴건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아니요.》

민창식은 문을 팡 닫아버리고 밖으로 썰하니 달려나갔다.

이때부터 언제나 남모르는 련정속에 즐거운 생활과 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놀뛰던 두사람의 심장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민창식은 수연을 남과 같이 그저 실무적으로만 대하였지 마음속의 피로움은 전혀 내비치지 않

았다.

어쩔수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업상교제시에도 그는 언제나 공적으로만 대했지 지나간 우정을 다시 회복할 의향은 조금도 표명하지 않았다.

민창식은 자기 마음의 공허를 일로 메꾸려고 애썼고 수연에게 점차 뻥뻥한 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수연은 비로소 한 인간의 마음을 다 리해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았다.

량심에 저촉되지 않게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런 공명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기의 성실성을 근면하게 바치는 사람이라고 련모해온 수연은 민창식의 그 비량심에 자기의 순결을 말기고 싶지 않았다.

이러다 공연히 아까운 처녀시절만 속절없이 흘러보내지 않을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사실 김수연은 그런 일이 있은후 처음에 민창식이가 자기결에서 영영 물러나는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남몰래 달래며 사람들이 없는곳에서 혼자 울기도 하였다.

하면서도 김수연은 민창식이가 본래의 자기로 돌아오기를 참을성있게 기다렸다.

그러나 민창식의 마음은 멀리 가있었다...

김수연은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측량기를 품에 꼭 그러안으며 엄지손가락으로 눈언저리를 몰래 짚어낸다.

《음-》

조병조는 가슴속에 치밀어오르는 련민의 정을 몽클하게 느끼며 황혼이 짙어가는 먼 산밭을 향방없이 더듬었다.

《동무는 기사장을 더 가까이 대해줘야 했는걸. 그도 어느때 가서는 동무의 마음을 리해해줄게 아닌가!》

저녁빛이 짙게 드리운 깊은 골짜기에 어둠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하였다. 새들이 보금자리를 찾는지 잡관목이 들성들성한 산비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귀를 간지럽힌다.

《전 순종할수 없었어요.》

《그야 순종이 아니지. 리성이 가리키는 마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조병조는 사랑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떼땀이 보존하려는 수연의 그 청렴한 마음만은 곱게 여겨주고싶었다.

《그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예요. 인젠 다 잊은가봐요.》

무엇이 아니고 무엇을 잊었던말인가? 여하튼 가슴이 아팠다. 조병조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쓰라린 진통을 체험하고있었다.

민창식이가 아까운 탄을 땅속엔 묻어두고도 기술감정만 내세우면서 가슴아파하지 않는것이 바

로 수연이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의 연장인듯도 했다. 그가 언제부터 나라의 채부를 아끼지 않고 랑심을 아무렇게나 뽕간질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간으로 되었는데.

확실히 그는 사람을 잘못 키웠다.

진짜 탄부가 되자면 담을 키우고 기술을 높여야 한다고는 했지만 가장 귀중한것 즉 심장을 뜨겁게 달궜주지 못했다.

모든것은 자기에게 잘못이 있었다.

조병조는 지금껏 민창식으로 해서 느껴오던 궁지속에 오늘처럼 자신을 뼈아프게 돌이켜보는 일이 생기기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찾고있던 물줄기가 무엇이었던가를 깊이 깨달은듯싶었다.

민창식의 마음속에 탄광으로 흐르는 물줄기도 바로잡아야 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탄맥을 찾는 탐측기사와 그것을 캐내기 위한 직접적인 조직자인 기사장, 이 두 동반자를 하나의 흐름속에 합류시키는것도 간과할수 없는 문제였다.

병조의 높뛰는 심장은 어서 빨리 쓸모없이 흐르던 물줄기를 제꺾으로 흐르게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며 쿵쿵 울리었다.

그는 한편으론 생산과 탄발조성을 힘있게 내밀면서 구봉산 험준한 골안을 메주뵈듯하면 물줄기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민창식은 그러한 지배인이 오히려 측은하게까지 여겨져 어느날 축축히 젖은 바지가팽이를 펄럭거리며 갭에서 내려오는 조병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배인동지, 공연한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공연한 수고라고...》

병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떨렸다.

민창식은 더 대꾸를 못했다.

조병조는 답답한 가슴을 무겁게 눅갓지며 민창식사와 헤어졌다. 아직 물줄기를 못찾았으니 그저 안타까울뿐이었다.

4

조병조는 오늘 낮에 구봉천골안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어제밤 김수연은 물줄기를 찾느라고 그렇게도 애쓰던 조병조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는 조그마한 돌 세계를 가지고 찾아왔었다. 팔알만한 그 돌인즉은 혁신갱양수기에서 뿔아낸것인데 구봉천에 깔린 자갈과 색깔이 똑같다는것이다. 그래서 수연은 구봉마를 장로인을 만나보고 오는길인데 그의 말에 의하면 그전엔 구봉천으로 물이 흘렀다느는것이다.

《장마때가 아니래두 물이 흘렀단말이지?》

조병조는 환성을 올릴것처럼 기뻐했다.

짐작이 맞은것이다. 그는 요즈음 구봉천물줄기가 혹시 달라진것이 아닌가고 생각했던것이다.

그길로 조병조는 장로인을 찾아가 수연이가 전해준 이야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지금 조병조는 수연이가 준 그 돌을 주머니속에서 대굴대굴 굴리며 걷고있었다.

장로인이 젊었을 때 웅노를 차고 오르내렸다는 오솔길마저 풀속에 다 묻혀버려 길이 아주 험했다.

그는 해묵은 나무가지와 풀대들을 힘들게 헤쳐나갔다. 말로는 가고오는 길이 40 리안팎이라지만 한시간을 내쳐 걸었는데도 절반을 줄인것 같지 않았다.

땅우에서는 더운 김이 문문 피어오른다.

시큼털털하고 삼삼하기도 한 산촌의 특유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도 한다.

조병조는 강바닥으로 내려섰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세찬 물결에 씻기며 다듬어졌을 크고작은 돌들이 덤불속에 숨박꼭질을 하듯 널려있다.

골이 깊어질수록 하늘을 찌를듯 길길이 솟은 활엽수들이 뻗뻗이 들어선 산골짜기에 서늘한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

조병조는 귀를 기울였다. 노랑고 빨강고 알락달락한 온갖 새들의 무수한 지저귐속에서 좌-하는 웅글은 소리가 첼로소리처럼 무게있게 들려왔다. 그 점잖은 소리는 구봉산 골짜기의 태고연한 정적을 흔들며 머나먼 지심속에서 흘러나오는것 같기도 했다.

《물이구나!》

조병조는 갈증에 시달린 사람이 샘물을 만났을 때처럼 앞으로 막 달려나갔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던 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되는데로 뒤엎킨 풀대들을 와락와락 헤치고 모래와 자갈을 퍼내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번, 웅덩이가 마다 옹그러면 강바닥을 파내느라니 손끝이 다 얹아지고 알알해났다. 그는 파기를 그만두고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땀을 식히었다. 그러나 담배 한모금을 맛스레 할 여유도 없었다.

유흥의 물소리가 또 귀전에 메아리친다.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난 그는 다시 가시밭을 헤치기 시작하였다.

골짜지를 따라 얼마를 못올라갔는데 파란 물이 넘실거리는 작은 못 하나가 나졌다. 조병조는 환성을 내지르며 나무가지에 얼굴이 굽히는줄도 모르고 덤불속을 헤쳐나갔다. 그 바람에 목을 추기려 내려왔던 복작노루 한마리가 경충거리며 새초발속으로 내뛰었다.

조병조는 물위에 드리운 설핏한 단풍나무가지를 헤치고 두손을 물속에 깊숙이 잠그었다. 손을 오그려 차고 시원한 물을 떠서 몇도금 마시었다. 화끈 달았던 속이 금시 얼어드는것 같다.

인기척에 놀란 산천어들이 해빛에 번쩍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럴 때마다 칠색의 평롱한 무지개가 물위에 아롱아롱 떠오른다. 마치 판세상에 온듯한 이 산촌의 정서, 거기에 온 심혼을 빼앗기고 앉아있노라니 온갖 생각들이 물결위에 부서진다.

유년기와 소년기를 조국이 없는 설움속에 짓밟혔던 조병조는 그것이 어찌하여 제것이 못되고 남에게 빼앗겼는지, 왜 우리 조상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후대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지 못했는지 마음속에 새겨보곤하였다.

해방후 행복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결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두고 공상하기를 즐겨했으며 자기도 무엇인가 은혜로운 조국을 위해 해놓은것이 있어야 한다는 공민적의무감을 자각하였다.

그는 근면하고 량심적인 인간들, 성실하게 조국땅을 가꾸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그는 노력하지 않고 인민이 이루어놓은 소중한 열매를 거리낌없이 축내는 건달군들과 나라의 재산을 아까운줄 모르고 망탕 뜯어먹는 탐오분자, 리기주의자들을 증오했다.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성실할래도 성실할데가 없었고 량심을 바칠 희망의 언덕이 없었던 지난날에야 그것이 무슨 상관이였으랴.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판판 다르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충성을 바치고싶은 은혜로운 품이 있으며 그 품속에서 인간의 값은 보석처럼 빛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대를 이어 충성할 이 근본적인 흐름에 모든 량심의 물줄기들과 마음의 줄기들은 합류되어야 하며 거기엔 한점의 티도 있어서는 안되는것이다.

그의 손엔 어느덧 하얀 차돌 하나가 쥐여져있었다. 물속에서 말끔히 씻겨진 동그란 차돌은 무던히 정갈하고 깨끗했다.

조병조의 눈앞엔 김수연의 가쁜한 얼굴이 떠오른다. 그것은 다시 민창식의 고집스러운 얼굴로 엮 바뀌어 떠오른다.

그는 풀잎을 한줄 뜯어 물위에 짹 뿌리었다.

눈앞에 그러졌던 두사람의 얼굴은 금시 사라지고 풀잎들만 물결위에서 맴돌이친다. 그것들은 다시 선자리에서 뒤고패 돌다가 천천히 기슭의 한곳으로 밀려난다.

그 모양에 무릎을 탁 치고 일어선 조병조는 얼른 두팔을 벌리고 남쪽을 향해 돌아섰다. 탄광이 자리잡은 방향과 물꼬리가 사라진 방향은 신통히 같았다. 물줄기는 여기서 습새어들어간게 분명했다.

조병조는 저물녘에야 골짜기에서 내려왔다.

굴진갱과 구봉갱사무실에 들려 오늘 하루 진행

한 굴진실적과 석탄생산정형을 알아보고 기사장방으로 가니 방안엔 불이 환히 켜져있었다.

손잡이를 돌리려던 조병조는 그만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무춤 서버렸다.

유리창엔 두사람의 그림자가 얼른거렸다.

《지질도를 가지고 왔소?》

《…………》

《그러면 이걸 받소.》

민창식의 목소리는 끊지 않게 들렸다.

이어 의자 빼격거리는 소리와 함께 종이 퍼는 소리가 동시에 들린다.

《적소. 우선 종이위에 수평직선을 긋고 거기서 50 센치쯤 올라가 임의의 점 하나를 찍소. 그게 구봉산의 해발고요. 중심선에서 다시 7 센치정도 올라가 점 하나를 더 치오. 그 1지점이 25중단구역 굴진갱 밑바닥이요.》

조병조는 지금 민창식의 말에 따라 락도를 그리는데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론쟁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민창식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었다.

《저쪽에 해발 91 메터지점에 한점 더 찍소. 그 점이 지금 지배인동무가 갔다는 구봉천샘터요. 1과 2를 련결하는 선을 길게 내국소.》

방안은 잠시 조용해진다.

《어떻소? 1지점이 931보다 높소 낮소?》

민창식은 구봉땅의 지형을 손금보듯한다고 자기를 늘 자랑하는 사람이였다.

《…?》

대답이 없다.

《수연동무, 물이야 총구를 떠난 탄알처럼 탄도고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흐를수야 없지 않소. 위에서 밀으로, 말하자면 제궤을 따라 흐르기마련이란말이요. 그런데 동무는 자꾸 고집이거던.》

《아니예요. 구봉천샘터가 결코 굴진갱막장보다 낮을수 없어요.》

비로소 김수연의 침착한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렸다.

《무슨 근거로?》

《굴진갱막장은 0 점(해발)으로부터 900을 올라가지 못한 위치에 있어요.》

《…………》

반박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걸 보아 아마 짐작으로 타산해본 자기의 견해로는 상대방의 론거를 누를수 없는 모양이다.

조병조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무슨 토론들이요?》

지배인을 피곳 돌아본 민창식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빛은 여전히 표표한 기상이다.

창문결에 오도카니 서있는 수연의 얼굴도 추위에 얼어든것처럼 질려있었다.

조병조는 잠시 두사람 사이에 오고가는 미묘한

감정을 일별하고나서 방금 수연이 그려놓은 락도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남의 말을 엿들어서 안됐소만 내 생각에두 수연동무의 의견이 옳은것 같소. 물줄기는 구봉산 허리를 꺾지르며 이렇게 흘러간것이 분명하오.》

조병조는 락도우에 덧금을 휘우듬하게 내그으며 민창식의 얼굴을 슬쩍 살피었다. 민창식은 아무 반응이 없다. 아니 지금 그는 물줄기를 찾아 구봉천으로 올라갔던 지배인이 불쑥 나타나 수연을 지지해주자 당황했다.

조병조는 연필머리로 책상모서리를 툭툭 두드리며 수연이에게 눈짓을 했다.

수연이가 나간후 조병조는 의자를 당겨놓고 기사장과 마주앉았다.

《어디 말해보오. 물줄기 찾는 일에 뛰어들지 못할망정에 무작정 뒤편을 놓소?》

조병조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창식의 얼굴에 쏘아진다.

《뒤편을 놓다니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연동무 땅속에 흐르는 물이 구봉천에서 숨새여들 어간것이라면 물길공사를 해서 그것을 돌리자고 하는데 그 거창한 작업량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조병조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방대한 로력과 자재,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석탄생산이 문제지요.》

조병조는 지금 기사장이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것을 제격 눈치챘다.

《솔직히 말해보오. 정말 자재나 로력, 석탄생산이 걱정돼서 그러오?》

《전 생산을 책임진...》

《그러니 기업소책임자인 나는 생산엔 무관심한 사람인셈이겠소?》

병조의 낮빛은 한층 더 흐려지고 부드럽던 눈길에 돌연 엄하게 변독이었다.

《동문 언제부터 거짓말하는 법까지 배웠소. 난 동무의 가슴속에 그렇게 흙탕물이 흐르고있을줄은 정말 몰랐구만.》

방안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있었다.

벽시계만이 툭툭거리며 방안의 공기를 조심스럽게 흔들어놓는다.

이때껏 남에게 뱀뺨 말을 별반 해본적없는 병조이지만 오늘은 참아내지를 못하는것 같다.

민창식에겐 조병조의 말이 비수로 흉부를 찌르는것처럼 아프게 들리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렇게 아픈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병조의 가슴은 몇배 더 쓰리고 아프다는것을 민창식은 지금 모르고있었다.

민창식은 피롭게 숨을 툴아올렸다.

어느때같으면 자기를 변명하며 도전이라도 했으련만 지금은 그럴만한 정신적여유와 배짱이 조금도 없었다.

그의 총명해보이는 도두룩한 이마에 고뇌의 빛이 력력하다.

조병조는 뒤집을 지고 일어서서 빙안을 왔다갔다하다가 창문쪽으로 걸어가 불빛이 환한 탄광마을을 이윽히 내다본다.

《동문 아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하면 전혀 접수되지 않을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 판것이겠소. 노동자들이 흘린 땀을 헛되게 하지 않고 땅속에 묻힌 탄을 어떻게 하나 살려내자구 애쓰는 그런 마음이 곧 나라를 사랑하구 이 땅의 재부를 아끼는 마음이지,》

그래 동무는 수연동무가 무엇때문에 고민하며 입술이 다 부르터서 다니는지 모르고있단말이요? 어디 말해보오.》

조병조의 격한 음성은 여전히 떨리고있었다.

그는 창문을 등지고 뒤로 돌아섰다.

민창식은 병조의 엄한 눈길과 마주치자 그 눈길을 피하여 가까스로 앉은자세를 고치였다.

《그 동무야 나한테 결이나 줘니까.》

《그런 소리 마오. 누가 할 소리를 누가... 동무는 수연동무의 심정을 얼마나 알아주려고 했소? 스스로 찾아와서 사과하기를 기다리기만 했지. 그런데 그 동무가 동무한테 무슨 사과할게 있단말이요. 동무 심장이 얼음으로, 돌로 되었기에 남의 심장의 불길을, 그 고민과 열정을 알수 없는 것이지.》

조병조는 탄속에 섞인 짬버럭처럼 깨닫지 못한 비량심적인 행동에 신성한 우정을 용해시키지 않은 수연이의 곧은 마음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말하려다가 너무 지나칠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까뵈하지 않았다.

민창식이 병조의 그 속심을 모를리 없었다.

자기 둘만이 알고있는 문제를 언제 벌써 알아가지고 이처럼 정통을 찌르고있는가.

《그러니 어떻게 노동자들의 땀흘린 수고를 아껴 줄수 있으며 수연이의 마음을 리해할수 있겠소.》

난 요전에 굴진경에 올라갔다가 25 중단구역에서 잃은 탄을 봉창하겠다고 애를 쓰는 굴진공동무들을 보고 눈곱이 뜨거워나는걸 겨우 참아냈소.》

병조의 절절한 목소리는 민창식의 가슴을 뜨끔 뜨끔 찔러놓았다.

침묵을 지킨채 덩덩히 앉아있는 민창식의 얼굴을 더듬는 조병조의 진지한 눈빛은 어느덧 부드럽게 풀리고 그 특징적인 너부죽한 얼굴엔 아래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너그러움이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뜨거워야 하오. 뜨거운 심장을 지녀야 하오. 우리의 동지들에 대해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지어 탄에 이르기까지말이요. 그렇게 되면 수연동무앞에 쌓아놓은 성벽도 허물어질것이요.》

민창식은 어깨를 푹 낮추고 얼어붙은듯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다.

이윽고 조병조는 민창식의 무릎을 짹 쥐었다놓으며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조용히 말하였다.

민창식은 좀처럼 일어설념을 안했다.

조병조는 그가 혼자 있고싶어한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슬며시 문을 열고 나갔다.

지배인이 나간 다음에도 오래도록 한자리에 앉아있던 민창식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온몸은 나른하고 마음은 허전했다.

(아,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였는가.)

그래도 이때까지는 자기가 한번도 잘못 살고있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는 민창식이였다.

자신에 대한 모멸의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다.

왜서인지 이 순간 수연이가 어디 가서 울고있는듯한 환각이 일었다.

5

그들은 소금을 한가마니씩 지고 구봉산골안으로 향하였다.

조병조지배인은 앞에서 오솔길을 씩씩 헤쳐나갔다.

40 키로나 되는 소금가마니를 지고도 걸음이 아주 흥그롭다. 풀대와 나무사이를 빠져나가는걸 보면 포수처럼 날래기도 했다. 쇠고개를 넘어서는 사람이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울만치 몸동작이 가볍다.

그러한 지배인을 따라가자니 민창식은 여간만 벅차지 않았다.

벌써 량볼로는 땀줄기가 팔팔 흘러내린다.

조병조는 자주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나무가지들 옆으로 휘어져끼면서 민창식의 앞을 휘위주군하였다.

그들은 나무그늘밑에 집을 내려놓고 한참 다리쉽을 한다음 다시 걸었다.

《힘들지만 조금 더 참읍시다. 우리가 안오면 여차피 누구든 걸어야 할 길이니.》

이윽고 물꼬리가 사라진 그 《옥계수》에 도착한 그들은 넘적한 바위돌우에 소금가마니를 내려놓고 땀을 들이였다.

조병조는 얼른 일어서서 팔을 걷어올리고 물속에서 모래 한줌을 퍼올렸다.

《이걸 좀 보우》

그는 주머니를 뒤지여 언제 수연이한테 받은 파란 돌 세개를 꺼내놓으며 민창식을 바라본다.

민창식은 지배인의 그 진지한 시선을 똑바로 대할수가 없었다.

모래알의 색깔이 너무도 똑같았기때문이다. 민창식은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그는 말없이 가마니를 풀어헤치고 소금을 한줌 퍼내었다.

이제 소금을 풀어넣은후 25 중단구역의 물맛에서 짠기가 있으면 이 물이 그 원천으로 된것임을

알수 있고 그때면 물줄기를 돌리면 되는것이다.

《가만.》

조병조는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소리치며 민창식의 팔을 붙든다. 소금물을 먹으면 산천어들이 죽을수 있으니 준비를 좀 한후에 일을 하자는 것이다.

조병조는 물이 흘러내리는 옷목으로 달려올라가 미리 준비해가지고온 번데기가루를 뿌리고 내려와서 손뼉을 치며 고기들을 몰아올렸다.

민창식은 또 한방망이 얼어맞은 때처럼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산촌에서 사는 고기새끼에 대해서도 저렇듯 극성스럽게 아끼는 지배인에 비하면 자기는 얼마나 보잘것없이 멀리 떨어져있는 존재인가하는 생각이 가슴을 친다.

그들이 소금을 풀어넣는동안 저쪽 평퍼짐한 풀밭에선 연기가 물물 피어올랐다.

뒤따라온 수연은 벌써 돌가마를 걸어놓고 불을 때고있었다.

아까 마을을 떠날 때 상점앞에서 서성거리고있는 수연을 무심히 스쳐버렸던 민창식은 깜짝 놀랐다.

이제는 모든것이 명백하였다.

지배인이 자기를 기어코 여기로 데리고 온것은 단지 소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만이 아니였다.

민창식은 수연을 처음 알았을 때처럼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쳐오름을 느꼈다.

소금을 다 녹여내는데는 퍼그나 시간이 걸려야 했다.

그동안 김수연은 푸짐한 점심을 차리였다. 지배인의 안해가 정성껏 싸준 송편도 풀어놓고 목이 긴것도 차렷자세를 하고 섰다. 콩나물, 도라지, 말린새우, 가마에선 산골에 흔치 않은 송어국이 끓고, 없는것이 없다.

수연이는 같이 앉아 점심을 먹자고 조병조가 몇번을 재촉해도 종시 말을 안듣고 가마앞에 쪼그리고앉아 움직이지 않는다. 이쪽엔 웬일인지 얼굴도 한번 안돌린다.

민창식은 덤덤히 앉아 수저만 놀린다.

조병조가 자꾸 두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었다.

《왜 한마디 말이 없나? 수연동무는 그래도 동무를 생각해서 이런것을 다 마련해가지고 왔는데 자넨 여전히 철문이네그래.》

그래도 민창식은 아무 반응도 없다. 그저 머리를 수긋하고 저가락질만 한다.

그러한 민창식이에 대한 야속스러운 마음을 아직도 가라앉힐수 없었던지 아니면 지배인의 말이 고맙게 들렸던지 수연의 두어깨는 잔파도일듯 가볍게 오르내리였다.

《수연동무, 왜 그러오?》

《아이, 이 연기.》

수연은 황황히 돌아앉으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나무가지들 물넋에 집어던진다.

아니다. 연기가 눈에 들어간다고 어깨까지 오르내리라.

《어린이가 되는 모양인가보군. 눈물을 다 흘리고-》

《아니예요. 그런것이 아니예요. 물줄기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생각하니 기뻐서 그래요.》

수연은 얼굴을 찌푸려 넉넉 일어서더니 팔짱기 아래로 바람처럼 내달린다.

《허허,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니 야단아니야.》

음식을 다 들고난 조병조는 주섬주섬 그릇을 모아 보에 싸놓고 담배 한대를 붙여뭍은 다음 그 자리에 벌렁 드러누웠다.

그의 너부죽한 얼굴에선 가볍게 한들거리는 나무잎의 그림자가 춤을 춘다.

민창식은 이름모를 풀들이 모닥모닥 서있는 맑은편 경사면에 눈길로 보낸채 내내 말이 없다.

물소리, 새소리만 들리는 소연한 끝안에 이처럼 말없이 앉아있노라니 어쩐지 서글픈 생각까지 들었다.

물론 그 서들픈 마음의 동요가 지금 비로소 생긴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물론 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까지도 아무런 부대조건 없이 오직 당적량심이 가리키는대로 탄부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모든 소중한것들을 흙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고 구슬처럼 빛을 뿌리게 하기 위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는 조병조지배인을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자기는 참마음을 지닌 인간이 아니었다.

뜨거운 심장을 안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도 생산을 책임진 기사장이라고.

기술감정을 받았으니 누구도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고? 유치하다.

뜨거운 심장을 품고있는 인간이 되라고, 땅속에 영영 묻힌 버럭이 되지 말라고 그처럼 안타까이 애써준 지배인과 수연의 마음을 그리도 몰라준 네가 무슨 사람이나?

민창식은 혼자 묻고 질책하며 자신을 호되게 매질했다.

이제는 가슴속에 흐르던 흙탕물을 깨끗이 가라앉히고 제표를 찾아 흐를 때가 되었다.

그렇수록 병조지배인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꾸트릉!》

굴진갱쪽에서 울리는 발파소리였다.

《한발과 잘 제끼는군. 저런 속도로 나가면 이 달안으로 탄발 하나는 또 문제없겠군.》

피로에 지친 몸을 땅에 고스란히 내맡긴채 눈덕을 내리깔고 조용히 누워있던 조병조가 혼자소

리처럼 중얼거린다.

《기사장동무는 어째 기분이 썩 좋지 않았되누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 무슨 생각을 했소?》

《나라의 지맥을 맡은 일꾼들의 일본새에 대해서, 뭐 별생각을 다하게 되는군요.》

《허허.》

걸으로는 웃고있지만 병조의 생각도 심중해진 다.

《나도 방금 그러루한것들을 생각하냈소. 사람이 순전히 자기본위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나라의 재산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혈한 방법으로 탄을 캔다면 그게 무슨 탄부의 량심이겠소. 우리는 길들지 않은 저 물줄기처럼 제멋대로 흘러가선 안되지.》

민창식은 저혼자 머리를 자주 끄덕인다.

이젠 어떤 말을 해도 아프지 않고 따뜻한 조언으로 접수되었다.

조병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앉으며 새소리가 들려오는 참나무밭에 귀를 기울인다. 온갖 새들의 기묘한 노래소리는 어디 먼 판생상에서 울려오는것처럼 그렇게 은은하고 심원한 정서를 불러왔다.

《들리오?》

《듣습니다.》

《정답게 들을줄 알아야 하오.》

언제 들어봐도 병조지배인은 대마르고 의미가 깊은 말만 하는것 같다.

조병조는 민창식의 손을 슬며시 끌어당겨 껍들어쥐었다.

《창식동무, 우리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자구. 이 땅에 흐르는 모든 물줄기는 다 티없이 맑고 깨끗할뿐아니라 제표으로 흘러야 하듯이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나가는 우리의 심장속엔 언제나 맑고 깨끗한 충성의 물줄기만 뜨겁게 굽인쳐야 한다는것을...》

《예, 사실 전...》

《됐소, 됐소.》

조병조는 민창식의 어깨를 철썩 갈기고 일어섰다.

그들은 산을 내렸다.

그릇보자기는 종시 민창식에게 배앗기고야말았다.

저녁녘에 그들은 25 중단구역 기본굴진갱안에 가 있었다. 막장에 들어간 조병조는 갱바닥에 습새여 올라온 물을 한사발 떠서 맛을 보았다. 허 끝이 짜르르했다. 불빛에 얼른거리는 그의 얼굴에 어린이 같은 미소가 피어난다.

조병조는 다른 웅덩이에 고인 물을 한사발 더 떠서 민창식에게 내밀었다. 물사발을 받아든 민창식의 손은 알릴듯말듯 떨린다.

그는 물맛을 볼 때 자기의 얼굴이 찡그려지거나
않겠는지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혀끝을 가져다
댔다.

흠네가 나는 물은 짹짹했다.

《어떻소?》

조병조가 의미있는 시선으로 묻는다.

민창식은 대답을 못한다. 아니 무슨 대답을 할
지 할말이 인차 떠오르지 않는다.

굴에서 나오니 벌써 날은 어둑어둑해왔다.

그러나 민창식의 눈엔 갱입구에 아직도 서있는
위험패말이 똑똑히 보였다.

그는 더 오랜 생각할새없이 패말을 뿔아 멀리
내던지고 가시철망을 걸어내었다.

《늦었습니다.》

패말을 늦게 뿔었다는 의미에서만 한 말이 아
니었다.

조병조지배인이 자기곁으로 좀 더 일찍 왔더라
도 물줄기는 훨씬 전에 돌릴수 있었다는것을 녀
두에 두고 한 자책의 말이기도 하였다.

고마왔다. 병조지배인이 고마왔다.

민창식은 지금에 와서야 떨어져있을 땐 왜 그
가 늘 그리웠고 지배인으로 내려왔을 땐 어째서

그처럼 마음 든든했는지 절실하게 체험하는것이
였다.

그리고보면 조병조지배인은 민창식이 자기를
위해서 우정 여기로온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
였다.

어느덧 산기슭에는 땅거미가 깃들었다.

그들은 구봉천으로 다시 물줄기를 돌리기 위
한 강바닥공사에 대하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
며 언덕을 내려왔다.

《오늘저녁엔 수연동무를 꼭 만나오.》

조병조는 의미있는 미소를 지었다.

민창식에도 시무룩이 따라웃었다.

《뭘 차츰... 늘 만나겠는데요.》

《또 고집이군, 허허... 하긴 곡절속에 맺어진
사랑일수록 더 뜨거운 법이지. 후엔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거요.》

지금 조병조의 마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민창식에도 돌아오고 수연이도 돌아오고 그들
의 마음도 모두 제값을 찾아 흐르고있으니 이제
그에게 남은것은 두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것
뿐이었다.

수필

나의 기관단총

문재건

사진이란 찍을 때는 몰라도 찍어두면 그 사진
을 놓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된다.

내앞에는 지금 그러한 한장의 사진이 놓여있
다.

반토굴집앞에서 한개분대가 무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다.

가운데는 분대장, 그옆에는 부분대장 그리고
분대전우들이 좌우에 섰다.

누빈 숨저고리에 숨모자를 쓴 애젊은 병사들.

나는 기관단총을 《앞에총》한 자세로 분대장옆
에 한발을 굽히고 꿰어앉아있다.

마치 이제라도 구령이 내리면 앞으로 달려나갈
듯이 ...

이 사진은 1951년 12월 우리 부대가 전선에서
배변변경하여 휴식에 들어가면서 찍은것이다.

이 사진을 찍기 보름전만 하여도 우리는 485.3
고지에서 피어린 싸움을 벌리고있었다.

내 가슴에 안겨졌던 그 기관단총은 원쑤에겐
무자비한 죽음을 주었고 나에게겐 강의한 의지와
위훈으로 불러준 돌도 없는 친근한 벗이었다.

나는 그 총을 붙어잡고 전쟁의 불비속을 헤쳐
왔으며 복무의 나날을 걸어왔었다.

지금도 나는 그 총을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어떤
불의의 시각에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조금도 당황
하지 않고 그것을 맞받아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긴장되고 동원된 래세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
다.》

세월은 흘렀어도 마음의 자세를 순간도 늦춰본
적 없는 그날과 더불어 언제나 함께 있는 그 무
기이다.

총번호 《000...》, 기관실뿔개 오른쪽의 팔알만
한 흠집, 세계의 파편자리를 숨씨있게 메꾼 총가
목-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는 이 총을 안고 가파
로운 오솔길과 벼랑을 뚫으며 행군의 머나먼 길
을 걸었고 맵짠 정이월의 전호속에서 이 총을 그
러안고 경계근무의 밤을 지새우곤하였다.

총번호를 힘차게 부르며 대렬검열을 받은적이
그 몇십번이였고 분대장의 무기검사를 받은적이
그 몇백번이었던가.

나의 생일날과 부모들의 생일날은 잊을수 있어

도 결코 잊을수 없는 나의 총번호. 나는 공민증을 받기도전에 나이를 늘구어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먼저 총을 받았다.

나는 조국이 준 이 총번호를 제일 먼저 외우며 이 총으로 원수를 어떻게 겨냥하며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웠다.

나는 작별하는 폭음속에서 군인선서를 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지기의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바칠 굳은 맹세를 다지며 이 총을 굳게 잡았다.

잊을수 없는 그 밤, 우리 중대는 적들이 차지한 485.3 고지를 습격하고 기본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차지한 계선을 강화할 중요한 임무를 맡고 돌격전으로 나갔다.

고지를 탈환하고 적이 첫 공격을 물리쳤을 때는 벌써 내가 가지고있던 총탄과 수류탄들을 거의 다 써버리고말았다.

배낭속에는 세발의 총탄과 두발의 수류탄밖에 없었다.

비장한 감정이 솟구치고있었다.

-마지막 총탄까지 써버린 다음 나는 수류탄을 안고 적들속에 뛰어들리라!-

이때 손에서 손으로 옮겨진 맹세문이 나에게와 닿았다.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이시여!

우리는 485.3 고지에서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 다바쳐 싸울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이 맹세문에 자기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그리고 품속에 간직하고다니던 입당청원서를 함께 보냈다.

무거운 정적이 전호속에 깃들고있었다.

저 멀리 끝없이 뻗어간 산발들엔 거창한 붉은 기폭을 펼쳐놓은듯이 석양이 붉게 물들고있었다.

드디어 적들의 검질긴 공격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기여오르는 적들을 쏘아보며 사격신호를 기다리고있었다.

적들은 우리가 철수했다고 생각했는지 고지 중턱에 올라와서는 허리를 펴고 달려올라오는 놈들도 있었다.

이때 드디어 사격신호가 울렸다.

나는 권총을 휘두르며 뒤에서 고아대는 적장교놈을 겨냥하여 단방에 쏘제겼다.

나는 수류탄 한개를 적들이 가까이 몰킨쪽에 힘껏 던졌다.

이제는 두발의 총탄과 한발의 수류탄밖에 없었

다.

그런데 갑자기 우익에서 요란한 만세의 함성과 함께 사태처럼 쏟아져내리는 우리 동무들이 있었다.

증원부대가 도착한것이다.

나는 전투가 끝난 다음 최후를 각오하며 아끼던 두발의 총탄을 소중히 품속에 간직하였다.

그 두발의 총탄은 내가 제대되어 부대를 떠나올 때 나의 기관단총을 인계받는 동무에게 기념으로 함께 넘겨주었다.

그 총탄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관단총과 함께 나와 운명을 같이 한 잊지 못한 귀중한 기념품이었다.

나는 485.3 고지전투에서 화선입당을 하였다 .

이리하여 나는 총번호와 함께 나의 당원증번호를 가지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당의 당원으로 되었다.

나는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님 품에 내가 자랐기에 준엄한 싸움의 날에 내가 무장을 잡고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을수 있었으며 또 공민의 영예도 빛내일수 있었으며 국가적인 큰 행사 때마다 메달과 훈장들을 가슴에 달고 영광의 광장에 나설수 있는것임을.

나의 가슴에 품고있는 당원증과 그리고 공민증, 번쩍이는 훈장과 메달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날의 나의 총번호를 생각한다. 그 총은 바로 나에게 로동계급의 눈을 띄워주고 계급의 량심을 지니게 하여주었으며 강의한 의지와 용감성과 견결성을 키워주고 나를 검열한 벗이었으며 마음의 거울이었음을-

오늘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다시 그 무장을 잡고 초소에 선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한순간도 자기가 총을 든 근위중사라는 그 자각을 잊은적이 없으며 또 잊을수도 없다.

지금도 나는 그 기관단총을 손에 잡고있는 심정이다. 침략자 미제가 또다시 우리를 감히 건드린다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부름따라 나는 지체없이 사랑하는 그 총을 틀어잡고 다시 원수를 죽치며 앞으로 나갈것이다.

어제도 그러했던것처럼 오늘도 래일도 나는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고 우리 로동계급의 땀으로 이루어진 혁명의 그 무장을 마음속에 튼튼히 잡고 살아갈것이다.

꽃은 해빛을 받아 핀다

-가사 《꽃》을 쓰기까지-

윤두근

꽃의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를 두고 해빛의 은혜로움을 생각하듯 한편의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 시가에 깃든 영광스러운 당의 기르침과 지도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생각한다.

이 땅에 울리는 그 어느 노래에 당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 있으면 이번에도 또다시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은 가사 《꽃》을 두고 말할 때 나의 마음은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으로 불타오른다.

그것은 바로 가사 《꽃》에 당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빛발을 받아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풍기는 《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가사를 잘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를 내용있게 잘 써야 합니다.》

1979년 9월 영광스러운 당에서는 우리 시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 형상적이며 철학적깊이가 있는 가사를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었다.

당의 가르침을 받는 영광을 지닌 나는 한번 마음먹고 써보고싶은 창작적욕망이 가슴에 불타올랐다.

그러나 막상 달라붙어보니 마음뿐이지 뜻대로 잘되지 않았다. 아무리 밤을 세우며 모대겨보았지만 써놓은 가사는 의도만 살아있을뿐 형상의 옷을 입지 못했었다.

원인은 가사를 형상적으로 철학적깊이가 있게 쓰라고 한 당의 뜻을 옳게 인식하지 못한데 있었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출근길에 나선 나는 아파트현관에서 피다가 시들은 국화꽃을 바깥에 담아가지고 층계를 내려오는 웃집할머니를 만났다.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 볼품없이 된것을 본 나는 저도모르게 《할머니, 그 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해빛을 보지 못해 이렇게 되지 않았소.》라고 대답하며 섭섭해하는것이였다.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치는 뜨거운

생각이 피폭 스쳤다.

(꽃이 해빛을 받지 못해 저렇게 시들듯이...)

해와 꽃! 그렇다. 이것이다. 해와 꽃과 같은 사이인 수령님과 인민의 일치를 노래하자.

나의 흥분은 자못 컸다.

지난시기 나는 다른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시에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수령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꽃에 비겨 노래하였다. 그러나 이때처럼 수령과 인민의 끊을수 없는 련계를 가슴뜨겁게 느껴본적은 없었다. 당장 마음속충격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될것 같았다.

나는 흥분이 가시기전에 단숨에 써놓았으나 형상적이며 철학적깊이가 있는 가사의 높이는 좀처럼 나의 《꽃》을 자기의 언덕에 올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당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하고 웃집할머니처럼 채 가꾸지 못한 나의 《꽃》을 버리고말았다.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범한 나의 나약성의 후과는 그후 다른 가사에 엄중하게 나타났다.

당 제 6 차대회경축공연작품 창작에서 직선적인 표현을 그대로 씬으로써 나는 당에 심려를 끼쳐드렸다.

우리는 당에 심려를 끼친 죄송함과 자책속에서 가사문학창작에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를 놓고 심각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사업을 보고받은 영광스러운 당에서는 또다시 가사는 형상적으로 써야 한다고 하면서 토론은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와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직선적인 표현을 써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서고 사상성이 있는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깨워주면서 들으면서 사색할수 있는 뜻이 깊은 가사들을 많이 창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우리는 자신들이 쓴 가사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를 대비해보면서 결함의 원인을 찾았다.

나는 이 과정에 가사를 형상적으로 철학적깊이가 있게 쓰라고 한 당의 가르침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당이 바라는 그

런 가사를 나도 써서 기쁨을 드리겠다는 마음속 결의를 굳게 다지고 버렸던 《꽃》을 다시 찾아 정성을 부어 가꾸기 시작하였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붓을 들기전에 《꽃》을 어떻게 피울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였다.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때문에 예로부터 시인들은 물론 누구나 인간의 아름다움을 꽃에 비겨 노래부르고 시도 지어 읊었다.

나는 결심하였다. 우리 시대 인간의 아름다움은 노래하자! 그러면 우리 시대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티없이 순결한 마음을 안고 대를 물려가며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것이다. 나의 머리속에는 《꽃》을 어떻게 피워야 할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봄이 와도 꽃이 없던 이 땅에 해방의 봄을 안아오시고 자주와 창조의 새생활이 꽃핀 라원의 봄을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모시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찬바람 가지고 봄을 준 해빛의 고마움에 목매여 우러러반기는 꽃에 1 절을 담았다.

여기서 시작을 《한떨기》로 하였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미음은 한떨기의 꽃과 같이 한모습으로 따른다는 형성적의도에 서였다.

2절에서는 주체의 한빛으로 물든 이 강산에 안아키워 죽어서도 잃지 않는 생을 주시고 찬란한 미래에로 이끌어주시는 삶의 보호자이시며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 고마와 그 어디에 가있어도 그 무슨 일을 하여도 언제나 한마음 한 모습으로 믿고 따를 우리 인민의 영원한 신념을 노래하였다.

나는 이렇듯 크나큰 사상을 생경하고 직선적인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형상적이며 철학적깊이가 있는 시어를 골라 형상하기에 힘썼다.

꽃이 아름답듯 그를 형상하는 어휘도 아름답고 유순하면서도 우리 인민이 흔히 쓰는 쉬운 말을 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초고를 완성한 나는 동무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어떤 동무들은 내용도 보기전에 제목부터 자연주의적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제목을《은혜로운 해빛아래 피는 꽃》이라고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였고 또 어떤 동무들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신념을 노래하려는 의도는 알만한데 일반적인 꽃으로 하지 말고 조선의 꽃인 목란꽃으로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형상적비유가 좋고 또 시도가 있기때문에 대담하게 한번 해보자고 신심을 주는 동무들도 있었다.

그것은 나의 심정이였다.

이러한 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한번 대담하게 시도해보자고 힘을 준것은 당조직이였다.

나는 영광스러운 당에서 높이 평가해준 작품인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를 다시 연구 분석 하면서 《꽃》을 더 형상적으로 철학적깊이가 있게 써보려고 결심했다. 새로운 방법론을 찾은 나는 신심이 생겼다.

나는 확고한 신심을 안고 조직과 동무들의 도움을 받으며 완성해나갔다.

바로 이러한 때 영광스러운 당의 지도로 창작 완성된 조선예술영화 《조선의 별》에 나오는 《동지애의 노래》가 도달한 사상예술적높이는 나의 창작에 큰 신심과 용기를 주었다.

나는 가사 《동지애의 노래》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에 나의 《꽃》을 비추어가면서 한자두자 완성해나갔다.

두절에 《해》와 《꽃송이》, 《해빛》과 그 《빛발》을 같은 자리에 앉힘으로써 정형시로서의 가사의 품격을 높이며 《한떨기 향기론 꽃송이》를 《강산에 만발한 꽃송이》로, 《따뜻해》를 《고마워》로, 《피어서》를 《언제나》로 감정을 승화시켜나갔다.

또한 가사의 운률조성과 현화 절구성을 지난시기 가사와는 달리 자기의 양상에 맞게 독특하게 개성적으로 해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한떨기 향기론 꽃송이
해빛을 반기네
찬바람 가시고 봄을 준
그 빛발 따뜻해
아 피어서 해만 보네

강산에 만발한 꽃송이
해빛을 따르네
피어서 영원할 생을 준
그 빛발 고마워
아 언제나 해만 보네

드디어 기사 《꽃》은 당의 뜨거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따사로운 해빛을 받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 영광스러운 당에서는 우리가 올린 노래 《꽃》에 대하여 대단히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가사와 곡이 다 잘되었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의 이 치하는 우리 창작집단에 대한 크나큰 정치적신임이다.

나는 가사 《꽃》을 쓰면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힘에 겨웁다고 중도에서 물러설것이 아니라 무조건 끝까지 이악하게 관철해야 한다는 신념과 당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다는 확신이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형상적이며 철학적깊이가 있는 가사창작의 묘술을 그 어떤 다른데서 찾을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당의 지도밑에 창작완성되어 기준으로 내세운 명가사에서 찾아야 하며 비결은 그 모범을 창작실천에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달려있다는것이다.

또한 당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 때는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누가 뭐라해도 대답하게 시

도해 보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이다.

형상적이며 철학적깊이가 있는 가사는 창작가의 글재간에 있는것이 아니라 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작가의 정신에 달려있다.

꽃은 해빛을 받아서만 되어 향기를 풍긴다!

가사 《꽃》이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가사문학창작에 대한 영광스러운 당의 가르침의 빛나는 결실이다. 그러나 당에서는 모든 성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나는 가사 《꽃》을 창작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살려 앞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고 당이 요구하는 형상적이며 철학적깊이가 있는 가사를 쓰기 위해 더 대담하게 창작활동을 벌려 크나큰 당의 신임에 더 좋은 명가사로 보답하겠다.

단상

시적형상이 높은 가사

배현평

여기에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한편의 가사가 있다. 소박하고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시적형상으로 하여 한번만 읽으면 외우게 되고 외우면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싶은 가사 《꽃》이다.

한떨기 향기론 꽃송이
해빛을 반기네
찬바람 가시고 봄을 준
그 빛발 따듯해
아 피어서 해만 보네

강산에 만발한 꽃송이
해빛을 따르네
피어서 영원할 생을 준
그 빛발 고마워
아 언제나 해만 보네

아무런 가식도 없이 씌여진 이 가사에 특별한 뜻을 부여하기 위해 애쓴 구절은 따로 없다. 하지만 이 가사를 읽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뜨겁게 넘쳐흐르고있으며 오직 한마음 충성다할 인민의 깊은 정서세계가 한쪽의 수채화처럼 생동

하게 안겨온다. .

꽃-그것은 아름다운것의 상징으로 오랜 옛날부터 써오는 말이며 우리 시대에 와서는 행복한 우리 삶을 표현하는 수많은 노래의 명구절로 되었다. 때문에 꽃이라는 그 말 자체는 결코 새로운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가사를 읽으면 꽃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감동을 얻게 된다.

이 가사의 형상구조를 보면 자연묘사가 구성체계의 정면에 나타나고 주장하려는 의도는 그속에 숨겨져있으면서도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그 주장이 강렬하게 안겨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사는 시적이면서도 정치적내용이 풍부하여야 합니다.》

이 가사는 《꽃》이라는 자연경물을 의인화하여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서세계를 뚜렷하게 나타낼수 있었을뿐아니라 시종일관 독자-청중들로 하여금 꽃과 함께 자신의 심정을 노래할수 있게 하였다.

가사에 묘사된 해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형상적표현이며 꽃은 서정적주인공과 함께 우리 인민모두를 표현한 형상적비유이다. 따사로운 해빛아래 봄이 오고, 봄이 와서

꽃들은 피어난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자연법칙이다. 꽃은 해빛을 받아 피어나고 해빛만을 따르는것도 역시 변함없는 현상이다.

백두의 설한풍을 헤쳐오시며 이 땅우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시고 오늘의 행복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우리러따르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철석같은 신념이다.

이처럼 이 가사에서는 자연현상과 우리 나라의 사회적현상을 내적으로 공통된 뜻으로 비유하여 노래하고있다.

《한떨기 향기론 꽃송이 해빛을 반기네》에서 《반기네》를 비롯하여 《봄을 준》, 《따뜻해》, 《해만 보네》, 《따르네》, 《생을 준》, 《고마워》 등의 표현을 통하여 꽃을 인격화함으로써 형상의 심도를 깊이하고있다. 이로부터 흔히 써오던 시어들도 이 가사에서는 그 표현이 매우 생동하게 시적으로 뜻깊게 안겨오는것이다.

때문에 자연경물묘사로 형성된 이 가사에서는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생활감정을 정서적으로 깊이 있게 노래하고있으며 사람들을 공감시키고있다.

다음으로 이 가사에서 새롭게 창작적혁신을 찾아보게 되는것은 대담하게 시도한 반복의 수법이다.

많은 가사들에서는 문장의 반복을 통하여 감정의 발전과 운율적효과를 얻는 수법을 써왔지만 이 가사에서처럼 내용을 반복강조하는 형식으로 된 가사는 드물었다.

가사 《꽃》은 1절에 전개한 감정을 2절에 거의나 그대로 반복하면서 정서의 확대와 일반화를 동시에 진행해나가고있다.

1절에서 《한떨기 향기론 꽃송이 해빛을 반기네》를 2절에서 《강산에 만발한 꽃송이 해빛을 따르네》로 내용을 발전시키면서 《꽃송이》와 《해빛》을 반복하였고 1절에서 《찬바람 가시고 봄을 준 그 빛발 따뜻해》의 위치에 《피어서 영원할 생을 준 그 빛발 고마워》로 《준》과 《그 빛발》을 반복하였으며 1절에서 《아 피어서 해만 보네》의 려구를 발전시켜 2절에서 《아 언제나 해만 보네》로 반복하였다.

그런데로부터 이 가사는 1절의 정서흐름과 2절의 정서적률동이 완전한 밀착을 이루고있으며 흔히 가사들에서 피하기 힘들어하는 사상적내용의 조잡성을 없애고 1절에서 제시한 정서세계를 2절에서 승화시켜 다시 강조함으로써 주제의 적극성과 명료성을 가져왔다.

1절의 내용을 가지고서도 사상은 충분히 나타나고있으나 2절에서 발전시켜 반복을 줌으로써 태양을 따르는 꽃송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우리러모시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충성의 감정을 높이는데서 매우 큰 효과를 주고있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가사 《꽃》은 다양하고 풍부한 우리 나라 말의 문체론적수법을 대담하게 활용함으로써 가사의 형상적수준을 새로운 높이에서 보장하였다.

이처럼 가사 《꽃》은 비유법과 반복법을 기본으로 가사의 사상정서적내용을 조리있게 표현함으로써 추상과 개념화를 극복하고 형상으로써 사상을 강조하며 강한 정서적여운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명가사이다.

또한 이 가사는 알기 쉬운 구두어의 반복으로 정서를 개방함으로써 통속성이 있는 가사로 될수 있었다.

《아 피어서 해만 보네》, 《아 언제나 해만 보네》는 우리 인민의 통속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 가사의 모든 형상의 각광을 이 구절에 집중시키면서 의의있게 강조함으로써 사상주제를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낄수 있게 하였다.

가사 《꽃》이 달성한 성과는 우리 시인들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세련된 시적형상으로 시대를 노래하고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할 무거운 사명을 지닌 우리 시인들이 이 가사의 높은 형상적모범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해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가사 《꽃》과 같은 매력있는 가사를 쓰기 위해 모든 정력을 기울이자! 이것이 이 가사가 우리에게 다시금 주는 교훈이다.

언제나 해만 보는 꽃에 대한 노래

리건구

형상적비유의 수법은 문학창작에서 우리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특히 시나 가시인 경우 비유와 상징의 수법은 뗄수 없는 수단이다. 이것을 옹계 살려쓸 때 새맛을 주는 좋은 가사를 창작할수 있다.

가사 《꽃》의 경우가 바로 그 좋은 실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를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지어서는 안됩니다. 노래는 여러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풍부한 정치적내용을 시적으로 형상함에 있어서 가사 《꽃》은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넘치는 감정, 우리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적중한 비유의 수법으로 능숙하게 엮어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당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또하나의 새로운 노래를 안겨줄수 있게 되었다.

가사 《꽃》에서 보는것처럼 형상적 비유의 수법을 옹계 살리였을 때 작품에서는 직선적인것을 피하고 높은 시적형상을 이룩할수 있으며 짧은 시행속에서 철학적깊이가 있는 사상적내용을 가슴벅차게 안겨줄수 있는것이다.

더구나 가장 젊은 문학형태의 하나인 가사에서 우리 시대의 거창한 사상감정을 나타내지 위하여서는 자연히 비유의 수법, 상징의 수법을 많이 쓰게 마련이다.

그러면 이러한 수법으로 형상적효과를 얻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그것은 우선 그 비유와 상징자체가 진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현실을 외곡하는것으로 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아귀가 맞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작품에 손상만 가져올뿐이다.

가사에서의 이러한 진실성은 무엇보다먼저 그 가 표현하려는 사상이 우리 인민의 전형적인 감정으로 되어야 할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친숙한것으로 되어야 하는것이다.

또한 비유와 상징이 진실하자면 그러한 사상감정을 간명하게 표현하여야 하는것이다.

간결하지 못하고 까다롭고 복잡하여 몇번씩 굴절되어야 그 뜻이 알려지면 가사에서는 그 정서적내용이 원만히 표현되었다고 말할수 없게 될것이다.

그것은 가사가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널리 불리워지는 노래로 되어야 하는 문학작품이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가사는 곱씹어 읽으며 음미하는 시와는 달리

부르는 시이기때문에 그 내용이 아무리 좋고 그 비유가 아무리 기발하다고 하더라도 인민들이 한번 듣고 인차 리해하지 못하게 되면 잘되었다고 말할수 없다.

광범한 인민들의 가슴속에 언제나 가장 뜨겁게 고동치는 감정을 인민들이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표상으로 가장 간결하게 표현했을 때 그 비유와 상징은 성공한것으로 된다.

그러면 이러한 요구가 가사 《꽃》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이 가사에서는 해빛과 꽃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오직 수령님만 우리러모시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을 노래하였다.

한떨기 향기론 꽃송이
해빛을 반기네
찬바람 가시고 봄을 준
그 빛발 따듯해
아 피어서 해만 보네

강산에 만발한 꽃송이
해빛을 따르네
피어서 영원할 생을 준
그 빛발 고마워
아 언제나 해만 보네

이 가사를 읽고 우리가 느낄수 있는것처럼 가사의 첫 제시에서는 아침이슬을 머금고 소담하게 피어난 한떨기의 향기로운 꽃송이가 눈부신 해빛을 받아 밝게 웃는 모습을 통하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만 우리러모시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느끼게 되는것이다.

가사는 다음행으로 넘어가면서 찬바람 불고 눈보라치는 겨울을 가셔주고 따사로운 봄을 펼쳐준 태양의 빛발아래 피어난 꽃을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 영원한 봄을 주시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고 행복만을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덕에 목매여 그이를 우리러 충성다하는 인민의 모습을 느끼게 된다.

2절에 가서는 강산에 만발한 천만송이 꽃들이 해빛을 따르듯이 오직 어버이수령님만을 따르며 죽어서도 잃지 않는 영원한 삶을 안겨주시는 그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천만년 변치 않을 불타는 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만을 모시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뜨겁게 노래되어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크고 더 뜨거운 감정은 없으며 이보다 더 높고 더 억센 감정은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고 파르려는 그 마음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차고넘치는 확고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가사 《꽃》은 바로 이 감정,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숭고한 감정을 담고있으며 이것을 비유의 수법으로 훌륭히 노래하였다.

그런데 이 감정을 형상함에 있어서 적용한 해빛과 꽃에 의한 비유는 결코 처음하는것이 아니다.

창작에서 새롭다는것은 결코 지금까지는 있어 보지 못하던 그 어떤 특이한 생활만을 《창조》해내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속에서 친숙하고 인민들이 잘 아는것이지만 그것을 작가가 어떤 각도에서 어떤 감정으로 보고 취급하였는가에 따라서 다시금 새로운 감정으로 받아안게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좌우되는것이다.

그런데 이 가사 《꽃》에서는 인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사상감정인 《언제나 해만 보는 꽃》을 작품의 사상정서적핵으로 삼아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사랑속에 행복을 누려가는 인민, 그 품속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려가는 인민, 이 사랑 이 은덕에 보답하는 길에서만인 자주적인 삶과 참다운 행복을 꽃피울수 있다는 철석같은 믿음을 안고 수령님께 일련단심 충성다하는 인민의 심정을 독특한 정서로 노래한것이다.

우리들은 가사에서 해빛과 꽃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비유하고 상징한 실례를 많이 보아왔지만 이 가사에서처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면적으로 무리없이 순탄하게 효과적으로 적용한 실례는 거의 없다.

이와같이 남들이 흔히 쓰던 내용을 가지고도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수법으로 취급한데 이 가사에서의 비유의 수법이 가장 진실할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가사 《꽃》에서 특징적으로 이야기할수 있는것은 해빛과 꽃에 의한 비유의 수법으로 아버지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충성심을 노래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벌려놓은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것만 추려서 능숙하게 엮어나가고있는것이다.

원래 가사를 잘 쓰자면 체험된 생활감정가운데서 가장 정수적인것만 담아야하며 그것을 대를 똑바로 세워서 함축된 시어로 간결하게 형상하여야 하는것이다.

더구나 비유나 상징의 수법을 많이 쓴 가사에서는 복잡하고 갈래가 많으면 그 가사는 무엇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것으로 되고만다.

그러나 가사 《꽃》에서는 짧은 2개의 절로써 말하려는 사상적내용을 다 해결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 감정의 발전이 뚜렷하고 또 그것을 표현함

에 있어서 정연하고 잘 짜워져있는것이 특징이다.

1 절과 2 절을 놓고 서로 시행들을 견주어보면 그것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1 절의 1, 2 행은

《한떨기 향기론 꽃송이

해빛을 받기네》

2 절의 1,2 행은

《강산에 만발한 꽃송이

해빛을 따르네》

로 되어있다.

보는바와 같이 1 절에서는 우리 인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꽃으로 피어나 해빛을 받기는 내용으로 되고있으며 2 절에서는 온 나라 인민이 것처럼 만발하여 수령님을 따르는 내용을 담고있다. 여기서는 그 사상의 발전도 명백할뿐만아니라 그 어휘의 배열과 시행의 구조자체가 정연하여 한번 읽고도 그 뜻을 쉽게 리해할수 있게 되어있다.

다음으로 1 절의 3, 4 행과 2 절의 3, 4 행을 비교해보아도 그 사상의 발전에 따르는 시행의 구성이 명백하고 정연하다.

1 절에서는

《찬바람 가시고 봄을 준

그 빛발 따듯해》

2 절에서는

《피어서 영원할 생을 준

그 빛발 고마워》

이와 같이 간결하면서도 명백하여 그 사상과 정서를 잘 나타내고있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도

《아 피어서 해만 보네》

《아 언제나 해만 보네》로써 《해만 보네》는 반복하면서 《피어서》와 《언제나》만 나르게 제시하였으나 가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정서적으로 충분히 나타내고있을뿐만아니라 매절의 결속을 손색없이 지어주고있다.

이상에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가사 《꽃》은 형상적비유의 수법으로 시형상을 높인 명가사로써 보람찬 가사혁명의 길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성과이다.

이 가사는 또한 직선적이며 결만 번지르르한 가사를 쓰지 말고 서정이 넘치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좋은 가사를 쓸데 대한 당의 가르침을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이룩된 또하나의 본보기 작품이다.

이러한 가사는 결코 쉽게 창작되는것이 아니다. 자기의 심장을 충성의 한마음으로 불태우며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거듭할 때 얻어지는 귀중한 열매인것이다.

우리들은 당에서 가르친대로 자신의 정치적식견을 높이고 창작적기량을 련마하며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사색하고 탐구함으로써 가사 《꽃》과 같은 명가사를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아버지의 선물

정형섭

1

련대를 로산계선에 은밀히 전개시킨 련대장 강익철은 전투가방에서 지도를 꺼내어 포탄상자우에 퍼놓았다.

이틀전에 최고사령부로부터 퇴각하는 적들의 퇴로를 차단할 명령을 받았다. 적후련대를 이끌고 밤새워 행군해온 강익철이었다.

전지를 켜들고 지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강익철의 시선은 평양과 서울, 동부와 서부를 련결하는 도로교차점에 있는 무명고지에서 못박혔다.

그는 가벼운 흥분을 누르며 이제 형성될 대포위망을 상상해보았다. 어느 모로 보나 무명고지는 전술적의의가 큰 고지였다.

강익철은 무명고지를 장악하고 놈들의 숨통을 한줄에 쥐고 조이려고 결심했다.

《음...》

그는 손끝으로 모자창을 밀어올리고는 도로를 표시한 검은 선을 따라 서울쪽을 향하여 시선을 천천히 옮겼다. 서울까지는 평지대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적들은 이 무명고지일대에서 체놈들의 사태처럼 허물어지고있는 전선을 멈춰세우려고 무력을 증강하고있을것이다. 강익철은 그것을 예견했다.

무엇보다먼저 정찰자료가 필요했다.

그는 손목시계를 언뜻 들여다보았다. 새벽 1시였다. 부대보다 하루 앞서 떠난 박만복정찰조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은 아직 한시간 남아 있었다.

지도를 접어 전투가방에 넣은 강익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상급참모부에 보고할 일보를 작성하고있는 참모장을 돌아보았다.

《1대대에 나가보겠소.》

무명고지를 직접 보고싶었던것이다.

달은 밝았다. 서리가 내린 땅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새벽달빛은 더더욱 차고 푸르렀다.

강익철은 허리에 손을 얹고나서 달을 바라보았다.

《보름인가?》

《그렇습니다. 련대장동지.》

련락병이 가까이 다가오며 대답했다.

《보름이란말이지.》

강익철은 권총집을 꼭 잡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동지달 보름이란말이지...》

오늘은 그의 아들 명혁이의 생일날이었다. 보름날에 낳았다 하여 생일도 특별히 음력으로 세

군하던 아들이었다.

안해도 지금 저 달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할것이다.

강익철은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려는듯 권총집을 추슬러올리며 나무그림자가 얼기설기 엉킨 눈우로 걸음을 옮겼다. 산등성이에 올라오니 골짜기들에서 숙영준비를 하고있는 전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방금 배낭을 벗어놓은 전사들의 잔등에서 허연 김이 서려올랐다.

(이제 땀이 식으면 얼어들테지.)

이런 생각에 묻혀 익철은 대대부쪽으로 걸어갔다.

련대장을 발견한 1대대장이 대대 차렷구령을 주고 달려왔다.

《련대장동지, 대대는 현재 숙영준비중입니다. 1대대장 윤상철!》

《쉬엇하시오.》

《쉬엇!》

강익철의 시선은 다시 땀에 젖은 전사들의 잔등에 가 멎었다.

《불을 피우지 않아도 건널것 같소?》

《달이 저렇게 밝지 않습니까.》

《달이라?!》

강익철은 대대장의 말을 되받으며 숙영준비를 다그치고있는 전사들에게 눈길을 보냈다.

지금 전사들은 저 밝은 달을 바라보며 고향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과 가슴들을 따뜻하게 덥힐것이다.

강익철의 시선은 다시 대대부엌에서 숙영준비를 하고있는 전사들에게로 옮겨졌다.

《정찰소대동무들이요?》

《그렇습니다. 련대장동지.》

강익철은 아무말없이 1중대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련대장동지, 정찰조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대대장이 따라서며 물었다.

《없소.》

잠시 침묵이 흐른뒤에 강익철은 생각나는듯 다심한 눈길로 대대장을 돌아보았다.

《만복이의 고향이 무명고지밀이라지?》

《네.》

《안해가 집에 혼자 있다는데... 무사한지 모르겠소.》

《아닙니다. 아들이 또 있습니다.》

《아들이?》

대대장을 마주보는 련대장의 눈에 의아한 빛이 어렸다.

《그 동무가 전선으로 나온 다음 해산했답니다.》

《음.》

강익철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대대장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소?》

대대장은 서둘러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를 보구야 알았습니다.》

익철은 만복이의 배낭에서 나왔다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접은 자리가 많아지고 보풀이 인 편지였다.

《아직 얼굴도 못보았겠구만.》

강익철은 편지를 손에 천체 무명고지쪽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마을쪽에서 개짖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어느덧 두사람은 고향마을에 들어선듯 마음은 따뜻해졌다.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타고 가을이면 사과, 배 주렁주렁 향기로운 고향, 어머니 계시여 정들고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들이 기다리고있어 그리운곳...

하물며 고향마을을 지척에 둔 박만복의 심정은 어떠하랴. 강익철의 가슴은 뻐근해졌다.

그제야 갑자기 생각난군듯 강익철은 대대장을 돌아보았다.

《대대장동무, 이번에 빅만복동무가 정찰소대장으로 제발되었소.》

《그렇습니까?!》

대대장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피어올랐다. 1년나마 소대장이 결원되어 은근히 속은 썩이던 그였다.

강익철은 대대장과 헤어져 련대부로 돌아왔다. 련대부엔 그가 퍼놓은 지도옆에서 초불만이 한 줄기의 연기를 천정으로 피워올리며 조용히 타고 있었다.

참모장의 목소리가 통신실에서 울려왔다.

《여보시오. 군단사령부입니다?》

강익철은 초불앞에 포탄상자를 끌어다 걸터앉으며 만복이 편지를 꺼냈다. 봉투안에서 두장의 편지가 나왔다. 한장은 그의 안해가 써보낸 것이었고 또 한장은 만복이가 쓴 편지였다. 강익철은 먼저 만복이 안해가 써보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연인즉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과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는가고 남편에게 물어본 편지였다.

강익철의 얼굴에 즐거운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초불에 담배를 붙여물고는 만족스럽게 연기를 내뿜었다.

《아들이란말이지.》

강익철은 담배를 손에 든채 이번에는 만복이가 안해에게 쓴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1950년 9월 3일, 만복 씬.》

편지를 쓰고도 기회가 생기지 않아 아직까지 부치지 못한 모양이었다.

편지를 도로 집으려던 강익철은 문득 손은 멈추었다. 종이 뒤쪽에 더 쓴 글에 눈이 갔던것이다.

《여보, 아들 이름을 이렇게 부릅시다...》

만복의 편지는 강익철에게 문득 이제는 지나가버린 옛시절을 되살려주었다.

벌써 17년전... 아들을 낳았다는 기별은 듣고 유격근거지에 있는 안해에게 명혁이라는 이름을 지어보내던 일, 반갑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던 그때가 눈앞에 삼삼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그는 저도모르게 만복이 편지를 꼭 그러쥐었다.

《명혁아!》

강익철은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아, 락동강 락동강, 이 나라 아들들의 얼마나 많은 사연이 깃들어있는 강인가. 그의 아들도 바로 그 강에서 장렬한 최후호응 마쳤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은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한목숨 땀땀이 바치지 않았던가.

강익철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물고 성냥을 찾았다. 왼쪽주머니에서도 바른쪽주머니에서도 성냥을 찾지 못하여 한동안 궁싯거리던 그는 담배대를 손에 들고 멍하니 초불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림름한 얼굴이 떠오른다...

언젠가 아버지가 보고싶다는 아들의 편지를 받았을 때 따뜻한 말 몇자라도 적어보냈을걸 그랬다는 후회가 은근히 가슴을 적시었다. 가슴이 아렸다. 강익철은 연약해지려는 마음을 털어버리려는듯 자리에서 움쭉- 일어났다.

천막을 나서니 짜릿하고 시원한 공기가 가슴을 씻어낼듯이 마구 흘러들었다. 벌써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2

정찰조가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자 강익철이 련대부천막으로 급히 들어섰다. 참모장과 지도를 가운데 놓고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두 전사가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천막을 떠받들듯이 선 전사가 박만복이였고 그의 어깨에 닿을가말가한 키작고 복스럽게 생긴 애어린 전사가 칠성이였다.

그들은 손과 발이 들어맞는 련대의 유명한 정찰조였다. 만복이의 완강성과 칠성의 기발한 착상으로 해서 그 어떤 어려운 임무가 부과되어도 어김없이 수행하는 그들이였다.

《허허... 동무들은 여전하구만.》

만복이의 보고가 끝나자 강익철은 두 전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껄껄 웃었다.

만복이도 열적은 미소를 띠우며 뒤머리를 긁적거렸다.

강익철의 머리에는 1 차남진때 만복이를 처음 만나던 일이 선히 떠올랐다.

…전선부대 련대장으로 임명받은 강익철은 사단으로 배치된 신입병사 한개 대대를 인솔하고 길을 떠났다. 기껏해서 닛새면 가당으리라고 생각했던 행군은 벌써 일주일째 계속되고있었다.

멀리 사단지휘부가 자리잡은 문경고개가 가까와 오자 강익철이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적들을 답새기는 아군의 포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래일이면 자기 련대에 가당게 될것이였다.

그러나 대오는 패잔병들과 뜻밖에도 조우하게 되였다. 전투는 인차 끝났으나 강익철은 행군명령을 내릴수 없었다. 신입병사 한명이 없어졌던 것이다.

어두워지는 골짜기에 집합나팔소리가 다시 울렸다.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갔지만 전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오는 벌써 한시간나마 지체했다.

강익철은 대오를 더는 지체시킬수 없었다.

강익철은 한 전사의 생사를 알지 못한채 떠나지 않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았다.

《박만복이라고 했지… 만복이…》

강익철은 몇명의 하사관들을 남겨놓고 행군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강익철의 속을 태우던 만복이는 그 이튿날아침에야 포로를 끌고 대오에 나타났다.

만복은 련대장을 보자 미안스런 웃음을 얼굴에 띠우며 변명처럼 말했다. .

《글쎄 이놈이 서라는데 그냥 뛰지 않겠습니까.》

만복이는 정신이 빠져 무릎을 꿇고앉아있는 미군장교놈을 발길고 툭툭 찼다.

《제놈이 뛰면 얼마나 뛰겠대구… 하하하… 빠르기는 또 얼마나 빠르니…》

만복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팔소매로 씻는듯이 마치 범잡은 포수기상이였다.

강익철은 만복이를 어이없이 바라보았다.

《그래 그놈이 총알보다 더 빠르더란말이요?》

《그렇습니다. 련대장동지.》

만복은 자세를 바로잡으며 대답했다.

그만 강익철은 군률에는 조금도 다듬어지지 못한 이 신입병사의 철없는 소행을 웃어버리고말았다.

그런 만복이가 오늘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포연에 그슬린 검승한 얼굴, 윤이 나는 군복단추며, 단정한 몸자세… 어느 모로 보나 미덥기만한 모습이었다.

《자, 그럼 정찰자료를 보고하요.》

강익철은 참모장이 퍼놓은 지도를 앞으로 끌어당겨놓았다. 그의 불타는듯한 시선은 만복이의 목소리를 따라 지도우에서 여기저기로 옮겨졌다.

정찰자료는 강익철이 예견했던 그대로였다. 그들은 벌써 이 무명고지일대에 한개사단이상의 무력을 증강하고있었다.

정찰조의 보고가 끝났으나 강익철은 오래동안 지도에 눈길을 박은채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만복이는 련대장의 손이 얹혀진 권총집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사들은 저 권총을 두고 련대장의 《작전용권총》이라고 불렀다.

련대장이 전투구상을 할 때면 늘 권총집우에 한 손을 얹군하였다.

그만큼 련대장은 권총을 자기 몸의 한부분처럼 몸시도 귀애하였다.

만복은 련대장의 권총에 부쩍 호기심이 동했다. 그때 갑자기 련대장의 목소리가 엄엄하게 들렸다.

《만복동무는 속에 있는걸 다 털어놓지 않았지?》

《예?!》

만복은 흠칫 놀라며 련대장을 바라보았다.

강익철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어 만복이앞에 내밀었다.

《생남했다는걸말이요.》

순간 만복은 얼굴을 확 붉히며 머리를 떨어뜨렸다.

《그 래 무명고지밀에 만복동무의 집이 있나지…》

련대장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아직 집소식은 모르겠구만…》

련대장은 혼자소리처럼 말하며 말꼬리를 흐렸다. 그는 조용히 천막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리

다가 강익철은 문득 걸음을 멈추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조용히 피어났다.

《그래 만복이, 동무는 앞으로 아들을 무얼로 키우겠소.》

《…………》

만복이는 얼굴을 붉힌채 대답이 없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꿈이 있겠지!》

그제서야 만복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공부를 시키자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로 만들겠단말이지.》

만복은 어줍게 웃으며 머리를 숙였다.

강익철은 먼 하늘가로 시선을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침묵이 흘렀다.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강익철도 아버지로서의 꿈이 있었다. 그 역시 아들을 학자로 키우리라 마음 먹었었다.

강익철의 아버지도 어떻게 하나 아들을 공부시켜 보려고 애를 썼다. 아버지가 속을 태우며 애쓴 덕에 익철은 가난한 집 아이들은 문앞에도 가지 못하는 소학교에 입학하였다.

행랑살림에 무슨 돈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학교에 붙였는지를 알기에는 익철은 너무도 어리었다.

익철에게는 학교에 다닌다는 즐거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즐거움에 비하면 배고픔이나 허름한 옷차림같은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이었다.

익철은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책보를 어깨에 둘러메고 운동장으로 나왔다.

바람은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눈보라를 세차게 일으켰다. 뽕안 눈보라는 모든것을 집어삼켰다.

익철은 집을 향하여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눈보라속에서 사람이 불쑥 나타나며 익철이의 앞을 막아섰다.

아버지였다.

《아버지!》

익철은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었다.

아버지는 이 눈보라가 걱정되어 자기를 마중왔으리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뒤통마에서 제일 잘사는 지주놈의 둘째 애첩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놈은 아버지를 보자 그 자리에 버티고 서더니 소리쳤다.

《빨리 와서 업으라.》

익철은 지주놈의 아들을 쏘아보았다. 저놈이

무엇이길래 아버지에게 오라가라 호령질을 할가.

아버지는 저놈때문에 이 눈보라를 헤치고 오지 않았을것이다.

《빨리!》

지주놈의 새끼는 발까지 굴러대며 호통질을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괴롭게 한숨을 폭- 내쉬더니 지주놈의 새끼쪽으로 가려 했다.

《아버지!》

익철은 아버지의 허리를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익철이를 내려다보더니 또다시 한숨을 폭 내쉬고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는 가지고 온 담요도 털외투를 입어 곰같은 지주놈의 아들새끼를 감싸업는것이였다.

《아버지-》

익철은 피타게 부르짖었다. 그제야 익철은 아버지가 지주놈의 아들새끼를 업으러 학교에 온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자기의 학비가 저처럼 피눈물에 얼룩져있다는것도 희미하게나마 알아차렸다. 어린 가슴은 모멸과 울분으로 터질것만 같았다. 그 다음날부터 익철은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도 더는 익철에게 학교에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지주놈의 집에서 뛰쳐나온 그들부자는 정처없는 길을 떠났다.

그들은 인간세상과 담을 쌓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피나리보짐을 풀었다.

익철은 아버지를 도와 손이 부르토록 땅을 두지며 일했다...

강익철은 머나먼 시절의 추억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가슴을 아프게 하는 추억이였다.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것은 유격대에 입대해서였지! ...)

강익철은 그 어떤 흥분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통마 차렷자세로 서있는 만복이와 꼬마가 눈에 띄웠다.

《공부를 시켜야지... 학자도 좋고 유능한 기술자도 좋지.》

강익철은 만복이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3

야간전투를 앞두고 강익철은 련대에 휴식명령을 내렸다.

전사들은 밥술을 놓자마자 모두 잠에 폴아떨어

졌다.

잠들지 못하는것은 런대참모부와 지휘관들뿐이었다.

아침부터 참모부일군들과 지도를 마주하고 앉은 강익철은 담배 한대 온전히 피울 사이도 없이 긴장한 시간을 보냈다. 각 구분대에 하달할 전투명령서까지 작성하고나니 벌써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우리도 눈을 좀 붙이시오.》

강익철은 먼저 모포를 들고 양지쪽을 찾아 천막을 나섰다.

아침부터 잠자리를 마련해놓고 기다리던 연락병이 그를 찾았다.

《런대장동지, 여깁니다.》

눈을 파헤치고 락엽을 들춰낸 잠자리는 말그대로 나무랄데가 없었다.

《동무도 이걸 깔고 눕소.》

강익철은 가지고 온 모포를 력락병에게 넘겨주며 잠자리에 누웠다. 폭신한 닭털침대우에 누운 기분이었다. 그는 나무우듬지들사이로 드러난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흰구름처럼 나무우에 쌓인 눈에서 햇빛이 끝없이 부서져내렸다. 눈이 시었다. 온몸이 노근해지며 눈이 저절로 스르르 감졌다. 그때 갑자기 만복이의 편지생각이 났다. 그와 함께 어린것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며 이상하리만큼 가슴은 따뜻해졌다. 눈에 매달렸던 줄음은 어느사이에 말끔히 달아났다.

(가만, 래일이 며칠이더라...)

강익철은 만복이의 안해의 편지가 생각키웠던 것이다. 아이출생날부터 낱자를 곱아보았다. 틀림없이 래일이 100날이었다.

《100날선물이 있어야 할텐데.》

강익철은 베고누웠던 배낭을 뒤져보았다. 아이에게 쥐여줄만한 물건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야단인걸...)

이 준엄한 시절에 태어난 어린것에게 무엇인가 뜻깊은것을 마련해서 보내고싶은 충동이 북받쳐올랐다.

(어떤걸 보내면 좋을가?)

아무리 머리를 짜보아야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문득 만복이가 자기 권총에 눈독을 들이던 일이 생각났다. 갑자기 눈앞이 확 트이였다.

(놀이감권총이 어떨가.)

생각해놓고보니 그럴듯하였다.

강익철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동안 돌아다녀서야 알맞춤한 판자쪽을 얻을수 있었다.

강익철은 권총을 꺼내서 앞에 놓았다. 그는 권총을 연신 바라보며 나무권총을 깎기 시작했다.

(백날상앞에 이 권총을 놓아주면 그너석이 제격 잡을가?)

강익철은 즐거운 생각에 묻혀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우리 명혁인 백날에 연필을 먼저 쥐였다지.)

그래서 동리사람들은 집안에 학자가 났다고 기뻐들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 동리 늙은이들이 하던 말도 생각났다. 신통하게도 가난한 집 아이들은 책이 아니면 연필을 쥐였다고 했다. 자식들을 마음껏 공부시키고싶은 부모들의 념원은 책이나 연필로 표시되었을뿐이다.

제 엄마의 인물이나 겨우 알아보나마나한 석달 열흘짜리가 제 운명을 한순간에 결정한다는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념원과 강렬한 사랑이 있지 않는가.

자식들을 마음껏 공부시키고싶은 부모들의 념원은 세기를 두고 쌓였었다. 그 세기적인 념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져오신 해방후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이었다.

하루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세수물에 하얀 수건까지 받쳐들고 서있는 달덩이같은 안해의 얼굴을 녀고고 바라보며 얼굴 씻을념도 못했다는 만복이...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행복이 이처럼 귀중하기에 사람들은 한몫숨 바쳐 싸우고있지 않는가. 아들 명혁이도 조국을 위한 성전에 떳떳이 한몫숨 바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 젖어서 강익철은 참모장이 옆에 와 서서 자기를 의아하게 내려다보는줄도 몰랐다.

《아니 무엇을 하십니까?》

강익철은 잠에서 금방 깨어난듯한 부석부석한 참모장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었다.

《장난감을 좀 깎아보는길ियो.》

그리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눈이 휘둥그래진 참모장은 장난감권총차루에다 정성스럽게 한자한자 글자를 새겨넣는 강익철이의 손만 바라보았다.

《1950》

글자를 다 새긴 강익철은 완성된 권총을 만족한듯 바라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어디 좀 보오. 비슷한가.》

보나마나 그것은 놀이감권총이었다.

《그걸 어디다 쓰렵니까?》

강의철은 대답대신 껄껄 웃었다.

《왜 어울리지 않는단말이지.》

《.....》

참모장은 나무권총을 정성스럽게 붉은천에 싸서 안주머니에 넣는 강익철을 얼없이 바라보았다. 참모장에게는 며칠전 일이 대번에 살아났다.

숙천이 고향이라는 농민출신의 배낭에서 나온 소코뚜레를 들고 얼마나 희한해서 소리쳤던가.

《보오. 우리 전사들은 벌써 고향땅에서 밭을 갈고있소.》

그리면서 강익철은 농민출신의 전사와 농사일에 대해서 흥분해서 오래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참모장은 런대장의 군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흥분하고있는것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강익철은 멍하니 서있기만 하는 참모장을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대대에 나가보지요.》

런대장의 뒤를 참모장은 말없이 뒤따랐다.

산릉선을 내릴 때까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대 차렷!》

두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두런두런 말소리가 나는 휴닝쿨뒤를 바라보았다. 정찰분대동무들이 자지 않고 무엇인가 하고있었다.

《동무들은 왜 쉬지 않소?》

강익철이가 보고하러 나온 2분대장을 엄하게 바라보았다.

《런대장동지, 저...》

분대장이 말하기 난처한듯 쭈뼛쭈뼛거렸다.

《분대장동무, 그게 뭐요?》

참모장이 한발자국 나서며 분대장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

참모장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놀란것은 강익철이와 참모장만이 아니었다.

잠결에 구령소리를 듣고 일어나 달려오던 만복이도 걸음을 똑 멈추고 눈이 휘둥그래졌다. 2분대장의 손에는 놀이감팡크가 쥐여져있었다.

원췌놈들에게 두 아이를 다 잃은 그가 아이들 장난감을 꺾다니? ...

《아니 <팡크>가 아니요?》

강익철의 눈이 커졌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것은 장난감이였다. 마치도 《완구공장》에 온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

《어디 보지요?》

강익철은 분대장의 손에서 《팡크》를 받아들였다.

전사들의 긴장한 시선이 《팡크》를 이리저리 돌리며 살피는 런대장의 얼굴에 가 멎었다.

《숨씨가 괜찮구만.》 하고 익철은 참모장에게 의미있는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는 2분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동무가 꺾았소?》

《네.》

《집에 아이가 있소?》

《.....》

그는 옷에 묻은 나무밥을 말없이 털며 대답을 피했다.

《얼마전에 편지가 왔는데 놈들의 폭격에 그

만...》

참모장이 옆에서 2분대장을 대신하여 대답했으나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음...》 하는 신음비슷한 런대장의 목소리가 전사들의 가슴을 무겁게 쳤다.

침묵이 흘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강익철은 조용히 머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걸 누구를 주려고 꺾었소?》

《런대장동지, 래일이 만복동무의 아들 백날입니다.》

2분대장은 차렷자세를 취하며 대답했다.

《그래서 꺾었던말이요?》

강익철의 목소리는 저으기 갈렸다.

《분대장동무...》

강익철은 가슴이 몽클하였다. 뜨거운것이 일시에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랐다.

이때 칠성이가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분대동무들이 다 백날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소?!》

강익철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하여 떨렸다.

《그래 준비한것들을 좀 보지요.》

전사들은 런대장앞에 놀이감들을 내놓았다. 숨씨는 놀라왔다. 자동차, 피리, 총... 말그대로 병사식의 화선선물이였다.

어느덧 강익철의 눈에는 물기로 젖어들었다.

《감사하오. 조국의 이름으로 동무들에게 감사를 드리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전사들의 목소리가 멀리까지 메아리쳤다.

강익철은 만복이쪽으로 돌아섰다.

《동무는 아버지로써 아들에게 무얼 선물하겠소.》

《.....》

만복은 머리를 떨어뜨린채 말없이 서있었다.

《아버지두 선물을 마련해야지, 선물을...》

강익철은 혼자소리처럼 되뇌이고는 전사들을 돌아보았다.

《동무들, 전투를 시작하기전에 만복동무의 아들 백날선물을 마저 완성합시다. 병사식으로 말이요.》

그리고는 익철은 흥분을 삭이려는듯 크게 웃었다.

아름다운 저녁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4

무명고지습격조는 고지턱밑에서 달이 넘어가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달이 토산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산그림자가 무

명고지를 덮을 것이며 습격조는 그림자와 함께 갑작같이 무명고지를 타고왔을 작정이었다.

만복은 누구인가 자기에게로 기어오는 인기척을 느끼며 머리를 돌렸다.

꼬마였다.

《무슨 일이에요?》

《소대장동지.》

꼬마의 얼굴은 여느때없이 심각했다.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걱정은 없었다. 만복은 긴장했던 마음을 늦추며 꼬마를 쳐다보았다.

《왜 자리를 뺏소?》

《소대장동지, 이제 생각해보니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

《사진기말입니다. 농촌에야 사진기가 어데 있겠습니까?》

만복은 어처구니가 없어 그만 웃고말았다.

《동문 무슨 소리를 하오?》

면박을 받고도 꼬마는 제편에서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다는듯이 만복을 쳐다보았다.

《사진도 찍어주지 않고 무슨 백날입니까?》

그냥 두면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할지 몰랐다.

《동무는 왜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는데 말을 듣지 않소.》

그래도 꼬마는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소대장동진 백날사진이 있어요?》

《백날사진?! ...》

만복은 어이없이 웃었다.

《우리 부모야 자본가놈 등쌀에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는데 사진이 다 뭐요.》

만복은 저도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끌려들고말았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진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복은 꼬마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꼬마는 이윽도록 입을 열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만복은 그를 돌아보았다.

《?!》

이제껏 명랑하던 꼬마가 깊은 생각에 잠겨 어딘가 먼 앞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아마도 머슴을 살았다는 그의 부모들은 꼬마의 백날사진도 찍어주지 못했을것이다. 만복은 공연히 그에게 화를 낸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동무는 사진이 있소?》

《없어요.》

꼬마는 서글프게 대답했다.

《해방전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어디 사진기라는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

두사람은 잠시 자기 생각에 잠겼다.

꼬마가 다시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소대장동지의 아들한테 사진이랑 찍어주자는겁니다. 우리들이 100 닐사진 못찍은 봉창을 하자는겁니다.》

만복은 가슴속으로 치미는 뜨거운것을 어찌하지 못하며 급하게 숨을 내쉬었다.

입김이 안개처럼 흥분으로 달아오른 그의 얼굴로 피어올라 눈섭이며 털모자에 성애가 허영게 불리었다.

《소대장동지는 참 엉뚱하거던요.》

꼬마는 다시 명랑해지며 즐겁게 웃었다.

《뭘말이요?》

《권총말입니다.》

만복의 손은 무의식중에 가슴에 품은 권총에 갔다. 가슴이 또다시 뻐근해났다.

지금 생각해도 자기가 무슨 마음으로 감히련대장앞에서 권총이야기를 꺼낼 엄두를 냈는지 알수 없었다.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무명고지와 토산일대에 대한 총공격을 앞두고 강익철은 대렬앞에서 박만복중사를 소대장으로 제발할데 대한 명령을 전달하고 그에게 소위칭호와 함께 권총을 수여하였다.

권총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던 만복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련대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련대장동지, 다른 권총을 주실수 없습니까?...》

만복은 강익철의 옆구리에 찬 권총으로 시선을 주었다. 만복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뜸 알려졌다.

《음-》

강익철의 입에서는 신음소리 비슷한것이 흘러나왔다. 그는 먼 하늘가로 시선을 돌리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강익철은 천천히 권총을 꺼내들었다.

《이 권총이 마음에 있단말이지?》

《.....》

긴장했던 전사들의 가슴은 어느덧 호기심으로 번져갔다.

《이 총이 마음에 든단말이지...》

입속으로 이렇게 외우는 강익철의 얼굴에 깊은 회상이 어렸다.

그는 깊은 감회에 잠겨 조용히 《1932년 겨울이었소.》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를 몸소 사령부로 부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이 권총을 책상우에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소. <동무의 아버지가 쓰던 권총이요. 동무의 아버지는...> 하고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저의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어 <동무의 아버지는 유능한 적후공작원이었소.》

동무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보낼 련락쪽지와 함께 이 권총을 손에 쥐고있었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권총에서 탄알을 뽑으시어 몸소

이 권총에 한알한알 채워주시는것이였소.》
《?!》
《난 그날부터 이 권총을 단 한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소.》
《런대장동지!》
만복은 이름할수 없는 걱정으로 뿔어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런대장의 권총을 바라보았다.
위대한 장군님을 대를 이어 받들어모시려는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고 장군님께서 몸소 채워주신 총알이 고이 간직되어있는 권총, 얼마나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 권총인가.
강익철은 승엄한 자세로 복讎하늘을 바라보았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는 마음속으로 자기의 심중을 그이께 말씀드렸다.
이윽고 그는 조용히 만복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만복동무.》
《런대장동지, 제가 그만...》
강익철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는 만복의 손에 자기 권총을 쥐어주었다.
《자, 받소.》
만복은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런대장동지!》
《어서 받소. 동무가 이 권총을 가지고 최고사령관동지의 신임에 보답한다면 그이께서도 대단히 기뻐하실것ियो.》
그래도 만복은 가슴이 울렁거려 오래도록 권총만 바라볼뿐 중시 잡을 생각을 못했다.
《소대장동지.》
《응?》
만복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꼬마를 돌아보았다.
꼬마가 말없이 고지쪽을 가리켰다.
산그림자가 벌써 그들을 지나 무명고지중턱으로 기어오르고있었다.
습격조는 그림자를 따라 고지로 은밀히 접근해갔다.

5

지도우에 허리를 굽히고 토산일대를 한눈에 굽어보이는 강익철의 온 신경은 무명고지에 가있었다.
런대 총공격은 무명고지습격전투를 15분으로 보고 거기에 15분 더 가하여 새벽 5시39분으로 결정했다.
출발진지를 차지했다는 대대장들의 보고가 전 화선을 통하여 런이어 들어왔다.
그는 허리를 펴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초침은 5시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아갔다.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무명고지로 육박하는 전사

들의 심장에 박동처럼 그의 가슴을 움켜주었다.
분주하던 지휘통신도 숨은 죽인듯 잠잠했다.
어느덧 초침은 5시에 벗어선듯 움직이지 않았다.
정적이 깃들었다.
따따따...
얼어서 터질듯 팽팽해진 새벽공기를 찢며 기관단총의 런발사격소리가 무명고지쪽에서 울렸다.
총소리, 수류탄 터지는 소리...
10분, 15분 콩북듯하는 총소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맹렬해졌다.
총소리를 가늠하여 듣고있는 강익철의 얼굴이 점차 긴장한 빛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웬일일까?)
습격전투치고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있었던 것이다.
《런대장동지.》
참모장이 다급히 천막안으로 들어왔다.
런대공격시간이 된것이다.
무명고지를 장악 하지 못한채 공격을 시작한다면 런대가 스스로 포위속에 들수 있었다.
《예비대를 무명고지에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참모장이 이렇게 말하며 생각에 잠긴 런대장의 표정을 살폈다.
강익철은 품속에 손을 넣고 나무권총을 틀어잡았다.
《참모장동무, 예비대는 그냥 두고 공격명령을 내리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말ियो.》
강익철이 돌아서는 참모장을 불러세웠다.
《만복동무의 가족을 잊지 마오.》
《네.》
토산계선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야 무명고지에서 사격소리가 증증해지기 시작했다.
날이 밝기 시작했다.
《무전수동무, 습격조를 부르시오.》
《알았습니다, 런대장동지.》
무전수가 무명고지를 찾기 시작했다.
《무명고지 무명고지...》
그 소리에 대답이나 하듯 무명고지에서 다시 총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무명고지, 나 토산...》
《.....》
《런대장동지, 나오지 않습니다.》
《.....》
무전수는 다시 습격조를 호출하기 시작했다. .
《짱! -》
무서운 폭음이 고지에서 울렸다. 그와 함께 총소리도 푹 멎었다.
삼시에 온 천지가 정적에 싸인듯 고요해졌다.

《런대장동지, 습격조가 나왔습니다.》

강익철은 급히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1번이요.》

전화를 받는 런대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런데 왜 동무가 전화를 거오?》

전화를 건것은 꼬마였다.

《동무! 왜 대답이 없소?》

《…………》

상대편의 침묵은 강익철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을 주었다.

《만복동무는 어데 갔소?》

《런대장동지.》 하는 꼬마의 떨리는듯한 목소리가 진공관을 울렸다.

강익철은 꼬마의 다음말을 기다렸으나 수화기에서는 대답대신 앵- 하는 전류 흐르는 소리만이 울렸다.

《칠성동무, 왜 말을 끊소?》

재차 이렇게 독촉해서야 꼬마의 울음섞인 목소리가 고막을 따갑게 울렸다.

《런대장동지, 소대장동지는… 중상입니다.》

《뭐요?》

수화기를 잡은 강익철의 손이 맥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다시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었다.

《다른 동무들은 일없소?》

《경상자가 몇명 있습니다.》

강익철은 수화기를 놓고 급히 무명고지로 떠났다.

만복은 그가 도착할 때까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있었다:

《어떻소?》

강익철은 서둘러 만복이의 상처를 헤쳐보였다. 치명상이었다. 습격전투가 끝나갈무렵 갑자기 적들의 비밀궤도가 나타나 정세가 위급해지자 그가 수류탄뭉음을 안고 궤도로 뛰어들었다는것이다.

강익철은 피기없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만복동무.》

아침해가 만복이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만복은 조용히 눈을 떴다.

《런대장동지.》

그는 몸을 일으켜세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꼬마가 그의 상반신을 받들어세웠다.

만복은 품에서 무엇인가 더듬어 찾았다.

한참만에야 그는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런대장앞으로 내밀었다.

《어제는 제가… 그만…》

강익철은 권총을 받쳐든 만복의 손을 감싸쥐며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복동무, 이 권총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무에게 주신것이요. 동무는 이 총을 놓아시는 안되오.》

《런대장동지, 알았습니다. 놓지… 않-겠…》

만복은 권총을 잡은 두손을 가슴우에 올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소대장동지!》

꼬마의 부르짖음소리가 피타게 울렸다. 그는 만복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만복이의 손에 짝 쥐여진 권총은 아침해빛에 류달리 번뜩이였다.

전사들은 자기들이 짝은 장난감을 내려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동무들, 만복동무를 빨리 후송하시오.》

강익철의 조용하나 저력있는 목소리에 전사들은 머리를 들었다.

《만복동무는 우리들보다 몇배나 더 훌륭한 선물을 마련했소. 그는 목숨으로 지킨 고향땅과 조국을 아들에게 주었소.》

꼬마가 런대장의 권총을 쥐고 천천히 일어섰다.

《런대장동지.》

권총을 받아들고 전사들을 바라보는 강익철의 눈에 서리발이 일었다.

《동무들, 그러나 적들은 아직도 만복동무네 고향마을과 조국땅우에 남아있소.》

돌격으로 부르는 런대장의 목소리와 함께 권총사격소리가 무명고지에서 메아리쳤다.

적진을 향하여 달리는 강익철의 뒤에서 람홍색 공화국기가 바람을 안고 세차게 펄럭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후대들이 살게 될 조국의 영원한 모습이었다.

혈맥은 이어져야 한다

강학대

오래지 않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기간》이 시작된다.

민족이 분열되어 서른여섯해!

새로운 한 세대가 40대에 이르도록 조국은 국경 아닌 국경, 장벽 아닌 장벽으로 허리가 끊기여 참을수 없는 고통과 의분과 분노를 주고있다.

강도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서른여섯해나 치욕스러운 망국노의 설음을 당할대로 당한 우리 민족이 오늘은 미제침략자놈들에게 나라의 절반땅을 짓밟힌채 또다시 서른여섯번째 년료를 새겨가고있으니 이 아니 통분할 일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미어진다.

나는 얼마전에 남포항 부두가에서 사나운 풍랑속에서 구원되어 공화국의 품에 안겼다가 돌아가는 남조선어민들과 남포시민들이 석별의 정을 나누는 감격적인 장면을 본적이 있다.

한 피줄을 이은 동포애의 뿔여넘치는 환송을 받으며 그들은 자기들이 타고왔던 두척의 배에 갈라타는것이였다. 배우에서는 한동안 남북형제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볼과 볼을 맞비비며 심장으로 주고받는 말들이 오고갔다. 남조선어민들의 얼굴마다에는 견잡을새없이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파쑈가 판을 치는 무지막지한 세상에서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으며 살아오던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글도 배우고 병도 고치고 가는곳마다에서 넘치는 사랑과 환대를 받아왔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어떤 선원은 인간생지옥으로 가지 않겠다고 물으로 내렸다가 권고에 못이겨 다시 배에 오르는 것이였다. 배가 정작 떠나려고 닻을 올리자 선원들은 배전에 붙어서서 두손을 벌리고 울음을 터뜨리는것이였다. 부두에는 흐느낌소리로 가득찼다. 떠나기 싫고 보내기 서운한 석별의 이 순간에 환송군중들은 모두 가슴을 쥐어뜯었다.

배는 천천히 움직여 잔교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남조선어민들은 선장실 꼭대기에 기여올라 옷저고리를 벗어들고 휘젓기도 하고 두손을 높이 쳐들어 흔들기도 하였다. 남쪽으로 향하던 배는 선수를 돌려 다시 부두가로 왔다.

《잘가시라. 통일의 그날에 우리 만나자.》

부두가는 더더욱 뜨거운 열기로 끓어번졌다. 부득불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부두가를 돌고 또 돌았다.

어찌하여 배는 선뜻 부두를 떠나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한 피줄을 나눈 제 나라 제 땅에서 제가 살고싶은 고향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살지 못하는가.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어데 있단말인

가...

너무나도 가슴을 허비는 참경을 바라보며 나는 저도모르게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이 철천지 원쑤 미국놈들때문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저도모르게 부르짖었다.

미제와 군사강패놈들이 저 어민들에게 얼마나 참을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주었으면 부모처자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할것인가.

나라의 분별과 민족의 분별로 하여 모든것에서 북과 남의 차이는 더욱더 커가고있으며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동성은 점점 달라지고있다.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고있는 우리 인민은 부모처자, 친척, 친우들을 지척에 두고도 서로 오가지 못하고있으며 간단한 편지조차 날리지 못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한 이 불행과 고통, 재난은 하루빨리 가서져야 하며 조선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현단계에 있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한 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방침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오셨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그를 외면하였고 지어는 나라의 분열을 고정화하고 《두개조선》을 조작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민족적랑심도, 의리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민족앞에 다진 맹세도 다 집어던진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 조국은 통일되지 못하고있으며 통일도상에는 의연히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분열된 조국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항상 심려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 또다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 획기적인 통일방안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정부를 세울데 대한 이 방침은 바다와 같은 포용력과 도량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수 있는 참으로 현실적인 통일방안인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련방국가창설에 대한 방안과 통일국가가 실시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니 그것이 실현되면 우리 조국의 변모는 그 얼마나 달라질것인가. 5천만겨레와 유구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지주적인 독립국가로서 우리 나라는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며 우리 민족은 이 땅위에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고 대대손손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될것이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듯이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땅속의 무진장한 보물을 캐내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면 우리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문명한 나라로 그 어느 나라 인민보다도 더 잘사는 인민으로 될것이다.

저주로운 군사분계선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북과 남의 인민들이 땅과 바다와 하늘로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가게 될것이니 남포항 부두가에서와 같은 그런 민족수난의 력사가 빚어낸 가슴아픈 리별은 이 땅우에서 영영 자취를 감추게 될것이다.

하기에 지금 남반부인민들은 말할것도 없고 고향을 남쪽에 둔 어제날의 의용군출신 병사도, 이제는 머리에 허영계 서리가 내린 로학자도 50년대와 60년대에 새로 태어난 세세대들도 하나와 같은 기대, 하나와 같은 흥분속에 휩싸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새롭게 밝히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미제의 부추김밑에 한참도 못되는 전두환군사파쑈악당들은 한사코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매달려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있다.

광주땅에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갈망하여 일떠선 청년학생들과 부녀자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야수적으로 살육하고 저들의 《정권안보》에 장애로 되는 정치적반대파들을 총칼로 생매장해 버리고 비렬한 권모술수로 괴뢰 《대통령》 감투를 뒤집어쓴 피비린내나는 교살자 전두환놈은 자기의 상전으로부터 군사적원조를 받아 조선에서 전쟁의 참화를 빚어내려고 참을수 없는 발광을 하고 있다.

력대의 위정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그놈도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심판을 받고 조만간에 처단되교야말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새로운 통일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있는 미제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을 타도하고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정권을 세우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 때만이 가능한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휘황찬란한 등대불이 빛나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설할데 대한 방침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이다.

지금이야말로 공산주의자건 민족주의자건, 정치인이건, 실업가건, 국내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휘황찬란한 이 빛발을 따라 민족의 피줄을 다시 잇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때인것이다.

전세계 인민들도 우리를 지원하고있다.

지난 3월에 알제리에서 있었던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 조선통일지지위원회, 국제기구, 전세계 각국 인민들로 하여금 남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와 살인무기의 철수를 요구하고 남조선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를 실현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합쳤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전두환불한당놈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것이다...

하염없는 생각에 감겨있는 사이에 남조선어선들은 남포항 부두가를 다섯바퀴째 돌고나서 항구를 멀리 벗어나고있었다. 그날 나는 아득히 멀어져가는 어선들을 향해 꽃다발을 흔들며 오래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나의 귀전에는 《통일의 광장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남북형제가 함께 웨치던 목소리가 끝없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렇다, 우리 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그날은 련방국가창설의 기치밑에 북과 남의 겨레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우는 그 길에서 밝아오교야말것이다.

전쟁과 조국애

오영재

어언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전쟁의 날에 함께 싸운 잊을수 없는 전우들의 얼굴들을 그려 볼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교시를 다시금 가슴에 되새겨보게 된다.

《애국심은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것입니다.》

존엄한 전쟁의 날에 우리 작가들은 접견하시고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발휘한 무비의 영웅성의 그 원천을 밝혀주고있다.

그날에 한중대 한분대에서 함께 화선길을 걸었고 전투의 포화속을 함께 누벼간 전우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있는지 다 알수는 없다. 물론 지금까지 련계를 가지고있는 동무들도 더러는 있지만 저마다 자기의 고향과 직업을 가지고 흩어진 우리들의 사이였다. 우연히 려행길에서 뜻밖의 상봉이 벌어질 때가 있군하는데 그때마다 서로 달라진 우리들의 직업에 대해서보다도 옛 병사시절의 잊을수 없는 추억들을 더듬어 삭막해져가는 이름들을 다시금 뇌리에 새겨보며 그리운 그 얼굴들을 그려본다.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날이 흘렀다면 분대의 부사수 민아바이는 1950년의 그 가을에도 현물세달구지를 물고 군으로 갔을것이며 중대의 위생병 박동무도 고종의 진급시험준비에 여념이 없었을것이다.

중대의 화학지도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것이며 분대장동무는 평양의 거리에서 여전히 승객들을 태운 전차를 몰았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마련해주신 새제도, 새 생활의 진가가 해를 따라 고간의 옥백미처럼 쌓이던 그런 시절에 미제가 도발한 전쟁은 우리들을 이렇게 한대오에 서게 하였고 년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똑같은 군복에 건장을 달고 총을 들게 하였다.

이 땅을 모조리 재더미로 만들고 우리 인민을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야망을 품은 강도 미제는 새조선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중한것들에 참혹한 상처를 입혔다. 원수들은 공장과 마을, 학교와 논밭들을 불태웠으며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다심하고 정깊은 우리의 어머니들을 학살하였다.

원썬격멸의 한대오에 선 우리의 전우들은 바로 이 마을의 주민이었으며 이 학교학생이었고 이 아이의 누나가 아니면 오빠였으며 이 어머니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감정은 쉬이 도취되고말기때문에 그것이 늘 함께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것이 일쑤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뜻하지 않게 거리를 가지게 되었을때나 더우기는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는 그 사랑과 행복이 얼마나 컸는가를 격렬한 정신적충동과 소용돌이치는 마음의 격랑속에서 체험하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그 무슨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사랑과 애착의 감정의 폭발이며 온갖 귀중한것을 빼앗아 간 원수에 대한 분노와 하나로 어울린 세찬 불길인것이다.

이 불길을 안고 우리 인민군전사들은 비오는 령길을 넘어 하루밤에 백여리를 진격해나갔고 적의 땅크와 화점을 까부셨다. 이 불길을 안고 저마다 앞을 다투어 습격의 길을 걸었으며 백병전의 우뢰속에 뛰어들었다.

전쟁은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과 위수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 하나의 대학이었다. 이 대학은 해빛밝은 교실과 실습의 등산길이 아니라 파헤쳐진 전호와 화약내에 절은 그믐밤의 행군길이었고 배밀이로 전진하는 탄우속이었다.

어느 한 병사의 서투른 자작시에서 조국이란 말이 울려나올 때도, 돌벼랑에 그 누가 솟덩이로 썩렁고간 조국이란 글자를 보게 될 때에도 우리의 눈에서는 저도모르게 눈물이 돌았다. 전사들은 그 목소리 그 글자에서 저마다 자기가 누리던 행복한 생활, 그러나 지금은 불타고있는, 하나 기어이 지켜내고야말 그런 생활을 그려보았던것이다. 그것은 저마다 서로 다른것들이었으나 결국은 하나의 생각들이었으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조국의 품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조선전쟁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를 지지하고 동정하는 세계는 그 시절에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싸우는 조선을 주시하였다고 한다. 왜냐 하면 미제는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 없는 《강적》이라는 기성의 관념에 사로잡혀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전사들은 싸움의 그 마당에서 미제를 《강적》이라고 생각한적이 없었다. 우리와 맞대른 미제병정

놈들은 레의없이 비겁한자들이었다. 놈들은 이 전쟁에 자기의 생명을 걸 아무런 근거도 없었으며 다만 돈벌이와 돌아가서 누리게 될 안락한 생활만을 어리석게 꿈꾸고있었기때문이었다.

린접부대의 보총사격에 얻어맞은 적기가 우리가 주둔한 부대근방에 추락되었을 때 락하산을 타고 내려온 비행사놈을 우리의 병사들이 손쉽게 중대부로 끌고왔었다. 젊고 호리호리한 몸집에 갈색머리를 한놈이었는데 우리의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자 그의 상판은 이미 사색이 되어있었다. 놈은 우리를 보고 연신 굽서거리면서 알수 없는 말을 지껄어댔는데 아마도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분명했다.

우리의 마을들에 폭탄을 던지고 기총사격을 퍼부은 이 원쑤놈을 쏘아보는 우리 전사들의 눈에서는 불이 이는듯하였다. 당장이라도 그 어떤 보복이 가해질것 같은 공포감이 절정에 다달은놈은 황급히 주머니에서 돈지갑같은것을 꺼내어 그속에 간수하였던 한장의 사진을 우리앞에 보이며 무릎을 꿇고 두손을 비볐다.

뜻밖의 행동에 아연해졌건만 곧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으니 그놈이 고향에서 찍은 가족사진이었다. 젊은 녀편네의 어깨를 끼고 이 잔악한 살인마는 샤쓰바람에 웃고있었다. 전쟁의 폭음이라는 것은 들을길도 없는 미국본토에서, 조선인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대가로 불록해진 돈주머니를 차고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고있을 《애처》에게 제발 자기를 살려보내달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제놈이 던진 폭탄으로 희생된 안해와 아이의 남편이며 아버지들에게 애원하고있는것이다.

순간 부사수 민아바이의 총탄이 어깨우에 높이 들렸다. 소대장이 그의 팔을 붙잡지만 앉았던들 놈은 그 가족사진우에 선지피를 토하고 쓰러졌을것이다.

우리와 맞선 적이 이처럼 파렴치하고 비렬하고 싸우는 그 목적이 졸렬하고 비인간적이었기때문에 우리의 전사들은 싸움에서 무자비하였다.

무력의 수와 기술의 장비에서 미제가 우리보다 우월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놈들이 우리를 정복할수 없었던것은, 우리의 단호한 반타격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었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전쟁의 승리로 이끄시였고 수령님께 충직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 끓어넘친 조국수호의 불타는 일념이었다.

남이 겪은 불행을 보고, 남이 흘리는 피를 보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동정도 하

고 가슴아파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남의 일이며 결코 그 감정이 오래갈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사되어 환기된 감정이며 자기가 직접 입어보지 않은 상처이기때문이다. 상처를 받은 가슴만이 그 자욱을 남기는 법이다.

우리 인민은 이 가슴아픈 상처로 조국을 안 인민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수호한 조국은 귀중하며 이 조국을 위하여 전우들이 흘린 피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 총을 잡았고 우리의 2대가 함께 지키는 조국은 그날의 조국보다 백배로 번영하였다. 그날에 우리가 안았던 조국의 귀중한것들이 오늘에는 백배로 늘어났으며 그날에 간직한 그 모든것에 대한 사랑보다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백배로 커졌다.

화약내 배인 찼찼한 흙을 깨물며 지켜내었고 피땀으로 다시 일으켜세운 우리 조국, 자기 조국의 귀중함을 그토록 심장깊이 체험하고있는 우리 인민이기에 조국의 존엄은 생명보다 귀중한것이다.

지금 미제원쑤놈들은 그날에 이루지 못한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친듯이 새 전쟁준비에 날뛰고 있으며 북으로의 침공을 가상한 각종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벌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고있다.

제갈길을 간 그날의 남조선의 늑다리주구 대신에 파충류와 같은 력사의 오물인 전두한쌍패놈을 사육하면서 이제는 청년이 된 그날의 비행사놈의 자식들에게 신형무기를 메워 또다시 이 땅에서 불장난을 일으키려고 광분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글자그대로 무모한 짓이며 죽어가는자의 마지막 발악이다.

우리의 창조적로동으로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놓은 사회주의 내 조국, 주체의 이 락원을 우리 인민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있는가를 원쑤놈들은 다 알지 못할것이다.

만약 놈들이 우리의 이 사랑스러운 화원에 핀 꽃송이, 일어선 고층건물의 유리 한장이라도 다 친다면 그 어떤 무서운 분노의 화염이 분출히리라것을 놈들은 예상할수 없을것이다.

총을 쏜 침략국의 제2대는 자기의 애비처럼 조선의 하늘에서 추락될것이며 분노한 조선의 새세대들앞에서 그날의 애비처럼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게 될것이다.

조국수호에 불타는 분노한 인민의 이 불길- 이것이 놈들의 새 전쟁도발에 대응하는 우리의 위력한 무기인것이다.

조국통일호 객차에 올라

장현세

신호만 오르면 금시 떠날듯
새로 무어진 조국통일호 려객렬차
그날을 기다려
공장구내에 서있고

온 겨레의 념원담아
정성껏 새겨붙인 그 이름
뜨거운 마음으로 외워보며
꼭신한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내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기적소리
이제 여기를 떠나면
저기 남해가 한끝에 가닿으리
기나긴 세월 기다리고 기다려온
즐겁고도 감격에 찬 려행길에
내 지금 오른것이 아닌가

생각과 함께 려차는 달리고
달리는 려차우에 사람들은 오르고
오르는 사람마다 환희에 찬 목소리
뜨거운 눈물어린 얼굴들

오랜 나날의 리별과 상봉
꿈결에도 그 몇번 오가던 마음들
서른해 넘도록 헤어졌던 어머니와 아들
잡은 손 놓을줄 모르고
두팔로 부둥켜안은 젊은 가슴들
뜨거운 눈물에 젖었구나

가슴속 기쁨 웨치는 저 청년의 목소리
광주의 금남로에서 그대
인민을 항쟁에도 부르던

그 목소리도 쟁쟁하다

들바람에 성성한 백발 날리던 저 로인은
문평땅의 그 농민이 아닌가
분여받았던 그 땅 그 흙에
통일의 신념을 담고담아
수령님께 소중히 보냈던...

보이는 얼굴마다 감회도 깊게
끝없이 들려주는 이야기
남도사투리 가득찬 차칸
온 려차에 넘치는 통일의 기쁨
차창으로 줄줄이 흘러내리는듯

가자, 통일렬차여
온 겨레의 감격의 목소시 터져
힘차게 기적을 울리여라
남해기슭으로 떠난 려차여
남북 삼천리
끊어진 두줄기 철길을 하나로 이으며-

신호만 오르면 방금 차륜이 구울듯
새로 무어낸 조국통일호려객렬차
그날을 기다려 기다려
구내에 서있어

온 겨레의 념원담아
정성껏 새겨붙인 그 이름
다시, 다시 가슴에 새기는 마음이어
아 내 마음 그리운 남녘형제들과 한지리에서
통일된 강산, 남북삼천리를 간다

나의 삶을 두고

김시권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그 언제 끝나는 것인가

내 어린시절
고향의 앞내가에서
고기잡이로 해가는줄 모르던 그날엔
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이 물음
머리위에 내리는 흰서리와 함께
사람들 가슴속에 스스로 찾아오는 이 물음을
젊음이 한창 꽃피는 애젊은 나이에
너무나 일찍 내 가슴에 던졌거니

포화의 전호가에 쓰러진 이 몸
조국을 위해 바치고싶은
구만리같은 앞날을 애석해하며
병상의 하얀 베개잇을 소리없이 적셨다-
어머니가 준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가고있었기에

...그때로부터 서른해
혁명의 붓을 억세게 틀어쥔
이 보람찬 침상우에서
다시금 이 물음을 가슴에 새겨보노라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그 언제 끝나는 것인가

어머니가 준 생명이 끝나는곳에서
그 무엇이 나의 삶을 이어주고있는 것인가
그 어떤 뛰어난 의술과 명약이
나를 구원할수 있었던가

은혜로운 사랑과 믿음을 안고
눈을 감을수 없는 나의 삶이여
이 가슴에 남아있는
병사와 미래와의 약속을 안은채
영영 가버릴수 없는
못다한 임무를 안고 다시 일어난
투쟁의 선언

그렇다 삶이란 바로
쓰러질 권리 없는 혁명의 행군길에서

무기를 손에 쥔 전사의 각오
아버이수령님과 당 앞에
기쁨만을 마련해가는 창조의 열정

가장 어려운 날에
너를 참으로 깨달은 나의 삶이여
죽어도 영원히 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내 살아서 꽃피워가리라

내 눈에 비낀 하늘이여
너는 왜 그리도 푸르른 것인가
내 몸을 온통 휘감아주는
이삭이여, 들이여, 생활이여
너는 왜 이다지도 이 가슴에
환희의 물결로 끝없이 차넘치는 것인가

나의 마음은 나래치고있어라
혁명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며
내 생의 끝까지 가보고싶은곳
어루만져보고싶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조국땅의 그 모든곳으로

아, 당이여, 이 모든것
그것은 그대가 내 품에 숨결높이 안겨준것
그대가 지녀준 정신
그대가 지녀준 의지
그것은 곧 나의 삶!

고마움에... 고마움에 가슴 끝없이 젖노라
아버이수령님과 당의 사랑이
그리도 파사로이 나를 안아주고있기에
더없이 나는 행복하여라
투쟁이 준 삶의 숨결로
내 심장이 이렇듯 세차게 고동치고있기에

삶이여
내 이젠 너의 끝을 모르노라
내 어린시절
고향의 앞내가에서
고기잡이로 해가는줄 모르던
그날처럼...

시조

군민의 자량이 꽃피는 땅

김기호

남강은 어디로 흐르는가

그 시작은 어딘가
그 끝은 어딘가
어제도 오늘도
월비산을 감돌아
끝없이 흘러흐르는 남강

해쫄는 아침이면
장군님 주신 논벌로 나가는 길
맑은 물에 곱게 어리는
꽃같은 제모습에 놀라
처녀들 남몰래 가슴 설레었고

달뜨는 저녁이면
소방울소리 왈랑절랑
풍년나락 가득실고 돌아오는 길
금강의 선녀런듯
삼단같은 머리태를 감으며
웃음도 구슬같이 뿌리던 강아!

어디바루냐,
그 행복의 꽃물결이
포화에 흐려지던 나날
입술을 깨물며
그 윤나던 머리태를 자르고
그 아끼던 《날개옷》도 찢어
오리오리 바줄로 드리웠던 강기슭은

어느곳이나
월비산으로 달리는 마음에
시렁널이 나루배로 무어져 뜨고

삼날마저 노가 되어 번뜩이던 나루
꺾을 따라 흐르던 물결도
사품치며 섰돌며
세월의 그 흐름을 바꾸던 강기슭은

눈비는 내리고 내려
그날의 자옥들은 찾을길 없건만
부드럽고 어린 그 어깨로
수중교를 떠받들고
땅크와 대포들을 건넦우던 그 녀인들
못잊어 물결은 기슭을 치는듯
그리워 물결은 뒤척이는듯

아, 수천수만벌의 총포탄이 우박쳐도
받아안은 행복을 지켜
소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간 마음들
이 강 넘어 전선으로 굽이쳐흘렀나니
그 마음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사람들 기억속에
두고두고 남강이 출렁일것이나

강이여, 남강이여!
해빛안고 불타는 너의 물결은
사랑과 증오의 계선을 흐르는
이 나라 인민의 마음
행복의 기슭에서 썸썸아
원썬들의 아성을 무너뜨리며 굽이치는
도도한 불의 흐름
철의 흐름인가 하노라

순학리, 순학리 영웅의 땅이여!

태어난 고장이래서
그 모습이 빛나는것인가
자라난 그 시절이 여기에 깃들어
두고두고 그 이름 못잊는 산천인가
순학리 순학리
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땅이여!

바라보면
푸른 숲이 설레는 산
푸른 벼바다 흥치는 들
강도 산도 불타던 그날에
불사신마냥 이 고장을 지켜
한발자국도 물러설줄 모른 그 모습
붉게 핀 꽃속에 어려오고

귀기울이면
물길속을 배밀이하던
전사의 높은 숨결
행복의 노래속에
기쁨의 웃음속에
가슴가득 젖어오는 산천

아, 장렬하게 숨지던 순간에도
흐려지는 눈길들어 바라보던 마을
타는 입술 감쌀며
마지막 한방울의 물마저

애슬포기에 기울이던 그 마음이 어려
집집의 창가엔 불빛도 밝아라
언덕의 푸른 숲엔 새들이 지저귀여라

자옥마다 영웅들의 위훈깃든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노래하며
오곡을 가꾸고
열매를 익히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순학리! 순학리!
그대 영웅의 이름으로
자기의 출생지를 외우나니

이 땅을 위해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쳐 싸운 영웅의 삶이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뜨겁게 간직된 고장

아, 생이 태어난 고향보다도
생을 바쳐 지켜낸 땅에
전사의 한생은 빛나는것이구나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것이구나
순학리 순학리 못잊을 땅이여!

남강과 월비산

강은 산을 바라보며 흐르고
산은 강을 바라보며 솟았다
남강과 월비산이 함께 어려
노래로 전설로 빛나는 산천

월비산이 비껴 남강이 두려운듯
남강이 감돌아 월비산이 요새런듯
악에 받친 원쑤놈들
강과 산을 갈라놓으려
밤낮으로 미친듯이 발광했다

줄폭탄을 퍼부어 강을 뒤집고
총포탄을 돌썩워 고지를 불태우며
어리석은 원쑤놈들은 믿었더라
월비산과 남강은 지척에 있어도

포연속에 흐리어
불길속에 묻히어
더는 서로 볼수조차 없으리라고

그것은 오산이었다
물결은 천만갈래 부서져도
월비산의 불구름을 닦아주런듯
물머리 더 높이 추켜드는 남강
도도한 그 흐름을 어찌 막을수 있었으랴

바위가 불타고 땅이 꺼져도
포연을 뚫고
불구름 헤쳐
남강의 물결우에 안겨드는 월비산

그 모습을 무엇으로 가리울수 있었으랴

그때문에 월비산은
전사들의 모습인양
인민의 가슴속에 더 높이 솟고
그때문에 그때문에 남강은
인민의 마음인양
전사들의 가슴속에 언제나 출렁이었나니

아, 천만칼을 내려쳐도
물을 베일수 없듯
원썬놈들은 갈라놓지 못했다
남강과 월비산은 하나의 모습
철벽의 산천으로
조국땅우에 빛나고있다.

어머니의 손

훈련길에 오른 전사들이
남강교를 지난다는 소식에
새벽도 이른새벽
물초롱을 안고 달려나온 어머니
쪽박가득 김오르는 물을 떠주어라

어서 들라고
식은다고
어머니는 자꾸만 손짓하건만
그 손을 바라보는 옛전사의 마음
선뜻 물을 마실수 없구나

아, 잊지 못할 남강의 어머니
마디끓은 저 손으로
가렬한 싸움의 그날엔
얼마나 많은 전사들을 위해
뜨거운 정성을 고이고 고였던가

하루에도 그 몇번
뜨거운 김이 잦기도전에
서둘러 췌기밥을 빗고빗노라
빨강게 익고
겉질이 벗겨져
늘쌍 험해있던 어머니의 손

그 손이 쓰린줄
아픈줄도 잊고
낮에는 탄약 운반...
밤에는 빨래질...
그렇게도 터갈린 어머니손에
소기름 한번 정히 발라뭏드린

옛전사의 송구함이여
싸움이 바빠서였던가
나이가 어려서였던가
어머니의 손길이 부드러운줄만 알았지
그 부드러움이 어떤 손에서 오는것임을
어린 자식이 미처 다 모르듯
내 병사시절에야 어찌 알바 있었으랴

세월은 흘러
어머니 떠주는 물을 마시고
만세의 함성높이
고지예로 치달아올랐던 그날의 전사
내 어느덧
자식을 키워본 아버지 된 오늘에야
저절로 깊어지는 생각이여!

인제는 따뜻한 방에 앉아
손자녀석들의 머리카락 쓰다듬어야 할 년세
전쟁을 이기고 쉬겠다던
그날의 그 약속은 어이하고
전사들이 오가는 길가에서
아직도 손을 놓지 못하는것일가

아, 전사들을 위해
사시절 마를새 없었던 손이라고
오래오래 손잡아 쓰다듬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이 고맙고
그 뜻이 크고커서

남강은 흐르고 흘러가도

전사들결을 못떠난다는 어머니

변함없어라

자식들을 위해선

자신을 잊는 어머니의 그 마음

준엄한 나날에도

행복한 오늘에도

어머니의 따뜻한 그 손길은

언제나 전사들의 위훈을 축복해주는구나

내 고향처럼

따라서고 따라서는

농장원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초소로 떠나는 병사의 가슴

푸르려 설레이는

너를 다시 안아본다, 농장벌이여!

언제 이렇듯

깊은 정이 들었던가

산기슭의 오붓한 마을은

눈에 선한 고향모습이런듯

뜨락또르 달리는 포전길은

내 풀메뚜기 날리며 뛰놀던 동구길인듯

잊을수 없구나

다심한 고향집 어머니처럼

군복깃 여머주던 배나무집 그 어머니

꽃다발을 안겨주며

초소로 바래주던

학창의 너동무처럼

상기도 머리수건 흔드는 저 처녀

어이 잊으랴

모내기로 흠뻑 땀 흘릴 때면

말없이 머리수건 벗어주던 그 눈빛들

파란 논쪽에 뛰어오르면

고향의 하늘빛 어린 샘물을

넘치도록 권하던 그 손길들...

농장원과 함께 부르던 2 중창이여!

때아닌 찬서리가 내리던 그날엔

우등불을 지펴올리며

더운물을 끓여나르며

우리 함께 모판에서 밤을 새웠지

그때문에 그때문에

춤추는 애기모들을 바라보던 새벽엔

혈육처럼 얼싸안고 눈물도 흘렸지

포기마다 이랑마다

병사의 더운 땀이 스민 땅

갈숲처럼 벼들이 다 자란 오늘에도

정작 떠나자니 아쉬워

다시 한번 눈물에 뛰어들고싶은 마음

병사의 고향이란

따로 없는 것인가

들리는 고향이

그대로 제 고향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듯 한혈육같아

언제 어디서나

온 조국을 고향으로 안고 사는 가슴

어찌 떠난다 하랴

두고 가는 마음

따라서는 마음

농장벌과 초소에 이어져

보아라, 하늘가엔

언뜻 무지개도 비졌나니

아, 정든 농장벌이여!

은혜로운 태양아래

행복은 꽃피고 나락은 주렁저라

병사는 너를 지켜 용맹하리

너와 함께 있으리

나서 자란 고향처럼

영원한 내 고향처럼

새로 나온 책소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생활을 더욱 깊이 리해할수 있으며 더 훌륭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수 있습니다.》

최근 문예출판사에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4.15 문학창작단)와 장편소설 《해빛만리》(제1부)(류벽), 중편력사소설 《설죽화》(림왕성)를 세상에 내놓아 문화혁명수행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

은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내용으로 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력사가운데서 대부대선회작전시기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높은 인간성, 고매한 덕성과 천재적인 군사전략적지략을 겸비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숭엄하신 형상을 모시였으며 그이의 따사로온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삶의 가치란 무엇이며 그것을 빛내여나가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높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적들의 동태와 혁명조직들의 형편을 료해할 임무를 받고 며칠째 화룡현성부근에 나와있던 경위중대장 배정식은 해란강가마을의 혁명조직에서 오비서의 급보를 받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적들의 기동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의 전구인 백두산동북부대로 집중되고있는것이다.

놈들의 대무력집단들이 명월구에서 안도 방향으로, 연길 통정에서 화룡방면으로 또 통화를 거쳐 장백과 무송방면으로 사태처럼 쓸어들기 시작했던것이다. 며칠전에는 《련합토벌사령관》노자끼란자가 간도땅에 나타나서 《지구토벌사령관》을 비롯한 휘하 막료들을 거느리고 쏘다니고있는데 이제 화룡현성까지 기여들것이라는것이다.

배정식은 허위단심 달려왔으나 사령부에서는 너무나도 여유있는 생활이 벌어지고있었다. 배정식은 위급한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한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배정식을 비롯한 사처에서 들어오는 급보를 받으시였으나 올기강을 쓰실 의향이 조금도 없으신듯 부대들과 지방조직들을 여유작작 지도하고계신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소동과는 인연이 없는 판 세상처럼 흘러가는 생활에 조금성은 느낀 배정식은 **김일성** 동지께 사령부를 옮길것을 간청했으나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알겠소, 걱정 마오》라고 대답하신다.

바로 그이께서는 위대한 전략과 지략을 구상하시였으며 앞으로 벌어질 전투들은 벌써 승리를 확신하고계셨던것이다.

이 얼마나 담대하고 위대한 모습이신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급한 정세와는 다른 부상당한 성립의 치료를 걱정하신다. 그러시고 이튿날에는 배정식을 화상으로 손을 다친 7련대장 오중훈이 가있는 림시병원으로 문병을 보내신다.

림시병원에서 7련대장을 만난 배정식은 심중을 토로하던 끝에 사령관동지께서 추석날자를 세여 보시더라는 말까지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위전사인 오중훈련대장은 사령관동지의 깊은 심려를 헤아리고 그달음으로 병실을 뛰쳐나와 월청촌전투를 지휘하여 많은 무기와 추석지널 물자를 해결한다.

순간이나마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자책감을 가슴아프게 느끼며 일련단심 그이께 충성다하는 우리의 혁명전위들의 뜨거운 마음이 심장을 울려준다.

소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동지애와 높은 인간성, 고매한 덕성들이 생동하게 그려져 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약품을 가지고 림시병원을 찾아주시고 한사람한사람 따듯이 보살피우신다. 또한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몸소 량강구인민들을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속에서 강반석어머님과 이웃에서 실던 칠성이 어머니와 뜨거운 상봉을 하신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따듯이 이끌어주시고 보살피나가는 위대한 장군님! 인민들은 바로 그 사랑, 그 은정에 목매여 눈물진다....

드디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오를 이끄시고 간고한 원정길을 헤쳐가신다. 적들의 발악적인 대《토벌》공세를 령활무쌍한 전술로 격파하시고 조선혁명의 위기를 구출하시여 혁명의 새로운 양양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독창적인 대부대선회작전이 시작된다.

원정부대는 창설에 얹인 간고한 행군을 하며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가면서 룡과송전투를 벌린다. 이 전투에서 오중훈련대장은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쓰러진다. 련대장은 끝내 소생하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를 잃은 슬픔은 누를길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귀중한 전우를 먼저 보내 아쉬움과 슬픔으로 무거워진 심중을 누르시지 못하신다.

백두산동북부지역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압살하려던 적의 기도들 파탄시키고 이 지역에 집결하였던 수십만의 놈들의 병력을 북만의 광활한

지역에 끌어다 던진 위대한 전략가이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백석탄밀영에 이르시어 설명절을 지내신다.

소설은 이외에도 후방밀영에서의 사건들 대마 룡구서쪽방향으로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부대의 두만강기슭으로의 행군, 홍기하전투 등 역사적자료들이 들어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빛나게 수록된 승리의 로정이였다.

이와 같이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 담고 있어 우리모두의 참된 혁명의 교과서로 될것이다.

장편소설 《해빛만리》(제 1부) 류벽 씀

8.15해방직후시기부터 1949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오랜 시간적공간과 남조선, 일본의 넓은 지역을 무대로 하고있는 이 소설은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해방을 맞이한 재일동포들의 참다운 조국은 자기들의 고향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을 파사로운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라는 깊은 사상을 담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박진기는 지주놈의 악착한 행위로 약혼한 남자와 잔치도 못하고 징용으로 끌려간다. 일본 홋카이도에 끌려간 박진기는 호로베 쓰란팡 5호갱골짜기에서 3년여의 긴 세월을 고역과 학대에 시달린다. 갱속에서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한 그는 동포형제들과 함께 들고일어나 끝내 밀린 임금을 받아가지고 귀향의 길에 오른다.

해방된 조국으로, 그림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주인공의 가슴은 한량없이 부풀었다.

도교에 이른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정치공작원과 련계를 가지게 된다. 박진기는 도교에서 가슴쓰린 사변도 겪게 되며 자기의 애인 남자가 《정신대》에 끌려가 사망되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접하기도 한다.

박진기는 생활세파에 너무도 큰 타격을 받고 쓰러진다. 소중한 정다운 사람들이 다 가버린

이 세상에서 혼자만 살아서는 무엇하랴싶었다.

그러나 그는 산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기를 쓰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고 결심한다. 박진기는 조선청년자치대에 입대하여 시모노세끼로 내려간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 공개서한 《재일100만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신다. 재일동포들의 형편을 환히 굽어보시고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고마움에 박진기는 울고 또 운다.

박진기는 도교로 되돌아가 위대한 장군님의 공개서한을 받들고 모든것을 다바쳐 일하게 된다.

바로 이무렵 박진기의 애인 남자는 사망되었다는 소식이 떠도는 가운데 하많은 곡절속에 살아가고있었다.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박진기는 그것을 알리 없고 도교에서 조선학교를 건설하는 사업에 앞장서서 투쟁한다.

이러한 나날 박진기는 남자가 살아있다는것을 알게 되며 남자는 남편의 소식을 알게 된지 1년 후에 밀항하여 일본으로 오다가 체포된다.

8년만에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눈물겨운 상봉!

그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갈것인가...

중편소설 《설죽화》 림왕성 씀

중편소설 《설죽화》는 력사소설을 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롭고 용맹한 력사적사실을 가지고 창작된 력사소설이다.

거란침략자들의 거듭되는 침입을 최종적으로 물리친 고려민들의 제3차반거란전쟁(1018-101

9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나 어린 처녀 설죽화이다. 그는 아버지가 거란놈들과의 싸움에서 희생됐다는 비보를 받고 용약 싸움터에 나섰다.

남자도 아닌 어린 처녀가 어떻게 싸운단말인가? 소설은 이 처녀가 어떻게 싸울준비를 하는가 하

는것을 펼쳐보인다.

설죽화는 자기의 외삼촌 홍예의 지도하에 산속에서 무술을 익혀간다.

그의 무술은 출중하였고 어느 사나이도 따르지 못한다.

그는 서경에서 사냥경기가 벌어지자 남자옷을 갈아입고 《메나》라는 이름으로 경기에 참가한다.

경기장에서 설죽화는 강감찬을 만나게 된다. 강감찬은 그를 높이 칭찬한다. 설죽화는 사냥경기에서 남다른 쟁기를 보인다.

그후 설죽화는 강감찬이 지휘하는 홍화진전투에 참가하여 무비의 용맹을 떨친다.

설죽화는 그후 구주대전에 참가하여 아버지를 죽인 적장 아들을 통쾌하게 요정내며 이 싸움에서 그도 애석하게 쓰러진다.

설죽화는 이렇게 생이 끝났는가?

아니다, 나라를 위해 바친 그의 짧은 생은력사적기록에 남아있으며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열렬한 조국애는 오늘에까지 산모습으로 전해지게 됨을 보게 된다.

본사기자 김원복

긴등벌의 해질녘

김수남

온종일 하늘가득 웃고도
지평선 한끝 설레는 별우에
해는 떠나기 아쉬워 아쉬워
둥둥 떠오르는 보름달과 속삭이는
칠십리 긴등벌의 해질녘

저 지는 해와 뜨는 달을
풍년복처럼 두리둥둥 두드릴듯
뜨락또르 발동소리 더 높이고
푸른 들을 누비며 달리는
김매는기계소리도 멎에 겨웠네

흥겨운 춤노래판이 예 아닌가
물결을 스쳐날으는 제비의 흰가슴
노을 비낀 시내가에서 웃음을 못참는
저 처녀들의 얼굴은 그대로 둥근달인가
웃음꽃 떨기지어 더더욱 설레는 푸른벌

농약을 뿌려가는 비행기의 은빛날개에
웃음을 실어보내던 기쁨인가
모내는기계우에 파란 수건 날리던
농장원처녀들의 즐거움인가
누구라없이 이 기쁨 나누고싶고
어디라없이 오래도록 바라보고싶네

가물에 타고 먼지졌던 그 얼굴들
타버린 곡식포기, 모지라진 낫날
피눈물을 뿌리던 그 옛날 해질녘은
막막한 바다, 한숨의 바다
바라볼수록 숨막혀 가슴만 타더니...

그 얼마나 시원한가
그 얼마나 후련한가
가도가도 끝없는 강냉이바다, 벼바다
황홀한 환희의 화폭
넋없고 바라보는 긴등벌 칠십리

바라볼수록 눈시울 뜨겁게 안겨오네
이 환희의 한복판에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그 사랑
눈내린 논두렁에 비내린 밭이랑에
물길을 열어주시며 찍어가신 발자욱...

아 온종일 하늘가득 웃고도
이 환희의 바다를 못떠나는 붉은 해
떠오르는 보름달 마주보며 환히 웃네
낮에 밤을 이어 이 기쁨 즐기라고
해와 달이 하나로 긴등벌우에서 웃네

베짜는 녀인의 탄식

최덕연

오리오리 시름을 섞어서 짜네
베틀아래 어디서 풀벌레 우나

삼동추위 견디여낼 홀적삼 하나 없이
긴긴밤엔 의로운 등불과 마주았네

갓난애도 군포를 바칠 차례라던데
남편은 늙도록 병정살이 못면하네

들고짱, 놓고짱 눈물섞어 짱짱
쓰라린 이 심정을 그 누가 알라

농사군에게 맑은 술과 이밥 먹기를 금지했던 말을 듣고

리규보

장안에 호화롭게 잘사는 집엔
보배가 산더미로 쌓여있도다

내것이라곤 한알도 없이

구슬같이 흰 입쌀밥을
개나 돼지가 먹기도 하네

풀뿌리를 캐여 연명을 하다가
굶주려 마침내 쓰러지고마누나

기름같이 맛있는 청주를
심부름꾼 아이들도 마음대로 마시누나

데려다 일이나 시키지 않으려면
그 누가 밥 한술인들 먹여주라

이것이야 모두다 농사군이 이룩한것
그들이야 본래 무엇이 있었으랴

농사군은 부릴 때만 소용이 되지
먹여 살리는덴 아랑곳 없구나

농민의 피땀을 빨아모아선
제 팔자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네

구슬같이 희디흰 이밥과
고인 물같이 맑은 술은

한평생 일을 해서 벼슬아치 섬기는
이들이 바로 농사군이라

바로 농사군이 만든것이라
그들이 먹는것을 하늘인들 허물하라

누더기로 겨우 살을 가리고
온 하루 쉬지 않고 밭을 갈지

여보게 권농사 내 말 듣게
나라의 법이라도 잘못 되었다

벼모가 파릇파릇 자랄 때부터
몇번을 매가꾸어 이삭이 맺었건만

서울안 높은 벼슬아치들은
술과 밥이 썩어나고

아무리 많아야 헛배만 불렀지
가을이면 관청에서 앓아가는것

시골에서 글 읽는 신비들도
언제나 술쥔은 마시고 사는데

남김없이 몽땅 빼앗기고나니

놀고먹는자들도 이러하거니
농사군을 왜 이리 천대를 하는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주제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소설도 많이 써야 하겠습니 다. 전쟁 3년동안에 우리 인민이 투쟁한것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면 좋은 소설을 쓸수 있습니 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우리 인민군병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로 일관된 영웅전사들과 인민들의 불멸의 형상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편집부는 이런 현실적요구로부터 조국해방전쟁 주제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작가들과의 좌담회를 가지였다.

기자-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들은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 나가 왕성한 창작적성과를 올리고있는 작가동무들과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엄단웅-오래동안 현지에 나가있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 감회가 새롭고 하고싶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기자-그렇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러 작가동무들이 지난기간과 마찬가지로 조국해방전쟁주제 작품창작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몇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탄없는 소감들을 누어보자고 합니다.

엄단웅-오늘 우기 작가들앞에는 전쟁에 대한 옳은 관점으로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먼저 강대성을 자랑하던 제국주의 두목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그의 내리막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빛나는 형상을 작품에 구현하는것이 초미의 문제입니다.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3년간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세계 16 개

제국주의침략무력과 맞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는것은 백전백승의 전략가이시며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입니다.

정창윤-옳습니다.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작품창작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하는것이며 그와 아울러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실하였던 인민군전사들과 우리 인민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진실하게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난시기 우리의 소설작품들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그렇습니다. 단편소설 《맑은 아침》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전쟁주제 소설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하였는데 그 작품들은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4.15 문학창작단과 현역소설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모신 작품들을 더 왕성하게 창작하고있지 않습니다.

엄단웅-예, 지금 우리 소설가들의 창작적열의는 대단합니다.

저는 전쟁체험자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생각이 많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우리가 다 알고있는것처럼 요즘 미제와 전두환괴뢰역도는 매일 전쟁 연습소동을 일으키면서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놈들의 심상치 않은 이 소동은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민족의 념원에 대한 도전일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우리의 평화적건설을 직접 위협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피와 땀으로 건설해놓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지키도록 사회주의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미제국주의 침략적본성과 귀족같은 만행을 폭로규탄하는 작품을 더 많이 쓰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의무이 라고 생각합니다

김제규-옳습니다. 정말 우리 작가들의 의무가 큼

니다. 저 역시 지난기간 전쟁주제작품을 써왔지만 엄단웅동무의 말을 듣고보니 작가적임무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리석형-저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기자-그렇지요. 그러구보니 엄단웅동무의 《락동강》이라든가 김재규동무의 《포화속에서》라든가 저기에 앉아 전쟁시기를 추억하고 있는듯한 정창윤동무의 《포성》 등은 아직 우리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김석(조선인민군 소좌)

그렇습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들은 오늘도 우리 병사들을 고무하는 생활의 길동무로 되고있습니다.

안상길(황해제철련합기업소 노동자)

우리 강철로동계급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죄물을 뽑고있지요.

리석형-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미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소설을 창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리 인민들의 위훈이 아로새겨진 여러 분야의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시기 우리 인민들은 전선과 후방의 여러 부문에서 무비의 용감성과희생성을 발휘하여 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당 인민군전사들의 투쟁, 후방인민들의 투쟁, 적후에서의 빨찌산투쟁, 전시생산을 위한 투쟁 등 각이한 여러 분야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찾아내야 할것입니다.

인민군전사들의 투쟁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적후투쟁, 비행기사냥군조원들의 투쟁, 비행사들과 해병들의 투쟁, 땅크병들과 공병들의 투쟁, 군의들의 투쟁 등 실로 많은 분야가 있는것입니다.

엄단웅-물론 지금까지 적지 않은 소설들이 서로 다른 여러 생활분야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을 대지 못한 분야도 있는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한다고 해도 우리 소설가들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여러 분야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찾아내고 생활을 깊이 탐구한다면 다양하고 특색있는 생활을 소설에 담을 수 있고 개성이 뚜렷한 성격들을 창조할수 있을것입니다.

정창윤-참으로 지난 조국전쟁시기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성격을 창조한다는것은 소설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전쟁시기와 같이 가장 첨예한 계급투쟁의 시기 복잡한 인간관계와 생활속에서는 인간의 성격은 전형적이면서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최고의 높이에서 발현됩니다. 영웅전사들과 인민들의 성격탐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의 일반화와 개성화를 옳게 살려내는것입니다. 일반화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쟁에 참가하는 인간이 계급적본질과 시대적특징을 옳게 체현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합법칙성으로부터 나오는것입니다. 또한 개성화를 훌륭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그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잘 체현시키는것이라고 봅니다. 조국전쟁시기 우리가 체험한것처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성이라고 하여 약간의 가공을 해서 옮길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개성화를 통해서 꼭 성격의 일반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계급적본질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개성을 가진 전형이 창조될수 있습니다.

기자-지난기간 창작과정에 성격창조에서 얻은 경험이며 앞으로 도움을 줄 교훈이구만요.

정창윤-그렇습니다.

한웅빈-성격창조는 창작의 본성적요구중의 하나입니다. 훌륭한 인간의 성격은 언제나 훌륭한 생활적바탕에서 꽃핀다고 봅니다. 때문에 작가와 생활체험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조국해방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격창조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논의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좀 이야기해주시시오.

김재규-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총격적인 사변은 사람들의 정신을 양양시킵니다.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이 바로 그런 사변이였습니다.

나는 이 전쟁 3년을 작가로서가 아니라 전사로서 총을 쏜 전쟁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 체험하였습니다. 399 고지를 비롯한 전선동부에서의 진지방어전과 반타격전, 동해안에서 적함들과의 해안방어전투의 나날들이 더욱 기억에 새롭습니다.

람홍색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적돌추부의중심고지인 399 고지로 육박해올라가던 신중순영웅의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선함

니다.

3년간의 가렬치절했던 전쟁이 끝나자 작가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전쟁을 몸으로 체험한 한 전사로서 시대와 인민 앞에 무엇인가 말하지 않고서는 못건딜 강렬한 충동이 나의 가슴에 소용돌이쳤습니다.

전쟁기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사변들과 영웅전사들의 부탁들이 하나의 큰 사상을 이루면서 머리속에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쓰지 않고서는 건딜수 없었지요. 그래서 쓴 작품이 《포화속에서》와 《전선지구》였습니다.

염단웅-실감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작품도 그렇지만 직접 전쟁을 겪고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훌륭한 형상을 창조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대렬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총을 잡고 싸운 나이많은 작가들이 전쟁물창작에 관심을 돌리고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자기들이 전선과 고향마을에서 직접 겪은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넘겨주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석-옳은 말씀이지요,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출생한 우리 병사들은 바로 소설책에서 전쟁생활을 배우고있습니다.

기자-저 황철에서 온 안상길동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안상길-그렇습니다. 전쟁시기 저는 여섯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저의 고향에서 원썬미제가 감행한 천추에 용서할수 없는 만행을 잊을수 없습니다.

김재규-저 역시 그런 일들을 누구보다 많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지 30년이 가까와온다고 생각만 했지 더 쓸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한 뒤편 쓰면 뻐지》 하면서 인제는 그것으로 조국해방전쟁주제를 종결지으려 하고있었습니다. 그릇된 생각입니다.

전쟁을 체험한 사람이 쓰지 않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지금 미제와 전두환괴뢰들은 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으며 인민들을 무지하게 탄압하고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사건만 보아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려서 건딜수 없습니다. 정의의 목소리인 작가가 왜 그것을 보고 가만 앉아있겠습니까?

기자-옳은 말입니다. 생활체험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 결의 또한 아주 혁명적입니다.

리석형-김재규동무의 결의를 듣고보니 저 역시 흥분하게 됩니다.

염단웅-저에게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에 있으면서 전쟁이 끝나면 큰 작품을 써보겠다고 제판으로는 적지 않게 취재를 했습니다. 이름있는 영웅도 만났고 미국놈에게 남편과 아들딸도 다 잃고 홀로 남은 80고령의 할머니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막상 전쟁물을 쓰자고 하니 그 당시의 취재노트에서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 취재노트에는 사건적인 전투사적들이 많이 적혀있지만 생동한 인간성격들에 대한 탐구와 구체적인 생활세부들은 적혀있지 않기때문입니다. 즉 당시에는 전쟁의 국면들과 인간들을 오늘과 같은 작가적눈으로 관찰하지 못했으며 그것을 취재노트에 축적해놓지 못했던것입니다. 전쟁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젊은 작가들이 훌륭한 전쟁물을 쓰자면 배가의 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그러니까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서 전형적인 생활세부와 인간관계, 인간성격이 발현될수 있는 세부들에 대한 탐구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습니다.

염단웅-옳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삭막해지고있는 오늘 그것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중요합니다.

한웅빈-작가는 자기 인민이 걸어온 력사의 모든 시대에서 살아야 합니다. 작가라면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사변도 외면할 권리가 없습니다. 더우기 지난 조국전쟁시기처럼 인간의 고상함과 아름다움 그 위대성이 가장 높이 발현된 시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그 시대에 대하여 쓰고싶었습니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한 영웅들,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인간들에 대하여 쓰고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시기 나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이란 때때로 반짝거리며 나타나는 먼곳의 불빛같은것이 있습니다. 말하기도 어려울만큼 단편적인 인상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야기의 책, 영화들을 통하여 보충되었고 채색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느것이 직접 본 인상이고 간접적으로 얻어진 인상인지 자신으로도 분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창윤-솔직한 감정입니다.

한웅빈-그러나 저는 체험해보지 못한 전쟁에 대하여 썼습니다.

제목은 《분대장과 전사》라고 합니다, 이 작금에는 어린시절의 기억에서 더듬어낸 《인민군대아저씨》의 모습, 이야기와 책과 영화에서 얻은 지식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물론 작품은 잘되지 못했습니다. 다른것을 적혀놓고봐도 전시분위기가 덜 난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탐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조국해방전쟁주제 작품을 쓴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쓰기는 힘들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것은 그 영웅서사시적시대에 살며 싸웠던 사람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그토록 충직했던 영웅들의 정신적풍모를 십분의 일, 백분의 일이라도 반영할수 있었으면 하는것입니다.

하여 내가 속한 세대 그리고 우리의 뒤세대들이 오늘을 위해 싸운 영웅들에 대하여 알게 되고 철천지 원수 미제에 대한 피맺힌 원한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김재규-그 문제가 특히 젊은 작가동무들에게 무거운 임무로 나선다고 봅니다.

리석형-전쟁을 겪은 저에게도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정창윤, 엄단웅- 옳습니다.

리석형-제가 한가지 더 말하고싶은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반영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썼던 그 전호가에 선 저의 아들에게 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던져주어야 할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저 흥미있는 전투장면이나 라렬해놓는다면 아무런 의의도 없는것입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조국해방전쟁주제작품에서도 현실적교양을 기본목적으로 하는만큼 우리는 영웅적인민들의 투쟁을 더 많이 보게 하고 원수 미제와 괴뢰들의 침략적본성과 악랄성을 여지없이 폭로규탄해야 합니다.

한웅빈-체험은 없으나 그 잊을수 없고 잊어서는 안되는 시대에 대하여, 사변들에 대하여 저는 지금도 쓰고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왕성하게 쓰겠습니다.

김석-정말 기쁩니다. 조국해방전쟁주제작품에 대한 우리 병사들의 기대는 대단합니다.

안상길-우리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엄단웅, 리석형-저희들도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더 좋은 작품들을 창작할것을 결의합니다.

정창윤, 김재규-저희들의 결심도 다름바 없습니다.

기자-좋습니다. 여러 작가동무들이 한 이야기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방침의 요구대로 조국해방전쟁주제작품창작에 커다란 충격과 실천상 도움을 줄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독자들에게 기대를 주는 불타는 결의 또한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독자들과의 약속을 훌륭한 작품으로 지켜주어야 한다는것은 우리 작가동무들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작가동무들은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들로 교양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조국해방전쟁주제작품창작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리라 확신하면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본사기자 최봉무

독자반향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문학이 걸어온 빛나는 길

책읽기를 넘길수 없는 하루의 일과로 여겨온 저는 《조선문학》400호를 받아들고 깊은 생각에 잠겨 밤깊도록 잠들수 없었습니다.

한것은 우리가 흔히 받아들고 폐사롭게 읽어온

문학작품창작의 화원이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어떤 로정을 통하여 개화탄발할수 있었는가를 눈시울 뜨겁게 느끼게 되었기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는 아름답고 풍만한 나무가 없고 자

양분과 해빛을 못받는 생명이 없듯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귀중한 량식의 하나로 되고있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뜨거운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동무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크며 민주조선건설에서 동무들의 사명은 매우 무겁습니다.

동무들은 문화전선에서 싸우고있는 투사들입니다.》

덕성기사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에 깃든 어버이 사랑》을 비롯한 여러 글들에서 보느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혁명적문학예술을 뿌리로 하여 새민주조선 건설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북조선문학예술총련맹》을 무어주시고 그 기관지 《문화전선》을 창간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었습니다.

1946년 9월 2일 《문화전선》의 창간호를 보아주시고 잡지가 해야 할 강령적교시를 주시던 그 영광과 그날밤 출판구좌에 10만원을 등기로 더 보내도록 하신 그 사랑은 오늘 400호를 받아안은 저의 가슴에 뜨거운 격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실로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끝없는 로고와 당의 한량없는 은덕을 모르고 레사롭게 잡지를 받아들군하던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저의 마음은 한없이 송엄해지고 글자 한자한자, 장정, 편성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문학과 《조선문학》이 걸어온 빛나는 길은 여러 론설들과 작품들에서 내용적으로 력력히

찾아볼수 있지만 특히 오랜 작가들의 수기묵음에서 생활적으로 생동하게 받아안을수 있었습니다.

잡지의 창간호 첫페이지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고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사를 받쳐준 감격의 그날을 회상하고있는 수기 《사랑의 활무대를 두고》, 북조선문학예술총련맹대회에 대표로 참가하던 력사적인 그날을 추억하는 수기 《잊을수 없는 나날》 그리고 전쟁의 어려운 시기 정기간행물들을 어김없이 편집출판하던 투쟁을 보여주고있는 수기 《전쟁시기의 추억》과 사회주의건설의 벽찬 나날들을 돌이키게 하는 여러편의 수기묵음들은 이것을 잘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서 우리 문학발전에 돌려주신 바다와 같은 사랑과 하늘과 같은 은덕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잡지를 다 읽고 뒤표지를 덮었을 때 우리 독자들은 《문화전선》 첫호로부터 《조선문학》 400호까지의 책들의 모습들을 한눈에 보며 위대한 사랑의 로정을 다시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독자들과 더불어 저 역시 우리 안민들에게 주체예술의 화원을 마련하여 주신 당중앙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습니다.

《조선문학》 400호에 실린 덕성기사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에 깃든 어버이사랑》을 비롯한 여러 글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의 손길아래 우리 문학이 걸어온 사랑의 로정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여주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력사이기도 한것입니다.

평양제2사범대학 어문학부 최희숙

독자반향

당에 대한 뜨거운 충성의 노래로 일관된 우수한 작품들

나는 잡지 《조선문학》을 한호도 빠짐없이 애독하고있는 독자중의 한사람입니다.

내가 잡지 《조선문학》과 이토록 뜨거운 인연을 맺고있는것은 아마도 그것이 우리 초병들의 불같은 심정의 대변자, 생활의 더없는 길동무, 마음의 벗이기때문일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새생

활 창조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새로 사킨 다정한 벗을 그리는 심정으로 기다려온 우리 초병들은 전례없는 사랑의 특집으로 편집된 잡지 《조선문학》 100호를 받아안고 끝없는 기쁨으로 가슴들먹였습니다.

항시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피어오르던 절절하고 송엄한 마음의 격동을 깊은 서정으로 노래한 서정시 《위대한 날에》를 비롯한 많은 시편들

과 정론 《당중앙의 불빛 우러러》 그리고 주체형의 혁명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신하고 매혹적인 성격들로 꽃을 피운 소설들, 수필, 실화문학, 당의 문예리론을 깊이있게 론증한 문학론설들과 단상 그 모든 작품들에서 일관하게 흘러나오는 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노래는 우리 초병들의 심장을 세차게 불태워줍니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의 주석단을 삼가 우러러 우리 초병들이, 온 나라 인민들이, 아니 온 세계가 감격과 한희로 설레던 진정 그때는 위대한 시각, 위대한 날이었습시다.

그 영광의 시각에 다시 서보게 하는 서정시 《위대한 날에》, 이 시는 얼마나 뜨거운 걱정, 송가입니까!

위대한 태양과 함께 우리 시대가 맞이한 위대한 향도성!

시대의 이 영광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 우리 인민의 심장의 웨침이 구절구절마다에서 북받치며 축포처럼 터져오릅니다.

.....

진정 눈물없이 는 맞이할수 없는
력사의 이 시각
수령님께선들 얼마나 기쁘시랴
한평생 길없는 초행길을 헤치시며
그처럼 힘들어 이룩하신 주체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이시는 혁명의 향도성이
당의 앞길에 찬란히 빛나고있음!
인류의 앞길에 빛을 뿌리고있음!

생각할수록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수령님의 기쁘신 모습을 우러르면
어찌할길 없는 환희와 함께
향도의 빛발이 넘치여
가슴속에서 터져오르는 행복, 행복!

.....

그렇습시다.

영광스러운 당!

그 빛발이 넘치여 하늘땅 가득히 밝음과 젊음이 넘치고 그 품이 있어 우리 인민의 기쁨과 희망, 청춘도 행복도 있는것이며 세상에 단 하나인 조선의 영광, 조선의 행복이 있는것입니다.

우리 당에 드리는 수많은 감사의 정을 담은 시들과 함께 소설작품들도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당의 지도밑에 우리 문학의 새로운 주인공들로 태어난 단편소설 《강한 바람》의 3대혁명소조원 유영의 형상과 당중앙창가에서 빛발치는 따사로 온 해발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충성의 불씨를 심어주는 《밤길》의 당비서 원영준, 그 어느 작품을 읽어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을 받들어나가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넘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힘차게 내닫는 시대의 벽찬 숨결, 인민의 심장의 맥박이 뜨겁게 굽이쳐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들과 더불어 초병들의 절절한 마음을 반영한 당에 대한 충성의 송가로 일관된 잡지 《조선문학》 400호에 실린 작품들은 병사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며 열렬히 애독되고 있는것입니다.

우렁찬 신호나팔소리 울리는 사격장에서도 힘겨운 행군길에서도 작품의 주인공들은 초병들의 가슴속에 귀중한 모습으로 살아있으며 힘과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그들의 충성의 마음들은 초병들의 가슴속에 불씨로 타올라 원썩적멸의 서슬푸른 총창을 버려주고 지칠줄 모르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초병, 우리들이 가는 길은 언제나 험난하고 보람잡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신념은 확고부동합니다.

.....

참으로 위대한 날이다
이날에
내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리는것
그것은 조선혁명이 동트던 그 언덕에서
조선의 별을 우러르며
말없는 가슴에
변함없는 의리로 충성을 다지던
혁명전위들의 그 순결한 마음이어라!

그렇습시다. 우리 초병들의 마음은 일편단심 그날이 그 마음인것입니다. 생활의 길동무 잡지 《조선문학》 400호에 나오는 작품들의 주인공들의 마음도...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국의 방선 그 어디서나 우리 초병들은 사랑하는 주인공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지켜가고있는것입니다.

조선인민경비대 군관 리창록